

컨트리로드

작가: 전민석
각색/연출 : 조바른

제작



1. 바다 속 - D

푸른 바닷속 광경. 각종 이름 모를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친다.
물고기 한 마리를 유유히 따라가는 카메라.
물고기는 바닥에 잠긴 온갖 쓰레기 더미에 튀어나온 로봇 손가락을 발견한다.
손가락을 보고는 호기심이 생겼는지 주둥이로 톡. 건드려 보고.
이때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거대한 굉음과 물기포들. 놀란 물고기가 서둘러 달아나면,
수면 위에서부터 다가오는 우악스러운 크레인 하나. 화면을 덮치면!

2. 쓰레기 수거선 - D

저 멀리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쓰레기 수거선. 화면 위로 뜨는 자막.

2069년, 인천

수면에 부유하는 쓰레기들을 헤치며 수거선이 나아가고 있다.
산산이 부서진 헬리콥터의 잔해, 반 토막 난 선박, 그리고 잡다한 쓰레기들.
쓰레기 수거선의 갑판으로 우수수 떨어지는 쓰레기들.
그 틈에 그물에 몸이 감긴 낡은 고철 로봇. 찰리의 모습 보인다.

3. 도로 위 - D

찰리를 포함해 고철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달리고 있다.
차안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꾸벅꾸벅 조는 덤프트럭 운전사. 자율주행

라디오 E 해수면의 상승에 따라 더 많은 난민들이 인천과 부산 캠프에 수용될
 예정이라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면서 국민들은 증가하는 난민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

4. 고급주택가. 자동차 안 - D

도심의 화려한 빌딩, 뉴스 여기까지 이어지고.,
고급주택가에 정차해있는 차. 운전대를 잡은 **페드로** (19. 라틴계 혼혈남. 락울 형). 그리고
옆에서 구겨진 도면을 보고 있는 **현우** (18. 남. 한국계 미국인 입양아)다.

현우 야, 이거 발로 그렸냐? 알아볼 수가 없잖아.
페드로 알아볼 수가 없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렸는데.

차에서 내리는 현우, 길 건너에 보이는 고급주택에 다가가며.

현우 (귀를 톡톡 치면서) 들려?
페드로 (차 안. 귀에 낀 이어폰을 확인하며) 응.

5. 고급주택가 + 집안 거실 - D

담벼락을 넘는 현우. 거실 통유리창으로 안쪽이 보이는데. 한 젊은 여인이 먼지를 털고 있다. 눈에 띄지 않게 현관문 앞에 다가서는 현우. 당황한다.

현우 야 이거 뭐야. 도어락이 옛날 거잖아. 열쇠 없어?
페드로 E 없는데...!
현우 너 이 씨...! 들어가서 물건만 들고나오면 된다며!
페드로 E 그런 것도 못 열면서 지금까지 도둑질은 어떻게 했냐?!
현우 (속이 터진다) 어휴, 이 씨...

거실 유리창 쪽으로 다가가는 현우. 핸드폰을 슬쩍 유리창 앞에 두고 모퉁이에 숨는다.

현우 전화 걸어. 벨소리 최대로!

노트북을 조작하는 페드로. 유리창 앞에 놓아둔 핸드폰이 크게 울린다.
그 소리에 여자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한다. 여자는 통유리로 다가가 창을 연다.
핸드폰에는 "UNKNOWN"이라고 적혀있다. 이게 뭐지, 하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는 여자.

여자 여보세요?

순간 페드로, 노트북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시킨다. 핸드폰에서 노이즈가 가득한 디지털 음향이 재생되고, 그 소리를 듣던 여인의 입이 크게 벌어지며 눈이 뒤집혀 쓰러지는데 찻사게 뛰어가 여인을 받는 현우.

페드로 E 최신 모델이라 비싼 거야. 소중하게 모셔.
현우 더럽게 무겁네.

이때 유리창 쪽에, 셰퍼드 한 마리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릉 거린다. 당황하는 현우.

페드로 E 응 왜?

컹! 컹! 달려드는 셰퍼드. 순간 들고 있던 여자를 놓아버리는 현우. 쿵! 소리와 함께 바닥을 찰는 여자. 셰퍼드가 여인의 머리를 물어뜯자, 가죽이 벗겨지면서 내부의 금속 재질이 드러난다. 동시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 (집사로봇이 위험에 처하면 바로 경찰지구대로 연결되는 시스템) 황급히 집안으로 들어가 2층 계단을 뛰어오르는 현우.

자고 있던 노인 부부, 현우를 보고는 겁먹고 얼어붙는다. 노인부부에게 씨익 미소짓고,
컹!컹! 셰퍼드가 현우를 따라 계단을 올라오자, 찻사게 도망친다.
/한편 페드로,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겁에 질려 악셀을 밟는다.

2층 창문을 여는 현우. 그런데 높이가 생각보다 높다!
뒤에서 뒤 쫓아오는 셰퍼드! 현우의 다리를 문다! '으악!!'
힘차게 다리로 셰퍼드를 쳐내는 데 성공하는 현우! 깨갱-! 나가떨어지는 셰퍼드.
에라 모르겠다! 일단 뛰는 현우! 능숙하게 착지하고 벌떡 일어나는데 -!

현우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경찰들.

경찰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끌려가며 힐끗 보는데, 차가 사라졌다. ‘헛! 나쁜새끼’

6. 인천 난민촌 소개 몽타주 - D

덤프트럭 “난민 거주지역”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걸려 있는 입구로 들어간다.
 기사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한국 대중가요에 취해 흥얼거린다 ♪
 지저분한 흙바닥 위에서 아이들이 낡은 축구공을 차며 깔깔대고.
 낡은 건물들 위로 전깃줄과 빨랫줄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다.
 노점상 아줌마와 취객이 실랑이를 벌이는 와중에 덤프트럭이 내달리며 흙탕물이 튈다.
 트럭을 향해 욕설을 뱉는 아줌마, 술병을 집어던지는 취객.
 트럭 운전수는 백미러로 그들을 보며 킁킁댄다.

7. 쓰레기장 - D

덤프트럭이 뒤에 실은 쓰레기를 쏟아낸다. 거대한 쓰레기장.
 군데군데 피어나는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
 잠시 후, 쓰레기 더미 어디선가 **라울** (10. 라틴계 흑인 혼혈 남자아이)이 얼굴을 불쑥 내민다. 멀어지는 덤프트럭을 보고는. 휘파람을 부는 라울. 그 틈에 마스크를 쓴 **앰버** (10. 한국계 백인 혼혈 여자아이)도 얼굴 뽕! 우그러진 로봇 팔을 들고 나온다. 허리춤에 차고 있던 공구 주머니에서 렌치를 꺼내 그나마 멀정해 보이는 팔을 능숙하게 해체하는 앰버.

라울 앰버! (손짓으로 오라고 한다)

앰버가 다가가 보면, 부서진 주크박스 기계가 앞에 서 있다.

앰버 뭐야, 이게?

라울 내가 영화에서 봤거든? 이거 돈 넣으면 음악 나와. 이거 고칠 수 있지?

앰버 이거 비싸?

라울 비쌀걸? (주크박스를 흔들어 보면서)

8. 쓰레기장 공터 - D

모포 위에 주크박스가 분해되어 있고, 여기저기 공구와 LP판 몇 장 널려 있다.
 쓰레기 꼭대기, 앰버와 라울이 각기 떨어져 쓰레기 더미 속을 뒤지며 뭔가를 뒤지고 있다.

라울 우리 형이 말해준 건데, 전쟁 전에는 여기가 공원이었대!

앰버 공원?

라울 응. 풀도 엄청 많고! 나무도 엄청 많았대!

앰버 말도 안 돼!

라울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앰버 말에는 꼼짝 못한다)

앰버 (나팔처럼 생긴 스피커를 꺼내 먼지 털면서) 찾았다!!!

락울, 주크박스 안 내장된 부품과 LP판을 들고 뛰어와 앰버 곁에 앉는다.

락울 진짜 되는 거야?

앰버 주크박스 몸체에 스피커를 연결하고, LP판을 걸자 판이 돌아간다.
숨죽이며 소리를 듣는데. 지지직거릴 뿐 소리가 안 들리자, 실망하는 그때!
♪ Take Me Home, Country Roads - John Denver

음악이 흘러나오자, 락울과 앰버. 환하게 웃으며.

락울 무슨 노래야?

처음 들어보는 음악 선율에 두 눈을 반짝이는 앰버.
그리고... 저 멀리 마치 노래에 반응이라도 하듯,
쓰레기들 틈에 파묻혀 있던 찰리의 손가락이 툭! 움직인다.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무슨 소리지?'하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락울
과 앰버. 둘이 소리가 난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간다.

앰버 소리 들었지?

락울 들은 거 같은데....

이때 앰버와 락울 뒤 편에 번쩍!!! 쓰레기 더미를 뚫고 튀어나온 찰리의 팔!
으아아아악-! 놀란 아이들 뒤로 자빠지고.
쓰레기 더미에서 몸을 서서히 드러내는 건..... 고릴라 모양의 로봇...찰리다!
찰리, 두 눈에 파란 섬광이 들어오며 앰버와 락울을 쳐다보는데!
겁에 질린 락울과 앰버,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찰리, 뻘뻘거리며 몸을 일으킨다. 오랜만에 움직인 관절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 모양새!
락울은 겁에 질려 찰리를 볼 뿐인데..
앰버는 그런 찰리에게 호기심을 느끼는 듯... 가까이 다가간다.

락울 앰버 안돼!!

생각보다 큰 키의 찰리. 앰버를 내려다본다.

/ 찰리 POV: 앰버를 보는 화면./ 앰버 옆에 뜨는 작은 화면 - 소영.

찰리, 소영을 닮은 앰버를 보고 방긋 웃더니, 이내 와락 껴안는다!
어리둥절한 앰버. 놀란 락울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다시 소영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는 찰리.

/ 찰리 POV:소영의 화면 위에 “NEGATIVE”라고 쓰더니 사라지며, 앰버의 얼굴만 남는다.
그러자 실망한 눈빛의 찰리. (파란 섬광의 눈이지만 어느 정도 표정은 알 수 있는).
그제야 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락울. ‘앤 뭐야?’하는 눈빛
찰리, 주변을 살피면 온통 쓰레기장이다.

락울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것 같은데?
앰버 (찰리에게 손을 내밀며) 안녕. 난 앰버야!
락울 말할 줄 알아? 말 못해? ... 흠..그럼 .난민촌이 뭔지는 알아?

고개를 가우뚱거리는 찰리, 주크박스에 다가가 손가락을 가리킨다.
혹시나 해서 음악을 트는 앰버. 주크박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찰리가
씨익 미소짓더니 몸을 들썩인다.

락울 춤추는 거 좋아하나 봐.

앰버 정말 그런가 싶어서 주크박스로 다가가 음악을 톡 끄면.
금세 슬픈 표정으로 변하는 찰리.

앰버 (올려다보며) 넌 이름이 뭐야? 이..름!
찰리 찰.. 리.(힘들게/ 기계음)
앰버 찰리. 이름 좋은걸?
락울 (멀리서 젊은 패거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야, 숨자. 쿠마 패거리야.
앰버 (락울 말에는 관심 없고) 데려갈 거야.
락울 안돼!! 저 형들이 로봇을 보면 다 분해해서 가져갈 걸?!
앰버 (주변을 둘러보더니) 잠깐 기다려!

cut to

낡은 외투와 모자를 쓴 찰리. 겉으로만 보면 그냥 키 작은 뚱뚱한 아저씨로 보인다.
쿠마 패거리들이 힐끗 보지만 뒷모습만 보고 알아채지 못한다. 맥주 마시며 수다 삼매경.
위기를 벗어나서 키득거리며 페드로 집으로 향하는 앰버와 페드로, 그리고 찰리.
카메라 till-up 거대한 난민촌이 한 눈에 들어온다

타이틀 컨트리 로드

9. 인공제방 - D

멀리 보이는 인공제방. 보수 공사가 한창이다. 제방 벽 곳곳이 심하게 금이 가 있다.
미연(40대 후반 한국인. 현우와 앰버의 엄마)은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자재들을 옮기는 중.
아이들은 돌을 모으고. 로맨칼러를 입은 신부도 짐을 나르며 신기한 듯 미연을 바라본다.

신부 선생님, 운전이 많이 느셨네요.

미연 (웃으며) 그래요?
난민남 1 좀 더 앞으로! 오케이!

이때 저 멀리 군용 트럭 한 대가 달려오더니 미연의 지게차 앞에 멈춰 선다.
트럭에서 내리는 난민촌 **관리소장**(50대 대머리). 발을 땅에 내딛자마자 웅덩이의 물이 튀겨
구두가 더럽혀진다.

관리소장 (운전병에게) 야, 시동 끄지 마. 금방 갈 거야.

차에서 내리는 경비병들. 그중 하나가 사이렌을 울리고. 관리소장에게 확성기를 건넨다.
일제히 시선이 관리소장 쪽으로 향한다.

관리소장 아. 아! 관리소장입니다. 다들 일을 멈추고 잘 들어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 시간부로
여기 방벽 보수 공사는 무기한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사중지! (확성기가 되다 안되다)
아 씨 이거 왜 이래?!

지게차에서 내리는 미연. 다들 우르르 관리소장 앞으로 다가오고.
(*다양한 국적의 난민들 한국말이 서툴다)

미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공사를 멈춰요?
관리소장 (무시하고 다시 확성기를 들며) 나라에서 에너지 줄이기 캠페인을 하는 거니까! 괜히
뭐 차별 대우한다 뭐다 불만을 가지지 마시고! 야! 거기 안 들려?! 장비 다 멈추라고!!
자재공급을 안 한다고!!
난민남 2 이거 이대로 두면 무너진다고요!
관리소장 하..난민 놈들.. (경비병에게) 여기 좀 통제해!

그러자 각기 욕을 하며 달려드는 난민들, 이를 막아서는 경비병들.
관리소장은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군중들 틈에 튀어나온 미연.

미연 소장님!!! 잠깐만요! 방벽에 물 새는 거 저거 안 보여요?!

관리소장 안 무너져~! 멀쩡하구만 뭘.

미연 3구역 방벽도 저 상태였다가 무너졌잖아요! 자세히 좀 보세요... 제발.
잘못하면 우리 7구역 사람들, 떼죽음 당한다고요!

관리소장 (무시, 운전병에게) 야, 금방 갈 거라니까 시동은 왜 꺼? 빨리 걸어!

난민남 1 우리보고 다 죽으라는 거지?! 응?! 난민은 사람도 아냐?! 다 죽이겠다는
거잖아!!!

난민남 1을 거세게 제압하는 경비병! 철썩! 땅바닥에 쓰러지는 난민남 1.

미연 아저씨!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몰려들자, 겁이 나는지 부랴부랴 차에 타는 관리소장. 차에서 멀어진다.

10. 난민 재판소 - D

그시각. 허름한 난민 재판소 건물.

재판소 안. 경찰들에게 팔이 붙잡힌 채로 현우가 끌려 들어온다.

재판관 한 명이 허름한 탁자 앞에 앉아있다. 권태와 무료함에 찌든 표정.

그 앞에 서는 현우. 하지만 자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경찰이 양옆에서 붙들고 있다.

재판관 (서류를 보며) 어머니랑 여동생이랑 같이 L.A에서 인천 난민 수용소로 3년 전에 왔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 아버지는 미국인. 아버지는...지난 폭동중에 죽었네. 맞아?

현우 네.

재판관 인종차별을 피해 한국으로 왔으면, 고마운 줄 알고 살아야지, 도둑질을 해?!

현우 (고열로 약간 정신이 혼미하고) 저기..약 좀... 주세요.

재판관 애 상태가 왜 이래?

경찰 개한테 물렸다고 합니다. 파상풍 같은데요...?

재판관 공범은?... 붙었어?

경찰 혼자 했다는데요. 애 상태가 이래서 자세한 취조는...

재판관 국외로 추방해. 다음 달 12일까지 한국을 뜨는 걸로!

현우 (추방이라는 말에 정신 번쩍) 잠깐만요! 추방은 안 돼요!

재판관 자 다음! (쌓여 있는 서류를 들춰보며) 뭐가 아직도 이렇게 많아?

경찰들이 현우를 팔력으로 데려 가는데, 갑자기 재판관한테 달려드는 현우.

재판관, 겁에 질려 허둥대며 의자에서 떨어진다.

그런 재판관의 먹살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현우.

현우 추방은 안 돼요!! 난 못 떠나!! 죽어도 못 나가!!

경찰이 곤봉으로 현우의 머리를 내려치자, 현우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는다.

11. 회상. 미국 도로 위 - N (흑백)

현우의 꿈 장면. 흑백. 프레임이 툭툭 끊기는 애니메이션 화법.

짙은 어두움. 우다다다다-! 기관총 발사되는 소리와 함께 보이는 섬광!

거리의 유색인종들에게 무차별 구타와 총질을 해대는 복면 쓴 사람들.

그 중엔 커다란 성조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도심 뒷골목

무릎을 꿇은 채로 떨고 있는 사람들. 그중에 현우 가족도 있다.

복면 쓴 놈이 무릎 꿇은 사람들을 한 명씩 싸 죽이고 있고, 이제 미연의 차례.

잔뜩 겁에 질린 미연, 양쪽에 어린 현우와 앰버를 두 팔로 감싸 안고.

복면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Go back to your country.

순간 복면을 덮치는 현우의 아버지 (군복, 미국인).

아버지 RUN!!!

아버지를 향해 총을 쏘는 또 다른 복면! 탕!!!

12. 난민 재판소 밖 - N

허어어어억!! 악몽에서 깨어난 현우. 몸을 일으키면.

이곳은 난민 재판소 밖. 주변을 둘러보면 황폐한 쓰레기 더미뿐이다.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우. 다리를 절뚝거리지만, 정신은 말짱한 것처럼 보인다.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현우. 꺼내는 건 누군가의 지갑.

지갑을 열어보면 재판관의 신분증이 보인다. 돈만 꺼내서 챙기고 지갑은 버리는 현우.

13. 허름한 골목 식당 - N

식당 안 외진 곳에 앉아있는 **장규석** (40대, 남. 외사과 거주권 발급 담당)

현우가 들어와 장규석 앞에 앉으며 돈 봉투를 속 밀어놓는다.

현우 말씀하신 금액, 전부 다 채웠어요. 이제 한국 거주증, 얻을 수 있는 거죠?

장규석 (피식) 한 달 정도 걸려.

현우 (가져가려는 규석 손에서 다시 돈 봉투를 잡고) 일주일이요.

장규석 (웃으며 봉투를 뺏어 돈을 보더니) 알았어. 근데, 여기서 혼자 살 거야?

현우 그 돈이면 엄마랑 여동생까지 다 된다고 했잖아요!!!

장규석 물가가 올랐잖아, 물가가~!! 하여튼, 말귀를 못 알아 들어, 싫어?...

현우, 분노에 이를 뻔 깨물지만, 별수 없다.

이때 어디선가 들리는 사이렌 소리. 위이이이이이잉...

장규석 (현우 보며, 미소) 집에 갈 시간이네? 흐흐...준비는 걱정말고 더 가져와.

14. 난민 수용서 전경 몽타주 - N

난민 수용소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통금 시간을 고지하는 방송이 흘러나온다.

상점들 문 닫고, 컨테이너 집마다 소등. 가로등도 꺼지고 순식간에 컴컴해지는 거리.

스피커 E 통금 시간을 알립니다. 이 시각부터 외부 출입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는 자는 난민법 2조 3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전부 소등하고 전기 사용도 금합니다.

출입문 닫기 전에 헐레벌떡 뛰어오는 난민들, 그 틈에 현우도 끼여서 간신히 들어온다.

현우, 컨테이너들 사이의 골목을 걸어와 자신의 집 (컨테이너) 앞에 도착한다.

컨테이너 번호 7-31, 문고리를 잡고 잠시 머뭇거리다 들어간다.

15. 현우의 컨테이너 안 - N

안으로 들어서는 현우에게 쏘르르 달려오는 앰버.

앰버 엄마, 오빠 왔어!

식탁 위 촛불 아래서 흰 옷을 꿰매고 있던 미연. 얼굴이며 다리까지 성한 곳 없는 현우를 못마땅한 얼굴로 훑는다. 현우는 옷웃을 벗고, 앰버는 그런 현우를 졸졸 따라다니고.

앰버 오빠, 어디 갔다 왔어? 엄마가 엄청 걱정했어.

식탁 위 촛불 아래에는 현우의 한 끼 식사가 차려져 있다. 허겁지겁 밥을 먹는데.

앰버 (다리를 보고 놀라서) 오빠! 피!

현우 별거 아냐! (다리를 추스린다)

앰버 내가 오늘 뭘 주웠는지 알아?

현우 쓰레기장 갔었어? 내가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큰일 난다고!

미연 그걸 알면서 애를 혼자 놔뒀니?

앰버 중간에서 현우와 미연의 눈치를 본다.

미연 앰버 들어가 자야지.

앰버, 하는 수 없이 자기 방으로 사라지면.

미연 다리는 어찌다가 -

현우 (미안해서 도리어 냉랭한) 약 먹었어. 놔두면 알아서 나아.

미연 (한숨) 내가 아빠는 아니지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너가 앰버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다치지 말고, 죄 짓고 괜히 쫓겨나지 말고!

현우 거주권만 얻으면 다 끝나! 우리 살 집도 구할 거야, 내가!

미연 또 잘난 척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바보여서 이렇게 사는 건 줄 아니? 어제 8구역의 청년 한 명이 또 시베리아로 추방당했대. 그러니 제발...

현우 (답답해서 못 참겠는) 엄마! 세상이 바뀌어야 달라지지. 이 더러운 세상은 죽었다 깨도 안 바뀐다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옷웃을 걸치고 나가는 현우.

미연 또 어딜 나가?!

현우 기다리지 말고 자!

문 뒹! 닫고 나가는 현우.

/방문 뒤에서 내내 듣고 있는 앰버 '오빠한테 찰리 얘기해야하는데...' (혼잣말. 한숨)

16. 난민 수용소 골목 - N

어둠이 내려앉은 난민촌 거리. 옷깃을 여미고 빠르게 걷는 현우.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는 건물 앞에 다다르자, 바지 뒤춤에서 권총을 꺼내 장전하고
 쿠마의 아지트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입구에서 현우를 부르는 목소리. ‘현우야!’
 현우가 돌아보면, 페드로가 어둠 속에서 기어 나온다.
 냅다 달려가서 주먹으로 한 대 내려치는 현우! 퍽!
 뒤로 넘어지는 페드로. 그 위로 올라타 먹살을 잡는 현우.

현우 날 버리고 혼자 튀어?!

페드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아니 갑자기 짹새가 나타나는데 (기죽어) 그럼
 어떡하냐?

현우 (한 대 더 때리려다 관두며) 어휴... 씨...!

페드로 나 이번에 걸리면 한국에서 추방이야. 나 추방당하면 라울은 누가 돌보냐?!

 너 근데 다리는 왜 그래? 다쳤어?

현우 비켜!

바로 쿠마의 아지트로 들어가는 현우. 페드로도 뒤따르고.

17. 쿠마의 아지트(야외) - N

인공제방 바로 옆 가건물이 쿠마의 아지트.
쿠마(중국계 혼혈 20대)의 패거리가 양철통에 불을 붙이고 삼삼오오 모여 수다중.
 쿠마는 동료들과 맥주를 마시며 바비큐 그릴에 닭꼬치를 구워 먹고 있다.
 현우는 쿠마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 쿠마에게 총을 겨눈다.
 순간 쿠마의 동료들 제각기 일어나 현우를 향해 총을 겨누지만,
 어찌된 일인지 쿠마는 무표정하게 닭꼬치만 뜯는다.

현우 돈 내놔. 다 싸버리기 전에.

쿠마 너도 하나 먹을래? 맛있는데. (현우가 미동도하지 않자 꼬치 던지고
 일어나며) 근데 너 입 무겁더라. 끝까지 혼자 했다고 그랬다며?

현우 알면 2배로 쳐주던가.

쿠마, 현우를 아랑곳하지 않고 인공제방 쪽으로 성큼성큼 앞서 걷는다. ‘아, 씨’ 쫓아가며

18. 인공제방 벽 - N

어둠 속이지만 여기저기 제방 갈라진 틈이 보인다. 지지대에도 물이 흐르고. 쿠마는 인공
 제방을 손바닥으로 쓱 쓸어내리고 젖은 손을 현우에게 보여준다.

쿠마 바닷물 스며든 거 보이지? 3구역 제방이 무너지기 전 상황이란 똑같아.

현우 (뭘 어쩌라는 건지) 그래서 지금 고치고 있잖아!

쿠마 (피식) 순진하긴.. 이 나라가 우릴 죽이기 전에 먼저 떠날거야.

현우 여길 탈출한다고?!

쿠마 광주까지 차로 이동하고 거기서 비행기로 중국에 갈 거야. 비행기는

구해줬는데 문제는 차야. 지금까지 구해둔 걸로는 부족해.
 그래서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현우 잠깐만... 널 따라가겠다고 하는 미친 사람들이 있다고?
 쿠마 미친 건 우리가 아니지. 죽여도 되는 인간들이 있다고 믿는 (시내 쪽을 가리키며) 저것들이 진짜 미친 거지. 우릴 도와주면 비행기 자리 하나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어.

현우 (피식) 미안하지만 널 못 믿어.
 쿠마 아쉽네. 믿을만한 놈이 하나라도 있는 게 좋은데.
 현우 하지만. 차는 갖다 줄 수 있어. 가격만 2배로 쳐준다면.
 쿠마 좋아. (품에서 돈 꺼내주면서) 어제 너가 일한 거. 이제 믿음이 좀 회복되었을까?

현우 (젖싸게 돈 받아, 센다)
 쿠마 차는 많을수록 좋아. 시간은 빠를수록 좋고.
 현우 돈이나 제대로 준비해 뒀.

19. 난민촌 - D

인천바다에 드넓게 펼쳐진 난민촌. 현우와 페드로 사는 7구역. 상점들 문을 열고 도로변 끝에 있는 현우의 컨테이너(집).

20. 현우의 컨테이너 안 - D

황당한 표정의 미연과 현우.

미연 켈,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썩그랑! 소리에 황급히 미연과 현우가 돌아보면,
 화병을 깨트린 찰리. 당황한 듯 멈춰 있다가 미연을 보고는... 깨진 조각, 발로 썩...밀며 숨긴다.

현우 저 고물을? 저건 도대체 어디서 주워 왔냐?
 엠버 재 가족들이 전부 해남에 있대!
 현우 (한숨) 됐고. 저거 다시 쓰레기장에 갖다 놔.
 엠버 안돼! 재랑 약속했던 말야!
 현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찰리를 보며) 야! 너 가만 안 있어?!

집 안에 물건 만지다가 걸린 찰리. 금새 시무룩.

미연 우리가 바깥에 사는 사람들 같았으면 엄마도 아무 말 안 했을 거야.
 하지만... 우린 그런 형편이 안 되잖아. 도와줄 힘이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서로 불행해져.
 엠버 (뽀로통해지고)...

현우, 자리에서 일어나 찰리에게 다가간다. '이 고철 덩어리를 어찌지' 하는 눈으로

바라보다가, 험상궂은 표정으로

현우 너 따라 나와. 빨리!!!

21. 난민촌 고물상 - D

온갖 가전제품, 고물들이 잔뜩 쌓여있는 상점.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현우와 찰리.
그 와중에 찰리, 고물상은 또 처음이라는 듯 동공 커지며 호기심에 여기저기 둘러보고.
일본인 주인 마츠다 (60대, 남)은 전기제품을 수리하느라 바빠서 현우를 보지도 않는다.

현우 아저씨! 이거 좀 봐줘요!

마츠다 (그제야 찰리 보며)

현우 이거 얼마나 해요?

마츠다 (찰리에게 다가와 살펴보며) 이런 고철을 어디서 주워왔어? 야...이거 나
어렸을 때나 봤던 건데.

현우 그렇게 오래됐어요?

마츠다 봐. 여기. (가슴 쪽에 벗겨진 유빅 로고를 가리키며) 유빅이라고.
군수업체인데. 거기가 처음에는 로봇 만드는 회사였다고. 이게 초창기 3세대
모델.

현우 그럼 나름 골동품이니까, 가격은 꽤 되겠네. 맞죠?

마츠다 이런 걸 얻다 쓰냐? 부품도 다 옛날 거고. 잠깐만 있어봐.

마츠다, 컴퓨터 인터넷 브라우저에 찰리의 모델명을 적어 넣는다.

그러자 찰리와 관련된 뉴스 기사가 발견된다. 읽어보면

“유빅사에서 제조된 유일한 모델. 해남 인근서 실종”, “유빅사, 5억원 현상금 걸어”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마츠다.

현우 아저씨! 얼마에 파실래요?

마츠다 50.

현우 부품만 내다 팔아도 그거보단 낫겠네.

마츠다 옛날 부품이라 아무 데도 못 써. 나니까 받아주는 거지.

현우 됐어요. 안 팔아요!

마츠다 자..잠깐만!! 6...60까지 줄게! 100?! (현우 찰리와 나간다)

현우와 찰리가 멀어지자..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마츠다.

마츠다 거기 유빅이죠?! 뭘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실종된 로봇을 찾는다고..

22. 라울의 컨테이너 앞 - D

좌락-! 소리와 함께 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

라울과 앰버가 까르르거리며 찰리에게 물을 뿌린다.

몸에 묻은 흙먼지가 물줄기에 씻겨나가자 즐거운 듯한 찰리.

그리고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현우와 페드로.

페드로 백만 원을 불렀다고? 당장 팔아야지! 뭘 고민해?
현우 마츠다 영감이 누군지 몰라? 그 쏘잔한 영감탱이가 그 정도 금액을 불렀을 땐,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라고.
페드로 오호...?
현우 가자!
페드로 어디 가는데?

23. 고급주택가 - D

주위를 살피며 흠칠 차를 물색하는 현우와 페드로. 페드로가 먼저 벤츠를 발견하고 다가간다. 품에서 기다란 자를 꺼내 차장 틈새로 집어넣어 능숙하게 문을 연다. 현우도 스포츠카를 찾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문을 연다.

핸들 및 박스를 부쉬 열면, 안에 알 수 없는 전기회로들. 연결하면! 스파크 튀고! 악셀 밟으면! 부르르르릉-

/ 도로위

현우와 페드로가 탄 차가 나란히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페드로 경주할까?!
현우 덤빌래?

페드로가 먼저 앞서 나가면, 더욱 악셀을 밟는 현우. 멀어지는 두 사람의 자동차. 저 멀리 난민촌 풍경 보이고...

24. 고물상 안 - D

TV를 고치고 있던 마츠다. 가게 안에 들어오는 사내들을 보고 어리둥절하다가.

마츠다 혹시 유빅에서 오신 분들?
수하 1 (안을 둘러보며) 네. 찾는 물건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마츠다 하하하! 맞네! 딱 봐도 여기 사람들처럼은 안 보여. 돈부터 주셔야지?
수하 1 물건 먼저 보여주세요.
마츠다 그게 나한테 있는 건 아닌데. 제보만 해도 3억 맞죠?
수하 1 어디 있는지만 말해줘도 줄게요. .
마츠다 (눈치를 살피다) 그 고철덩어리, 7구역에 사는 놈인데. 이현우라는 놈이 가지고 있어요. 개 컨테이너 넘버가 가만 있어보자... 7.....하..나 7 뭐였는데....
수하 1 10프로 더 올려드릴게요.
마츠다 호호호호. 7-31 입니다!

승! 소음소충. 책상에 엮어지는 마츠다. (총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수하 1 (무전기에 대고) 여기 물건은 없습니다. 7-31 이현우라는 놈이 가지고 있습니다.

25. 민병대 사무실 - D

박철진 (스피커에 대고) 그래? 로봇을 정중히 모셔오세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는 **박철진 (44. 민병대장)**. 맞은편에 서서 내내 손수건으로 흘쩍이는 코를 닦으며 통화내용을 듣고 있는 **윤성찬 (77. 유빅사 회장)**.

박철진 들으셨죠? 우리 애들 일 잘합니다~

윤성찬 여기 난민촌은 자네 손바닥 안이니까.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하겠네. 단... 로봇이 망가지면 안 되네.

박철진 원진 몰라도 엄청 중요한 건가 보죠? 회장님이 그토록 신경쓰시는 거 보니.

윤성찬 내가 전에 개발했던 건데... 단종된 거라.

박철진, 가지고 놀던 칼을 윤회장 뒤 벽에 던진다. 놀란 얼굴이 벌게진 윤성찬.

박철진 (느물) 진짜 그것뿐입니까? 직접 나서신 회장님 면이 있지.. 그 로봇 가치에 30% 어때요?!

윤성찬, 묘하게 일이 꼬였다는 생각 들고.

26. 윤성찬 차 안 - D

윤성찬이 차에 타면, 앞에 타고 있는 운전수(비서)에게 말한다.

윤성찬 난민촌 7-31 이현우라는 놈. 잡아 와.

비서 네? 그거 박대장이 가져오기로 하셨잖아요.

윤성찬 고양이한테 쥐를 맡겼어. 우리가 직접 확보하자고!

27. 현우의 컨테이너 안 - D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질 듯 열린다.

안으로 들어서는 박철진의 수하들(민병대). 수하 중 하나 "살살이 뒤져!" 소리치고.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건들을 뒤엎다시피 하면서 찰리와 관련된 흔적을 찾는다.

28. 현우의 컨테이너 밖 - D

현우와 페드로, 실실 웃으며 왔다가

박철진 수하들이 현우 컨테이너를 박살내는 것을 보고 놀라 숨는다.

페드로 저 것들 뭐야? 민병대잖아?!

현우???

페드로 아직 추방일 더 남았다며?!

현우, 페드로와 함께 멀어지려는데, 순간 앞을 가로막는 경찰들.(이번엔 윤성찬이 보낸 사복 경찰)

경찰 이현우? 맞지?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 한 현우, 경찰이 한 눈 판 사이에 페드로가 경찰을 팍! 밀친다!

페드로 도망쳐!!!

현우, 페드로의 도움을 받고 무조건 도망친다!

29. 난민촌 - D

전속력으로 도망가는 현우! 뒤를 쫓는 사복경찰들!
상인들로 가득한 거리, 도망치다가 부딪힐 뻔하고! 시장 골목을 누비며 달리는 현우.
그러나 반대편에서 우르르 몰려오는 경찰들. 반대편으로 도망가며 시장 골목에 있던 박스
들 전부 쓰러트리고! 더욱 좁은 골목길로 도망가려던 찰나-! 퍽!!
개머리판으로 현우를 제압하는 사복경찰! (F.O)

30. 라울의 컨테이너 - D

잠을 자고 있는 앰버. 문을 쿵! 열고 라울이 들어온다.

라울 앰버! 큰일 났어! 지금 민병대가 너 집을 막 부수고 다녀?
앰버 (부스스 일어나) 찰리! 찰리는 어디 갔어?

31. 난민촌 골목 - D

난민촌 골목, 시장거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찰리. 재밌는 것들 투성인데.
그러다 바나나를 파는 가게 앞에 멈추는 찰리. 손을 뻗으면.

가게주인 야마!!! 너 뭐야?!

겁이 난 찰리. 뒷걸음질 치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흥겨운 음악 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찰리. 인파 틈으로 사라지는 찰리. 그 자리로 뛰어오는 앰버와 라울.

앰버 저쪽으로!

32. 구치소 면회실 - D

넓은 면회실 한가운데 테이블에 앉아있는 현우. 얼굴에 피멍이 들어있고.
양복을 입은 윤성찬이 비서와 함께 들어온다.

현우 제발 부탁이에요! 엄마한테 전화 한 번만 하게 해줘요! 지금 추방 당하면 안 돼요! 제발! 엄마한테 전화 한 통화만...!

윤성찬 여기 수갑 좀 풀어주지?

현우 ? (어리둥절)

수갑을 풀어주는 경찰.

윤성찬 자네가 이현우 인가?

현우 (끄덕끄덕)

윤성찬 (찰리 수배 사진 보여주며) 이거, 어딴는지 알아? 우리 회사 물건인데 어찌다가 분실했어. 그게 또 어떻게 하다 너한테 간 모양이던데.... 우리가 매우 아끼는 거거든.

현우

윤성찬 이 물건, 찾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핸드폰을 하나 준다). 내 전화 한 통이면, 자네는 바로 추방이야. 만약 찰리를 데려오면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지.

현우 원하는 거... 뭐든요? 거주권도.. 줄 수 있어요?

윤성찬 (미소) 못 할 것 같나?

33. 현우의 컨테이너 - D

난민촌 입구에 자동차가 선다. 차에서 내리는 현우. 잽싸게 집으로 달려가면. 엉망이 된 집안 모습에 놀라는 현우.

페드로 현우야! 살아있었구나!

현우 엄마는?

페드로 아줌마는 괜찮아. 그 경비병 새끼들이 지금 그 로봇 찾겠다고 난리도 아냐!

현우 그 로봇 어딴데?

페드로 몰라.

현우 앰버는?!

페드로 우리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었어.

현우 ...찾아야 돼!!

집 밖을 뛰쳐나가는 현우.

페드로 뭐?! 뭘 찾아? 야 이현우!!

34. 난민촌 골목 - 해질무렵

외투를 입은 사람을 보고 쫓아가 붙잡는 앰버. 하지만 찰리가 아니다.

35. 피로연장 - N

앰버와 라울이 피로연장에 들어선다.

앰버가 가져온 주크박스 음악에 맞춰 수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다.

♫ Dancin' Around A Fire - Flatland Cavalry

그 가운데서 찰리를 발견하는 앰버!

앰버 여기서 뭐해! 내가 어디 가지 말라 했잖아!

아랑곳 하지 않고 찡긋 웃으며 찰리, 앰버의 손을 잡고 춤을 춘다!

앰버 뭐 하는 거야?!

찰리, 앰버의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 주변 취객들도 덩달아 신나서 함께 춤을 추고!

그 모습 본 라울, 씩 미소를 짓고.

앰버는 추기 싫은데, 능숙하게 앰버를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고..!

그러자 앰버의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고.

찰리 (방긋 웃으면)

앰버도 이제 덩달아 신이 나서 춤을 추는데-!

간혹 마이클잭슨의 문워크도 하는 찰리. 그게 재밌어 보였는지 라울도 따라 한다.

파티분위기가 한층 고조되는 그 순간,

위이이이이이이잉-! 분위기를 깨는 사이렌 소리에 저마다 멈춰서는 사람들.

이어서 한 블록씩 가로등이 꺼지는 난민촌. 곧 전체가 어둠에 싸인다.

흥에 겨웠던 사람들, 저마다 한 마디씩... “웬 소등”, “특하면 저 지랄이야.” 등

주크박스도 음악을 멈춘다. 흐르는 정적.

앰버 (찰리에게) 이제 돌아가야 돼.

찰리 (시무룩)

앰버 (찰리에게 손을 내밀며) 어서!...뭐해. 어서 가자니깐!

그러나 찰리, 움직이지 않고. 말 없이... 주크박스를 쳐다본다.

그러더니... 가슴 부근에서 링 모양의 빛이 강하게 뿜어져 나온다.

그 모습 본 앰버 “뭘지?” 링 모양의 빛이 점점 더 발현되더니...!

이내 주위의 꺼진 전등들이 깜빡거리며 하나, 둘씩 켜진다!

집에 돌아가던 사람들, 켜지는 가로등을 보며 어? 멈춰서고!

하나, 둘씩, 마치 뮤지컬의 한 장면처럼 탁탁! 가로등이 켜진다!

그 중 너무 밝게 켜지면서 터져버리는 전구들도 있다!

갑자기 난민촌 전체가 밝아지고.

피로연장의 음악도 다시 재생된다!
놀라운 듯 찰리를 쳐다보는 앰버.

앰버 너가 한 거야..?

순간 찰리, 앰버를 보며.... 씨익 미소를 짓는 찰리. 앰버에게 천천히 손을 내민다.
앰버, 찰리의 손을 내려다 보다... 잡으면...

cut to

하객 속으로 앰버를 찾아 달려오는 엄마 미연의 모습도 보이고...!
거기에 현우와 페드로도 합류한다.

페드로 저깁다!

현우, 앰버와 찰리에게 다가가는 순간-!
끼이이이이이이이이이악-!

분위기를 깨며 나타나는 민병대 트럭! 트럭에서 내리는 대원들. 그리고 뒤따라 내리는 박철진. “찾아!” 느닷없는 민병대원들의 출현에 놀라 어리둥절한 난민들이 도망가면서 아수라장! 민병대는 난민들을 위협하며 피로연장 한가운데로 모은다.
그런 어수선한 틈을 타 잽싸게 앰버와 찰리를 데리고 도망치는 현우.

36. 난민촌. 어느 골목 - N

앰버의 손을 잡은 채 달리는 현우, 그 뒤에 찰리, 라울, 페드로가 헉헉거리며 달린다.
난민촌 으스스한 골목길로 들어가다 민병대원을 보고는 벽 뒤로 숨는 아이들.

앰버 (작게) 저 사람들 뭐야? 오빠 또 사고 쳤어?!

페드로 찰리 때문이야.

앰버 뭐?! 찰리가 왜?!

찰리도 이해가 안 간다는 듯 고개를 갸웃 하면.
민병대원들이 한눈을 판 사이 반대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아이들.
다른 사람들의 눈 피해 쓰레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일행. 구석으로 향하더니,
쓰레기 더미 아래 묻힌 맨홀 뚜껑을 옆으로 밀어내는 현우. 한 명씩 안으로 들어간다.

37. 지하 하수도로 - N

현우일행, 사다리 타고 지하 하수도로 내려와 달린다. 현우 걸옷을 벗어
앰버를 입을 막아주며 “조금만 참아” 손잡고 뚫는다.

38. 야외 피로연장 - N

수하 한 명이 피로연장 한 귀퉁이에 숨어있던 취객 난민을 끌고 나와 박철진 앞에 무릎 꿇린다.

수하 1 이놈이 로봇을 봤답니다!
취객 난민 살려주세요! 제가 알아요! 제가 봤어요!

철진, 공포에 떨고 있는 취객 난민과 눈을 맞춘다.

취객 난민 키가 이만하고! 웬 로봇 하나가 애들이랑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가슴을 가리키며) 여기가 막 빛나더니 사방이 환해지고 막 다 깨지고-

취객 난민의 턱을 탁! 잡는 박철진. 겁에 질려 움츠리는 취객 난민.

박철진 그래서. 어딴어? 그 로봇.
취객 난민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며) 아 그게... 아까까진 저기서 앰버랑 춤을 췄는데... (앞줄에 서 있던 미연과 눈을 마주친다)

앰버의 이름이 나오자, 하객들 틈에 섞여 있던 미연이 당황한 표정을 짓고, 이를 눈치챈 철진, 미연에게 힐끗 쳐다본다. 잔인한 눈빛에 소름이 돋는 미연. 더는 버티기 힘든!

미연 제 애들이예요! 우리 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린애들 찾자고 춤을 들이대고 협박을 해요?!

박철진 당신 자식이 물건을 훔쳤어. 어딴어, 이현우?

미연 뭐요?!

박철진 (수하들에게) 여기 있는 놈들 다 데려가!!!

39. 난민촌. 거리 일각 - N

맨홀 뚜껑 열고 나오는 현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아이들에게 나오라고 손짓한다. 현우, 앰버의 손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고. 페드로와 라울이 나오도록 돕는다. 마지막에 기어 나온 찰리, 현우를 향해 손을 뻗는데. 모른 척 돌아서는 현우. 찰리, 실망한 듯 슬픈 표정 지어 보이고, 혼자 알아서 기어 나온다.
꿈~~ 하는 수 없이 현우 일행을 쫓아가는 찰리,

페드로 어? 이거 뭐야?

순간 찰리의 가슴을 보는 현우. 가슴에서 빛나는 원형 불빛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그 불빛에 맞춰 주변 가로등도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현우 야! 너 그거 좀 어떻게 안 되냐?
앰버 야!가 아니라 찰리야!

앰버 뒤에 숨는 찰리.

페드로 (현우에게) 이제 어떡할 거야?
현우 (페드로에게) 우리랑 있으면 너네도 위험해.

눈치 빠른 페드로, 현우에게 바짝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페드로 너 저 로봇 팔 거지? 유박사에.
현우 달리 방법 없잖아. 팔아서 탈출해야지. 일단 찢어지자. (앰버에게)
 앰버, 가자. (찰리에게) 야! 너도!
앰버 (줄줄 따라가면서도) 찰리라고!

멀어지는 현우와 앰버를 바라보는 페드로와 락울.

40. 난민촌. 거리 - N

현우와 앰버, 찰리가 빠르게 걷는다. 여전히 찰리가 이동하는 방향을 따라 가로등들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고. 어디선가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찰리의 어깨에 앉는다. 찰리는 달리기를 멈추고 새에게 손가락을 내민다. 작은 새는 찰리 손가락 위에 앉는다.

앰버 오빠, 헉헉 힘들어...
현우 그래서 내가 뭐랬어? 재 데리고 집에 있으라고 했지? 왜 멋대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건데?!
앰버 아니 나는-!

이때 저 멀리서 달려오는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인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놀란 작은 새가 멀리 날아간다. 새를 따라 쫓아 달려가는 찰리! 미처 다가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앰버 찰리!!

찰리에게 달려드는 커다란 차량 한 대!
 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악-!!!! 황급히 찰리 앞에 멈춰 서는 자동차.
 어리둥절한 표정의 찰리. 차량 헤드라이트를 뚫히 바라보면.
 이를 본 앰버가 구하러 가려는데, 현우가 잡아당긴다! “안돼!”
 차에서 내리는 한 남자. 찰리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간다.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인해 얼굴 보이지 않고. 올려다보는 찰리. 남자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형체가 점점 드러난다. 마침내 드러난 얼굴. **신부**(60대 남)다.

신부 (찰리를 보며) 이건...뭐야?
앰버, 현우 신부님!!

41. 신부의 차 안 - N

신부가 뱅 차량 운전하고 있고, 차 지붕에 조악한 십자가 장식(할로겐)이 있다.
 마치 구급대 차량처럼, 뒷좌석에는 물건 박스가 듬성듬성. 그 사이사이에 현우와 앰버, 찰리가 숨어있다.

신부 안 그래도 갑자기 성당에 전구가 다 터져나가서 구하러 가던 중이었는데.

이게 다 저 녀석 때문이라고?
 현우 그런 것 같아요.
 신부 근데 민병대가 왜 저거를 잡으려는 건데?
 앰버 저거가 아니라 찰리요!
 신부 어.. 그래, 찰리.
 현우 모르겠어요, 아마... 되팔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요?
 앰버 찰리는 물건이 아니야!
 현우 넌 좀 조용히 좀 있어.
 신부 애들아, 숨어!

현우와 앰버, 찰리가 황급히 숨는다. 신부의 자동차를 멈춰 세우는 민병대. 창문을 내리라고 지시하자, 찡긋 미소를 짓는 신부. 민병대, 차에 매달린 십자가를 보자 굳이 차량을 세우지 않고 보내준다. 부르르릉... 멀어지는 신부의 차량.

42. 성당 지하. 기도소 - N

외경. 신부, 촛불을 앞세우고 앰버와 찰리, 현우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간다.

신부 여기는 안전할 거야. 당분간은

찰리, 그 와중에 주변 둘러보느라 정신없고.
 십자가와 작은 책상,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단출한 공간.

앰버 배고파...
 현우 야!
 신부 먹을 거 좀 가져올게.
 현우 저 신부님! 잠깐 앰버 좀 맡아 주실 수 있으세요?
 신부 이 상황에 어딜 돌아다니려고?
 현우 민병대가 집도 다 뒤집어놨다는데 엄마가 걱정돼서요.
 앰버 나도! 나도 따라갈게.
 찰리 (손 번쩍)
 현우 너희는 신부님이랑 같이 있어!

앰버, 찰리 둘 다 시무룩.

신부 어딴는 지는 알고?
 현우 알만한 애들이 있어요.

43. 난민촌 몽타주 - N

고요한 밤하늘에 드론 여러 대가 비행하며 현우 일행을 찾고 있다.
 골목에 숨어있던 현우, 드론이 멀리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 다시 빠르게 움직인다.

44. 난민촌. 현우의 컨테이너 - N

컨테이너(집) 주변을 살피는 현우. 이미 민병대들이 집을 삼엄하게 감시하는 것을 보고는 다시 발길을 돌려. 쿠마 아지트로 향한다.

45. 쿠마 아지트 - N

쿠마 패거리들, 무기와 식량등을 부지런히 차에 싣고 있다. 현우를 보고, 콩초를 던지며

쿠마 너 도망 안 쳤냐? 민병대장 그 사이코새끼가 너 찾고 난리도 아닌데...
 현우 민병대에 잡혀간 사람들 어디에 갇혀있는지 알아?
 쿠마 4-5명씩 나눠서 가웠다는 것은 빼곤 몰라. 보다시피 내기 바빠.
 현우 지금 떠나려고?
 쿠마 응, 하루라도 빨리 떠나지. 너도 빨리 떠라.(수하와 통화하러 갔다가 와선)
 네 엄마 얘기 들었는데...민병대장이 직접 심문하고 있다더라.
 현우 뭐?!

46. 관리사무소. 지하 기계실 - N

미연은 얼굴을 맞아서 통통 부어있고 입가에 피가 잔뜩. 앞에서 미연을 구타하던 수하가 들어오는 철진을 보고 경계한다. 나가라고 제스처를 취하는 철진.

박철진 우리 질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아들 갈만한 곳 붙어야. 덜 힘들지 안 그래?
 미연 (분노) 아무리 난민이라도 무력을 써서.. 심문하는 건 불법이야.
 박철진 허, 선생 아니랄까 봐. 훈장질은.. 졸라 웃겨. 애들 어딴어? 아니다. 다시 물을 게 솔직하게. 로봇 어디다 숨겼어?
 미연 로봇?
 박철진 그래 로봇.
 미연 몰라
 박철진 아님 벌써 아들이 팔았나? 그랬으면 판 데 알려주고!!!! 그 로봇이 내꺼거든 도둑질하는 양아치 새끼를 자식으로 키웠으면 부모가 책임져야지. 안그래?
 수하 1 (문을 열며) 대장님 -
 박철진 (수하 1에게 버럭 소리지르며) 야 이 자식아, 대화하는 거 안 보여?!!!!
 수하 1 (당황) 저.. 이현우하고 어울리는 패거리들을 찾아냈습니다!!!
 박철진 (급 환한) 오, 그래. 아이들 출동시켜! 전부 다 데려와!!!

47. 성당 안. 신부의 방 - N

깜박 졸다 깬 앰버, 눈을 부비며 주위를 둘러보는데 찰 리가 또 보이지 않고. **헉! 어디갔지?**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리는 풍금소리 ♪ 위층에서 나는 소리다.
 계단을 올라오는 앰버. 예배실 앞쪽에 있는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던 찰리를 발견한다.
 ♪ "Country Road, Take Me Home" 환하게 얼굴이 밝아지며

앰버 되게 잘 친다! 무슨 노래야? 전부터 대개 궁금했는데.
찰리
앰버 아 맞다. 말을 잘 못하지.
찰리 (시무룩)
앰버 괜찮아. 그래도 이름은 말했었잖아. 맞지?

구석에 있는 낡은 라디오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찰리. 잠시 후 가슴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사방에 있던 랜턴들이 밝게 빛을 뿜으며, 고장 난 라디오가 재생되기 시작한다. 주파수가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이내 소리를 만들어 내는 찰리. 다양한 라디오에서 나오는 남녀의 목소리가 기괴하게 조합되어 문장을 만들어 들려주는 찰리.

라디오 E 소영이...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6-7살 남아 목소리)
앰버 방금 너가 한 거야?
라디오 E 소영이는 엄마가 보고 싶으면 이 곡을 쳤다! (40살 남자 목소리)
앰버 소영이가 찰리 친구야.

앰버를 뺀히 내려다보는 찰리. 고개 끄덕

라디오 E 소영..이는... 내 친구. (6-7살 남아 목소리)
앰버 소영이가 해남에 있어?
라디오 E 응. 날 만들어준 아빠도 있어. 찰리는 거기 가야해!(여아 목소리).
앰버 내가 꼭 데려다줄게. (찰리. 환하게 웃으며 앰버한테 안긴다)

48. 난민촌 거리 일각 - N

맨홀 뚜껑을 열고 나오는 현우, 성당으로 일단 돌아가려는데 후레쉬를 비추는 누군가, 들켰나 싶어 긴장하며 고개를 드는데... 빛 때문에 상대가 안 보인다. 그때,

페드로 나와. 나야.
현우 놀랐잖아! 왜 여기있어?

그런데, 페드로 옆에 누군가가 있다. 혹시, 민병대? 흥분해서 페드로 먹살을 잡는 현우

페드로 (먹살잡힌 상태로) 아, 아냐. 그 로봇을 잘 아는 과학자래. 쓰레기장에서 만났어. 우릴 구해준댔어.
현우 (분노) 누가 너한테 그딴 짓하래?!
구도환 로봇 이름이 찰리쥬? 유빅사 로봇이고. 내가 이곳의 통신감청해서 자네 엄마가 어딴지도 알아!!!
현우 어딴데요?
구도환 그 전에 먼저 찰리를 보여줘. (자기몸을 쏘며) 봤지. 난 아무것도 없어 폰도 너 줄게?

49. 성당. 신부의 방 - N

구도환이 테이블에 앉아있다. 현우. 페드로가 맞은 편에 앉아있고,
이들과 떨어져 앰버, 라울이 지켜보고 .찰리는 여전히 방을 돌아다니며 딴짓 중이다.

현우 둘이 아는 사이라고?

구도환 우린 되게 오래된 친구야. 맞지, 찰리?

끄덕이는 찰리

현우 찰리는 우리 거예요!

앰버 찰리는 물건이 아니야!

구도환 (현우를 빤히 보다가) 너. 윤성찬 회장 만났지? 유박사.

그것도 안다고? 당황하는 현우.

구도환 그 사람. 누구보다 찰리를 갖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야. 그리고. 좋은
기업가도 아니고...

현우 난 거래만 하면 돼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구도환 유박이 왜 미친 듯이 찰리를 찾는지 알아?

50. 관리사무소. 통제실 - N

박철진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로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로봇 안에 든 배터리팩
때문이라고?

수하 1 네. 그냥 배터리가 아니고, 그게...

51. 성당 안. 신부의 방 - N

구도환 찰리는 태양이 내뿜는 에너지랑 맛먹는 전력을 만들 수 있거든. 그 에너지를
손대지 않고 전달하는 것도 가능해.

모두 찰리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데.

구도환 나랑 같이 일하는 과학자 집단이 있어. 해남이라는 곳에 우리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엔 숲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방사능 없는 빗물도 그냥 마실
수 있어.

페드로 에잇! 말도 안 돼.

앰버 해남?! 해남은... 찰리의 친구가 있는 곳이야.

모두 찰리를 쳐다보면.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는 찰리!

앰버 맞지, 찰리? 네 고향이 해남이잖아!

찰리 (끄덕끄덕!!)

현우 (슬깃) 거기서 살 수 있게 해준다고요? 재만 데려가면?

구도환의 말에 가우뚱하는 현우. 믿을 수 없는 현우. 이때 다급히 들어오는 신부.

신부 애들아! 빨리 도망가야 돼! 민병대들이 이리로 오고 있대!!

순간 현우, 자기를 보는 구도환, 신부, 페드로를 보며

현우 페드로, 신부님, 아이들 좀 부탁해요.

신부 너는?

현우 엄마 데려와야죠. (페드로에게) 우리 만나는 곳 알지. 도심 주택가, 거기서 보자!!!

나가려는 현우를 붙잡는 구도환

구도환 (우현에게 번호가 쓰여진 종이 주며) 이 번호 기억해. 나랑 헤어지면 연락하라고 우리 편이야.

52. 헬기 + 성당 + 난민촌 (교차) - N

난민촌 내부 도로, 성당 쪽으로 민병대원들 차량 줄지어 온다.
두두두두~~~~ 난민촌 상공에 떠있는 전투 헬기.

/헬기 안

조수석에는 박철진이 타고 앞으로 보며 진두지휘 중이다. 뒷좌석에 수하들 헬기 아래서 내려다 보니 일렬로 제방도로를 달리는 차량 행렬이 보인다.
사실은 쿠마가 난민들을 태워 은밀하게 도망가는 중.

박철진 저것들은 뭐야?

수하1 ?. 도망치는 난민들 아닐까요?

박철진 그래? 저것들도 드론으로 전부 쓸어버려!

수하1 넷! 대장님. (무전기 내리고) 성당 진입했다고 합니다!

/애배소 안

수하1과 민병대원들 성당 안으로 진입한다.
사주 경계하면서 안을 수색하는 민병대원들. 바닥을 확인하던 민병대원 중 하나가 지하실 문을 발견하고는 “여깁니다!” 소리치고! 수하 인이어에 대고 “지하실 찾았습니다” 보고하고 대원들 비밀통로로 내려가 찰리를 쫓는다. 그러나 아무도 없고.

/헬기 안

박철진 ‘빨리 쫓아! 로봇이다, 로봇. 알지? 나머지 다 죽여도 돼!’
(승기를 잡은 듯)...하하, 황금알을 물어다 졌네. 그 영감탱이가.

능력이란 게 이런 거야. 날카로운 촉으로 먹이를 낚아채는 거!
알았어?

수하들 네!!!

53. 맨홀 하수도 속 - N

한편, 오물이 가득한 하수도 속을 침범침범 뛰어가는 현우.
다른 쪽 하수통로로는 구도환 앰버 페드로 라울 찰리가 도망가고 있다.

54. 관리사무소 - N

건물과 거의 근접한 바닥의 맨홀 뚜껑이 열리고, 현우가 안에서 나온다. 경비병들 보이는 데, 트럭에 올라타 건물에서 전부 출동하고 있다.
사무소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는 현우. 다행이지만 의아한.

55. 관리사무소 안 - N

3층에 도착한 현우.

현우 (문을 두들기며) 엄마! 안에 있어?! 엄마!!
미연 현우야!

문을 잡아당겨 보지만 열리지 않고. 이때 한쪽 구석에 비치된 소화기를 가져다가
광광!! 내리쳐 부순다. 대여섯 번의 시도 끝에 문고리 부서져 나가고!
황급히 문을 여는 현우. 미연을 보자마자 와락 안는다.

미연 현우야!
현우 (미연의 상처를 보고는) 엄마. 일단 빨리 여기서 나가자!

56. 인공제방 - N

공중을 날아 인공제방 쪽으로 날아가는 각종 드론들.
쿠마의 차량행렬은 물론 인근 컨테이너에 총을 쏘거나 달라붙는다.
제방 벽에도 다닥다닥 달라붙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팡! 하고 터지는 자폭드론들!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나고!
제방 한쪽 상단부가 터져나가면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다!
제방 근처에 있던 보수작업을 위한 중장비 기계들과 건설 장비들이 한 순간에 바닷물에 휩쓸려 간다.

57. 난민촌 - N

난민촌 전역에 비상 사이렌이 울린다.
거리의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황하고, 땅이 조금씩 흔들린다.
놀라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의 단말마 비명들 ‘‘뚝이 무너진다!!! 도망쳐!!!’’
건물들 사이로 바닷물이 몰려 들어온다. 그제야 도망치기 시작하는 난민들!
빠르게 덮치는 쓰나미.

58. 맨홀 하수도 속 - N

맨홀 하수도를 달리던 구도환, 앰버, 찰리, 페드로, 라울 일행.

페드로 앰마 뭐해?
라울 형? 무슨 소리 안들려?

광!!!! 라울의 뒤로 사방에서 쏟아져 내리는 거대한 물줄기들!

페드로 라울!!

페드로와 라울을 한순간에 덮치고! 바닷물을 그대로 광광!! 하수도 속을 가득 매우더니...!
구도환, 찰리, 앰버 일행도 그대로 덮쳐버린다! 바닷물에 잠겨 허우적거리는 앰버!!
우으으으음!! 앰버의 손을 잡은 찰리. 어디론가로 헤엄치는데!!

59. 관리사무소 - N

복도를 뛰어가는 현우와 미연. 멈춰서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면...
저 멀리 밀려오는 바닷물. 아뿔사! 더 높은 층으로 계속 올라가는 두 사람.
그들 쪽으로 몰려오는 거대한 해일, 비현실적인 상황이다.
순간 미연을 바라보는 현우. 미연, 현우를 와락 안고 가슴에 파묻는다.
두 사람을 덮치는 거대한 해일! 와장창창창 깨지는 창문!
(cut to)
컨테이너 판자 위에 누워있는 현우. 정신을 차린다. “엄마?”
저 멀리 수면 위에 컨테이너 판자 위에 누워있는 미연.
엄마를 부르며 헤엄쳐가는 현우, 미연의 곁으로 올라타지만, 복부에서 흘러나오는 피.
뭔가에 찢렸음을 알 수 있다.

현우 엄마, 정신차려...!
미연 (눈을 힘겹게 뜨며)
현우 내가 구조대원 불러올게. 엄마 조금만 참아...

현우의 손을 잡는 미연.

미연 미안해..
현우 (울먹이며) 뭐가 미안해. 엄마 말하지마 ...엄마, 엄마, 정신차려. 제발!
미연 아들 사랑해, 아들. 앰버를... (눈을 감는다)
현우 엄마!!!!!!!!!! (엄마를 안고 엉엉 우는)

60. 바다 위 - 동틀무렵

(시간경과) 아직도 어두운. 파도에 휩쓸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작은 컨테이너.

/컨테이너 안

컨테이너 안에 있는 찰리와 앰버, 창고박스들과 이리저리 부딪히며 밤을 새운...

/ 헬기 안

박철진 (물바다가 된 난민촌을 내려다보며) 시원하겠네. 흐흐 벌레 같은 새끼들.
물 빠지면 내려가자. 로봇추적 장비는 준비됐지?

수하 네!!!

헬기, 상공 위로 더더욱 높이 올라가고...

/ 바다 위

문을 열고 힘들게 다른 컨테이너로 올라서는 찰리, 앰버의 손을 탁 잡아준다. 두사람 다 컨테이너 위로 올라서서 이리 저리 주변을 돌아보는데...멀리 현우가 보인다. 반가운 마음에 연신 '오빠?' '엄마?' 부르며 손으로 노를 젓어 다가가는데... .
오빠(현우)가 쭈그리고 앉아 아무 반응이 없다.

앰버 오빠? 나야. 왜 그래?
(옆에 잠자듯 누워있는 것이 엄마 아닌가?) 엄마!!!!

통통 부은 얼굴로 울먹이며 앰버를 돌아보는 현우, 절규하는 앰버를 쓰다듬는 찰리! (F.O)

61. 바다가 된 난민촌 전경 - D

어둠 속에 가려진 지난 밤의 일들이 해가 떠오르면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컨테이너가 바닷물을 따라 천천히 담벼락 쪽으로 이동하다가 부딪혀 멈추고.
기어이 난민촌을 다 쓸어버리고서야 잠잠해진 바다.
수면 아래 시신들이 보인다. 옛 마을의 흔적들, 수면 아래서 우주처럼 떠돌고 있다.
그중에는 구도환도...페드로도..... 모두 눈을 감지 못한 채.. 등등.. 떠다닌다.

62. 수몰된 난민촌 몽타주 - D

두두두두두.....! ANN 멘트가 시작되면서 증계용 드론이 부감으로 바다를 훑는다.
수몰된 난민촌의 풍경.

아나운서 E 어젯밤 갑작스러운 인공제방 붕괴로 인천의 난민촌 7구역이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시민들은 바닷물이 난민촌 밖으로 흘러들어 시내까지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벼락에서 난민들이 컨테이너에 올라타 있고, 손으로 붙잡아 한 명씩 끌어올린다.
경찰 헬리콥터가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난민촌을 훑으면, 바퀴벌레처럼 사방으로 흩어지는 난민들.

아나운서 E 게다가 지금 생존한 난민 중 일부가 불법적인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 시민들께서는 외출을 삼가시고, 탈출한 난민들을 목격할 시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

고무보트를 타고 수몰된 난민촌을 가로지르는 민병대원들.
수면에 떠 있는 시체를 막대기로 뒤적거리며 얼굴을 확인한다. 고개를 젖는 민병대원들.

/그 시각 현우와 앰버, 찰리는 도심 방향을 향해 뛰고 있다.
지쳐서 멈춰서는 자꾸 뒤를 돌아보는 앰버. 눈물로 범벅이 얼굴이다.

현우 가야 돼! .일어나 빨리! (움직이지 않자) 여길 벗어나야한다고!

거칠게 앰버를 잡아끌고. 안으로, 더욱 안으로 도망치는 현우, 뒤따르는 찰리와 앰버.

63. 난민촌 입구 - D

난민들의 무수한 시체가 보다 비닐백에 담겨 줄지어 있다.
또 다른 민병대원들이 시체들의 얼굴을 여기저기서 하나씩 확인하며 지나간다.

박철진 로봇은?
수하 1 수색 지역이 넓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 대장님... 자꾸 경찰 쪽에서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대체 뭘 찾는 거냐고.
박철진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라 말 못한다 그래.

64. 도심. 거리 - D

모퉁이 밖으로 뺄땀 얼굴을 내미는 현우. 뒤에 있는 앰버도 고개를 뺄땀.
찰리가 고개를 킁 내밀면, 앰버가 머리를 꾸욱 누르고...
현우, 거리에 경찰이 없는 걸 확인하는데, 바로 앞에 무인점포가 보인다.

65. 무인점포 안 - D

무인점포 안으로 들어오는 현우.
들어오자마자 진열대에 있던 신발을 집어 뒤따라온 앰버에게 건넨다.

현우 이걸로 갈아 신어.

그리고 현우, 진열대에서 더플백 하나와 백팩 하나를 집어 든다.
그 가방 안에 이것저것 집어넣는 두 사람. 1회용 핸드폰, 지도, 통조림, 음료수, 컵라면,
.마지막으로 의약품 코너를 뒤져, 몇 개 남지 않은 COPD용 (알약)을 챙기는 현우.
그 와중에 찰리, 무인점포 구경하느라 눈이 휘둥그레.. 그러다 발견한 귀여운 동물인형

앰버 가지고 싶어?
찰리 (끄덕)

현우 V.O 찰리!

현우의 목소리와 돌아보는 찰리와 앰버. 현우는 현금 인출기 앞에 서 있다.

현우 너 이거 열 수 있어? 로봇이니까 무쇠팔이잖아!

말이 끝나자마자 (^^) 웃음 이모티콘 띄우며 바로 펀치 자세를 취하는 찰리.
서둘러 말리는 앰버.

앰버 도둑질이야! 안돼!

현우 (앰버 가방을 힐끗 보더니) 너가 한 건 도둑질이 아니고?

앰버 (현금인출기를 가리키며) 근데 이걸! 이걸...! 돈이잖아!

현우 (한숨) 지금은 비상상황이야. (찰리를 쳐다본다)

찰리, 바로 주먹을 내지르면, 현금 인출기 뚫고 들어간 주먹!
주먹을 빼내자 덜덜덜덜 하는 기계 소리와 함께 뚫린 구멍 속에서 지폐와 동전들 쏟아지
고, 황급히 가방을 내밀어 쏟아지는 돈을 담은 현우.

현우 (찰리에게) 너 좀 쓸모 있다.

그저 신나는 찰리. 돈을 쓸어담으며 옆에 보이는 무언가를 찰리에게 집어 던진다.

현우 너도 그거 입어.

자기 옷인 줄 알고 몸에 대보는 찰리. 근데 그냥 모포다. 시무룩...
그때 팡! 소리와 함께 점포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자...
화들짝 놀라 쳐다보는 현우와 앰버.

현우 ...숨어!

현우와 찰리, 그리고 앰버가 진열대 뒤에 숨는다. 누구지...? 현우, 자세히 살피는데. 점포
에 있는 물건들을 싹 쓸어담기 시작한다- 작은키, 콩지머리 흑시...?

현우 라울?

화들짝 놀라 돌아보는 라울.

라울 (반갑게) 현우 형?

현우 살아있었구나!!

라울에게 달려드는 앰버. 서로 좋아 어쩔 줄 모르는데,
구석에서 여전히 경계하며 싹 머리를 내미는 찰리.

엠버 (기쁨) 페드로! 오빠는?!
 라울(대신 엠버 엄마의 안부를 묻는) 선생님은?

입술을 꼭 깨무는 엠버. 라울도 눈치채고.

현우 쟁길 거 다 쟁겼으면, 움직이자.
 라울 어디로 가는데? 차도 없잖아.
 현우 쿠마가 남겨 놓은 게 있어.

66. 도심. 폐공장 - N

폐공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현우 일행. 건물 내부가 행....하다. 당황한 현우.

엠버 아무 것도 없는데?
 현우 쿠마 이 새끼... 설마 다 쓸어 간 거야?

주위를 둘러보다 벽 쪽으로 달려가는 현우. 자재들을 덮은 방수포를 하나씩 걷어내며
 “니들도 찾아봐” 라고 소리친다. 자재들을 덮은 방수포를 하나씩 걷어내는 아이들. 그러나 목
 재와 철근뿐. 그러다 찰리의 눈에 들어오는 한 방수포... 뻔! 찰리가 걷어내면.

라울 찾았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현우. 일단 차 안에 탄다.
 찰리도 뒷좌석에 타고 싶은데, 덩치가 커서 들어갈 자리가 없다.
 어떻게든 엠버가 자리를 마련해 주지만, 어정쩡하게 서 있는 찰리.
 현우, 시동을 걸어보지만 계속 켜졌다 꺼지길 반복한다.

현우 씨...! 왜이래 이거?
 엠버 배터리 문제 같아....(생각난 듯) 찰리! 그거 해 봐. 너 잘하는 거.
 현우 재가 뭘 할 줄 안다고...쫄쫄
 엠버 (찰리를 보며) 지난 번에 연회장에서 했던 거! 그거!

꼬덕이는 찰리. 동시에 찰리의 가슴에서 불빛이 번져 나온다.
 폐공장 안의 전등들이 동시에 켜지더니 환하게 빛난다!
 현우, 차 키를 돌리자 힘차게 시동이 걸린다!

현우 오호. 됐어!

찰리의 가슴에서 불빛이 더욱 밝게 빛난다.

라울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엠버 찰리! 됐어! 이제 그만 해!

그러나 찰리, 자신도 제어가 안 된다는 듯, 어쩔 줄 모르고!

앰버 찰리!!

폐공장 안의 전등들이 팍팍! 터져나가더니 자동차 본 네트에서 뭔가 펑!! 하고 터진다.
그리고 하얀 연기가 새어나오면서.... 완전히 망가진 고물차.

현우 (급 분노)야! 씨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현우, 차 밖으로 나와 본 넷을 열려다 손 뜨거워 악! 물러선다.
화가 나서 차를 걷어차는 현우.

현우 (찰리에게) 너 때문에 다 망했잖아!

앰버 그게 왜 찰리 잘못이야?!

현우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 몰라?

앰버 그러니까 그게 왜 찰리 잘못이냐고!

현우 너는 자꾸 재 편 들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락울 저기...형아?

모두 락울 쳐다보면.

락울 한 대... 또 있어.

67. 폐공장 옆 창고 - N

♫ Otis Rush - I Can't Quit you Baby

창고의 셔터를 들어 올리는 락울. 찰리가 도와주고.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소형 캠핑카다!

앰버 ...와.....

캠핑카의 뒷문을 열어보는 현우.
네 사람이 거뜬히 탈 만한, 침대도 있고... 꽤나 그럴싸한 비주얼이다.

68. 도심. 도로 - N

도로를 달리는 캠핑트럭! 현우가 운전대 잡고 있고, 보조석에는 락울이.
뒤에서는 앰버와 찰리가 앉아있다.

현우 (씩 웃으며) 제법 잘 달리는데?

락울 페드로 형이... 나 여행시켜 준다고 했었는데. 이 차로...

현우 대신 나랑 돌면 되잖아.(락울 머리를 쓸어주며) 이제 우리가 네 가족이야.

앰버와 찰리를 보며 마음이 놓이는 라울, 그제야 미소를 띄운다.
빠르게 멀어지는 캠핑 트럭... 블루스 음악은 서서히 줄어들고.....

69. 난민촌 입구 - N

찌이이이이이익-! 보디백의 지퍼를 여는 손.
그 안에 있는 죽은 구도환의 얼굴 드러나고.
쭈그려 앉아 내려다보는 박철진.

수하 1 진입로마다 검문소 설치했습니다. 감시드론도 띄웠구요.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와 곁에 멈춘다.
차 문이 열리고, 지팡이 하나가 나와 바닥에 박힌다. **윤성찬**(77세 유복사 회장)이다.
결벽증이 있는 윤성찬, 지팡이 끝에 묻은 진흙을 못마땅한 듯 바라본다.
손수건을 꺼내 코를 틀어막으며, 박철진의 앞까지 다가온 윤성찬.
시체 냄새에 눈살을 찌푸린다.

박철진 (빈정거리며) 견학 한번 하시라고. 회장님이 싼 똥 치우느라 내가 어떤 똥
밭에서 구르고 있는지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30퍼센트 주기로, 아시죠?
윤성찬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달랬지, 언제 사람들을 떼로 죽여 달랬나?
박철진 제방이 오래돼서 무너진 게 내 탓이라는 거요?
윤성찬 (코웃음) 계약금은 돌려줄 필요 없으니, 여기서 손 떼.
박철진 (희번덕) 네? 뭐요?! 허, (태세 전환) 뭐, 좋을 대로 합시다!

의외로 선선하게 물러나자 의아한 윤성찬. 차에 오르는데 문을 잡고 서는 철진.

박철진 찰리라던데...(뭐?) 계약이 깨졌으니, 그 물건 내가 찾아서 전 세계에 경매
붙여도 판말하지 않는 겁니다...(비릿하게 웃고)
윤성찬 뭐라? 판 놨은 그 물건 가져봤자 어디다 쓰지도 못해!
박철진 (느물)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노려보는 윤성찬을 무시하고 차 문을 닫고 툭툭! 차 가라고 신호를 보낸다.
부우우우웅.. 빠르게 멀어지는 자동차. 그러자 철진에게도 미소가 사라지고.

수하 1 어찌시려고요?
박철진 저 늙은이보다 우리가 먼저 가져와야지. 지금은 먼저 찾는 게 임자야.
수하 1 저, 대장님. 국방장관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국방장관이라는 말에 얼굴이 굳는 철진.

70. 국방장관 집무실 + 박철진의 사무실 안

국방장관 그래서 난민 수용소에 들어갔었다--
 박철진 네. 그 로봇... 엄청 비싼 거랍니다. 전국 군대들 총동원해서 찾아오면, 분명 우리 군에게 큰 이득이...
 국방장관 나 오늘 일 해결하느라 아주 진땀 뺐어. 안 그래도 민병대가 사회악이다, 뭐다... 그러는데...(노여워) 제방을 터트려?!

박철진 ... 그건.. 제방이 워낙 노후해서. 하하.
 국방장관 (싸늘하게) 박철진이... 마이 컷네... 나한테 농담도 하고 말야.
 박철진 ...?
 국방장관 지금이라도 다시 난민촌으로 들어가게 해줄까? 어때! 그때가 그립지? 그 컨테이너 말이야.

전화를 받는 철진, 부르르 손이 떨리고.

국방장관 급식줄에 서서 차례 기다리면서, 내 군화발에 묻은 음식이나 할짝거리던 개만도 못한 난민 새끼가...
 박철진 죄송합니다.
 국방장관 로봇은 기스 하나 내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가져 와!

전화를 끊는 철진.

수하 1 대장님?
 박철진 (분을 삭이며, 나지막이) 모든 민병대에 사진 다 뿌려. 로봇 찾아내라고
 수하 1 (못알아듣고) "모든" 민병대라면...?
 박철진 (버럭) 전국 조직에 뿌리라고 새끼!!!!!!!!!!!!!!!!!!!!!!

71. 도로 - N (비)

인천 외곽의 한적한 도로. 오고 가는 차가 거의 없다. 비가 내리고.
 현우, 라이트를 끈 채 도로 달리고 있다. 뒷좌석에 작은 전등 하나.

엠버 오빠. 뭐가 보여? 너무 어둡잖아.
 현우 이게 나야. 언제 발각될지도 모르는데.
 락울 근데 형? 우리 어디로 가?
 현우 일단 뭐... 어디든 가야지.
 엠버 찰리 집에 먼저 데려다 줘야 해. 내가 약속했어.
 현우 어휴-. 좀 조용히 해! 운전하는데...

이때 찰리가 캠핑트럭 천장을 보는데 비가 새고 있다. 락울과 눈을 마주치고.

락울 형! 비 새!
 현우 뭐?! 틀어막아 봐!

락울, 황급히 뒤에 실려 있던 가방에서 옷가지를 꺼내 천장에 대고,

앰버도 창틀에 가져다 대지만, 여기저기 새어 들어오는 빗물 막기엔 역부족...!

현우 이런 씨...!!

현우, 아무래도 어딘가를 들려야 할 것 같다. 멀리 건물 윤곽이 보인다.

72. 버려진 도서관 밖 - N (비)

현우의 낡은 캠핑차, 도서관 건물 앞에 멈춰 선다. 마른 넝쿨들이 건물 벽에 다닥다닥 붙어있고, 벽은 여기저기 큼지막한 금들이 가 있다. 낡은 간판. "미추홀도서관, 인천"

73. 미추홀도서관. 1층 로비 - N (비)

인천 도서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는 현우 일행.
잔뜩 낀 먼지로 봐선 오랫동안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앰버 책이 많네.. 저 거미줄 봐. 어후

라울, 어디론가 뛰어가 낡은 책을 하나 꺼내온다...

라울 웨! 곰팡이 냄새...

현우 아무거나 만지지 마. 바이러스에 옮을 수 있어.

현우, 어딘가에 자리를 잡아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는데.
호기심 많은 찰리, 현우 옆에 다가오면.

현우 넌, 저리가.

시무룩한 표정의 찰리. 가방에서 꺼내는 건 통조림 몇 개다.

현우 앰버! 라울! 이리 와~!

할 일 없는 찰리, 장서에 꽂힌 책들을 훑어보고 있고.

현우, 앰버, 라울은 옹기종기 모여 통조림을 먹는다

앰버 찰리는 못 먹겠지?

현우 (먹다가) 잠깐! 앞으론 내가 대장이야. 무조건 내 말을 잘 들어야해.
내 말에 토달지 마. 특히 앰버 너. 알겠지?

앰버 (기분 나쁜) ... 찰리는 언제 해남으로 데려다 줄 거야?

현우 또 그 소리. 해남이 얼마나 먼 지, 알기나 해!

앰버 약속했던 말야. 찰리한테.

현우 난 약속 안 했어!

묵묵히 통조림을 먹는 현우, 화가 나 씩씩거리는 앰버, 눈치만 보는 라울,
잠시 후. 찰리, 유익사에서 발간한 책을 가져와 차세대 로봇 챗터를 현우에게 보여주며
자기가 그 로봇이라고 손짓으로 말한다, 다가와서 책을 보는 앰버와 라울.
그런데...그 책을 확 던져버리는 현우, 다들 놀라고. 찡그리는 찰리.

앰버 찰리, 오빠 한국어 책 못 읽어, 괜찮아. 창피해서 그런 거야. (찰리, 앰버도
못 읽냐는 손동작) 나와 라울도 잘 못 읽어. 엄마가 조금 한국어를
가르쳐주긴 했지만. (현우에게) 오빠, 찰리한테 좀 상냥할 순 없어?
말은 못하지만 다 알아들어. 인간하고 똑같애.

현우 내가 뭘? 인간?... (급 분노) 따지고 보면 저 고철덩어리 때문에
엄마가 죽었는데... 그럼 넌 왜 사사건건 재를 끼고 도는데!

앰버 (기막혀) 오빠가 엄마를 구하지 못한 거지, 왜 그게 찰리 때문이야!
거짓말쟁이! (울먹) 사실은 오빠가 찰리를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맨날 사고만 쳐서 엄마를 힘들게 해놓구선....(앗, 지나치다 싶은)

둘이 싸우는 게 당황스런 라울과 찰리.
앰버를 노려보다가 벌떡 일어나 나가는 현우.

74. 도서관 밖 - N (비)

벽에 기대서 떨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는 현우, 복잡한 심정이다.
자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쭈그리고 앉는 현우, 현우를 졸졸 따라온 찰리, 자길 싫어한다고 생각해
옆에 앉지 못하고 간격을 두고 앉는다. 현우의 허벅지에 깊이 패인 상처를 보는 찰리.

/ 찰리POV : 파상풍과 COPD에 대한 내용이 주르륵 올라온다.

75. 도서관, 열람실 - N (비)

책장들이 가득한 열람실 내부. 책장 몇 개는 도미노처럼 쓰러져 있고, 하나같이 먼지 쌓
여 있는 책장과 책들. 찰리는 으으으 POV (찰리는 똑똑해. 아빠와 소영이를 만나면 내가 열
마나 똑똑해 졌는지 보여줄거야) 히죽웃고, 한참동안 과학서적을 뒤지고, 고물 컴퓨터로 인터
넷도 해본다. 자기 능력에 대해 알아보는 중. 특히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
다, 뭔가 해답을 찾은 듯 미소 짓고...자고있는 일행을 보며 찰리POV (현우: 다혈질. 도둑질.
분노조절장애. 친구없음/ 앰버:소영과 닮았음. 배려심많고, 신뢰할수 있음/라울: 아직은 잘 모르겠음)
바닥에 떨어진 한무더기의 크레파스를 발견하는 찰리.

76. 버려진 도서관 - D

이른 아침. 나뭇잎에 맺힌 이슬이 똑똑 바닥으로 떨어진다.

cut to

잠에서 깨어나는 현우. 밤새 추웠는지 책들을 이불 삼아 누웠었다.
부스스,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현우. 앰버와 라울은 아직 자고 있다.

그런데 현우의 시야에 보이는 그림... 누군가 크레파스로 그린 벽화다. 이게 뭐지?
가까이 다가가 보면, 파란색 크레파스로 그려진 바다다.

현우 ?

바다가 그려진 벽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현우. 안쪽으로, 더욱 안쪽으로 들어가자,
벽 한 면이 온통 그림으로 뒤덮인. 찰리, 현우, 라울, 앰버가 캠핑 트럭을 타고 해남에
도착한 그림이다. 그리고 해남에는 페드로와. 엄마, 신부님도 그려져 있다.
온갖 아름다운 해양생물들과 바다, 그리고 야자수가 펼쳐진 이 그림은
삭막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색감. 아니, 어쩌면 낙원과도 같다.
열심히 그림 그리기를 이어 나가는 찰리.
그런 찰리를 바라보는 현우.
뒤에서 앰버와 라울도 서서히 걸어와 찰리의 작품을 본다.

앰버 우와..... 엄마다!

앰버가 가리킨 방향을 보면, 낙원에 그려진 앰버와 현우의 엄마.

라울 이걸 다 찰리 혼자서 그렸다고? 이 글씨는 뭐야? 이것도 네가 썼어?
앰버 (찰리 대신 글자를 읽는다)내 머리는 인공지능이야. 가슴에는 소형 원자
로가 들어 있어서 세상을 밝힐 수 있어. 밤새 여기 책을 다 읽고 많은
데이터를 입력했어. 나는 똑똑해. 자이언트 찰리야. 우와... 진짜야?
라울 대단한 걸. 자이언트 찰리. 후후

찰리, 이모티콘 띄우면. 그런 찰리를 빤히 바라보는 현우.
주머니속에 1회용 핸드폰을 들고 슬쩍 밖으로 나간다.

현우 저, 구도환씨 아시죠?
이재우 혹시 이현우씨 인가요?
현우 어떻게?...
이재우 구도환 동료예요. 함께 일하는. 도환이가 인천 가면서 위기 상황이 생기면
제 번호를 알려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죠?
현우 흠...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남쪽으로 내려갈 까해요.
이재우 찰리는 데리고 있죠?
현우 네. 함께 있어요.
이재우 그럼 제가 갈게요. 지역만 말해요.
현우 아니요. 내려가서 전화 다시 할게요. 뚝!

아이들 곁에 돌아온 현우, 아직 아이들은 작품 감상중이고.

현우 가자, 출발 준비해.

모두 현우를 쳐다본다.

현우 (벽을 턱으로 가리키며) 저곳에 가면, 안전할지도 모르잖아.
 엠버 앗호. (웃으며) 찰리 친구도 찾아주고!
 라울 난 찬성...!!
 현우 대신...! (찰리를 쳐다보며) 친구를 잠깐 만나고, 넌 우리랑 같이 가야 돼.
 찰리 (팔짱을 끼고, 현우를 노려본다. 너의 속셈을 다 알고 있다는 표정)...

77. 도로 - D

도서관을 빠져나온 현우의 차. 지방도로에 접어들어 달리기 시작한다.
 조수석에 앉은 엠버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춘다. 신나는 음악 들려오고.
 부감으로, 현우의 차가 도로를 달린다. 인천 -> 인천 도서관 -> 화성

도로를 달리는 현우의 캠핑카 뒷좌석, 찰리가 차창 밖을 내다본다.
 메마른 나무들만 스쳐 지나가는 황량한 들판.
 조수석에서는 엠버가 지도를 골똘히 바라보고 있다. 길을 잘못 들었는지 같은 자리다.

현우 (한숨) 여긴 아까 지나왔던 길이잖아!
 엠버 이상하네... 그냥 고속도로로 가면 안 돼? 그럼 빠르잖아!
 현우 고속도로는 위험하다고 몇 번을 말해?

삐용~! 삐용~!
 어디선가 들리는 경찰 사이렌 소리에 백미러를 바라보는 현우.
 뒤에 바짝 쫓아오는 경찰차.

라울 형, 경찰이야.
 엠버 어떡해...

현우, 잠깐 사이에 많은 생각을 해보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

현우 빨리, 찰리 숨겨!

기다렸다는 듯이 모포 속으로 숨는 찰리.
 차 속도를 줄이고 갓길에 차를 세운다. 그 뒤에 멈춰 서는 경찰차.
 화성 경찰이 내려 다가온다. 운전석 쪽으로 와서 창문 내리라는 손짓.

화성경찰 신분증 내놔.

현우, 신분증 찾는 시늉한다. 그 사이 화성경찰은 엠버와 라울을 쳐다보고, 모포를 보지만
 알아채진 못하고.

현우 신분증이 분명 여기 있었는데.... 잠시만요. 하하! 제가 분명히 여기 어디에 -

화성경찰 (짱그리며) 난민이야?

‘난민’이라는 말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현우.

현우 저... 그게...

현우의 발, 서서히 악셀로 향하는데. 순간 총을 뽑아드는 화성경찰.

화성경찰 발 떼. 전부 내려. 당장!

하는 수 없이 캠핑카에 내려 꿰어앉은 현우, 앰버 그리고 라울.

화성경찰 더러운 난민 새끼들. 이 동네에는 왜 온 거야?

라울 저희 그냥 조용히 가는 길이었어요!

화성경찰 입 닥쳐, 어린 놈의 새끼들이!

현우 도...돈! 저희 돈 있어요! 많아요!

‘돈’이라는 말에 쑥 쳐다보는 화성경찰.

화성경찰 웃기고 있네.

앰버 진짜예요!

화성경찰 어딴어?

현우 뒷 좌석예요.

화성경찰, 현우에게 총을 겨누며 일어나라고 제스처를 취한다.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우. 앞장서라고 쑥 눈치 주는 화성경찰.

현우, 그대로 다가가 캠핑카의 뒤 트렁크를 열면. 어딘가에 놓여있는 가방.

현우, 꺼림직한 표정으로 가방을 건넨다.

가방을 열면, 그 전에 ATM기에서 훔친 현금이 다량 들어있고.

화성경찰 (씨익) 웃기는 놈들이네. (현우 보며) 이거 어디서 났어?

(가방 챙기며, 총 겨누고) 녀들은 안 되겠다.

현우 약속한 거랑 다르잖아요!

화성경찰 난민 새끼들. 이 나라에 온 것부터가 꼴 보기 싫었는데. (무전기에 대고)

인천 수용소에서 탈출한 난민 발견했다. 애 둘에, 청소년 하나.

현우, 이를 딱 깨물고.

무전기 E (치지지지직) 난민 셋이라고?

화성경찰 (무전기에 대고) 네.

무전기 E 혹시 거기 로봇도 있습니까?

화성경찰 (무전기에 대고) 로봇? 무슨 로봇이요?

인기척에 캠핑 트럭 위쪽을 쳐다보면,
어느새 캠핑 트럭 위에 서서 화성경찰을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 찰리.

화성경찰 으아아아아아아악!

총을 쏘기 전, 화성경찰 위로 점프하는 찰리! 쿵!!
저 멀리 나가떨어지는 권총. 라울이 빠르게 줍고! 경찰을 짓누르고 있는 찰리.
돈가방과 무전기를 챙기는 현우.

무전기 E 응답하라! 거기 로봇이 있냐고!-

무전기를 꺼버리는 현우. 앰버는 경찰을 걱정한다 “죽었어.?”

현우 기절했을 뿐이야. 애들아, 빨리 차에 타!

쓰러져 의식을 잃고 널브러진 경찰을 뒤로하고 부우우우웅 멀어지는 캠핑 트럭.

78. 차 안 - 해질 무렵

지방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한참을 달린다. 어느덧 해질 무렵.
폐허가 된 풍경. 을씨년스럽다. 숲은 보이지 않고 쓰레기와 중금속으로 오염된 땅.
뒷좌석에서 졸고 있는 앰버와 라울. 조수석에 앉아있는 찰리.
라디오에서 뉴스가 계속 흘러나온다.

현우 이제 빠져나온 거 같군. (혼잣말처럼)

현우, 안심하며 라디오를 끄려고 하는데 손을 잡는 찰리

현우 왜? (찰리 보다가) 맞다. 너 말 못 하지?.

순간 지지직...지지직... 라디오 주파수를 바꾸며 다양한 채널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리를 조합해 대화를 시도하는 찰리.

찰리 조금만 더 기다려. 거의 다 됐어. (30대 남자 목소리)

현우 (놀라) 뭐야? 방금 네 목소리야?

찰리 정답!!! (짜짜짜짜짜짜)

현우 별 희한한 능력을 다 가졌네.

찰리 찰리는 똑똑해! (20대 여자 목소리)

현우 로봇이 똑똑해봤자지. (헛웃음) 근데 너는 그동안 어땠었냐?

갑자기 시무룩해지는 찰리. 천천히 말을 한다. 다양한 목소리 조합.

찰리 바다 속. (30대 남)

현우 고물상에서 너 26년에 만들어졌다 했는데...그럼 40년 동안을?

찰리 고개 끄덕하면서 시무룩, 과거를 회상한다.

79. 찰리 회상 2027년 - D

/해남 지동현박사 집

젊은 윤성찬이 민병대를 대동하고 와서, 지동현 박사와 소영을 위협하고 찰리를 샷건을 쏘 기절시켜 데려간다.

/해상 위

헬리콥터가 날고 있다. 밑으로 긴 밧줄 늘어져 있고, 찰리를 포박한 강철 프레임 매달려 있다. 움직임이 없던 찰리, 고개를 번쩍 든다. 경호원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상황 파악하는데 흔들림이 심하다. '왜 저래? '. 찰리, 강철 프레임에 결박되어 있던 오른팔에 힘을 준다. 강철 프레임이 부서지고 갑자기 헬리콥터의 계기판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모든 컨트롤러가 먹통이 된다. 뽀뽀뽀뽀!

헬리콥터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경호원들이 균형을 잃고 그쪽으로 쏠린다.

경호원이 중심을 못 잡고 허둥대다 헬리콥터 밖으로 추락한다.

그러다 방향을 잃고 바다 쪽으로 추락하는 헬기!

광! 수면에 충돌하는 소리 들리고... 바닷속 밑바닥, 헬리콥터 잔해에 몸이 끼어 있는 찰리. 서서히 눈을 감고 움직임을 멈춘다. 영원한 시간 속으로 가라앉는다.

80. 차 안 - D

현우 참, 기구했네.(찰리 무슨 말인지 몰라 ?) 우리랑 처지가 같다고!

이때 덜덜덜덜 거리는 캠핑카. 차가 왜 이러지? 계기판을 보는 현우.

기름이 바닥이다. 멀리 보이는 국도 휴게소.

81. 주유소 마트 안 - D

주유소 안에 있는 마트. TV를 보고 있는 조일광 (50대 남)

조일광은 TV 화면에 시선 고정되어 있다.

소리 E 속보입니다. 최근 화성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달아난 청소년 일행이 난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얼마전 제방 붕괴로 탈주한 이들로 해당 로봇과 용의자를 목격하거나 소재를 알고 계신 분은...

자동차 들어오는 소리에 쑥, 쳐다보는 조일광. 저 멀리, 현우의 캠핑카가 들어온다.

캠핑카에서 내리는 현우를 자세히 살피는 조일광. TV에 떠있는 몽타주 사진과 대조해본다 조일광, 테이블 밑에 있는 샷건을 집는다.

82. 주유소 - D

캠핑카에 주유기를 꽂고 기름을 넣는 현우. 불안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 본다

빠르게 올라가는 주유 미터기. 현우의 다친 허벅지를 뺀히 바라보던 찰리,

/ 찰리 pov 화면내용. CRP 9mg/dL, 위험. 조수석에서 내린다.

현우 들어가 있으라니까! 가만있어! 야 깡통?

아랑곳하지 않고 마트를 향해 뛰어가는 찰리.

앰버, 라울 찰리! 어디 가?!

앰버와 라울이 찰리를 따라 달려가자, “애들아, 가만있어!” 아이들을 부르는 현우.

83. 주유소 마트 안 - D

찰리가약품 코너에서 뭔가를 뒤적뒤적하고 있다. 뒤편에 들어온 앰버와 라울.

라울 뭐 하는 거야?

앰버 오빠 약을 찾고 있는 거야. 맞지? 찰리?

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한 약통. 꺼내더니 앰버를 보며 웃음 이모티콘 띄운다.
이때.... 철컹! (충 장전하는 소리)

조일광 손들어....

놀란 앰버와 라울, 그리고 찰리. 쳐다보면. 산탄총을 겨냥하고 있는 조일광.

조일광 난민 새끼들.. 또 뭘 훔쳐 가려고?

라울 훔치려는 거 아니에요!

앰버 저희 돈 있어요...!

이때 조일광의 뒤로 슬금슬금 다가오는 현우.

조일광 (피식) TV에서 수배 때리던 놈들 맞지? 애 둘에 로봇 하나 그리고... (어라?
한 명이 빈다)

이때 마트 구석에 있던 반사경으로 보이는 현우!

조일광, 깜짝 놀라 현우를 향해 몸을 돌리는 순간.

필사적으로 총구를 잡고 위로 올리는 현우! 탕!!! 소리와 함께 천장이 뚫리고!!

현우 도망쳐...!!!!

조일광 이 새끼들..!

순간 현우를 팍! 뒤로 밀치는 조일광. 넘어지는 현우.

조일광, 현우를 향해 샷건을 장전하더니 쏘려는 그 순간!
조일광을 쿵! 덮치는 찰리. 탕! 하고 총알이 나가면서, 찰리 어깨를 스친다!
순간 찰리가 조일광을 잡더니 어딘가로 집어 던지면! 쿵! 소리와 함께 진열대에 부딪히는
조일광. 진열대에 각종 상품들, 조일광 머리 위로 떨어지고!

84. 주유소 - D

주유소 밖으로 뛰쳐나가 캠핑카에 탑승하는 아이들!
어깨를 다친 찰리. 어깨 쪽에서 스파크가 튀면-! 걱정스러운 표정의 앰버.

앰버 오빠! 찰리가 다쳤어!

시동을 걸고, 부르르르르릉!!
때마침 다리를 절뚝거리며 자동차 쪽으로 걸어오는 조일광!

현우 숙여!!

일행, 전부 머리를 숙이면. 캠핑카 창문을 통과하는 샷건 총알!
유리창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다니고. 악셀을 힘차게 밟는 현우.
빠르게 주유소 밖을 빠져나가는 캠핑카.
조일광, 분노에 이를 바드드득-!! 갈고, 어디론가 뒤통뒤통 뛰어간다.

85. 주유소 창고 - D

어두운 창고 안. 상자를 여는 조일광.
그 안에 들어있는 커다란 사냥용 드론 (DEAR HUNTER)!

86. 도로 위 - D

캠핑카 안. 빠르게 운전대를 잡고 주유소를 벗어나는 중인 현우.

현우 모두 괜찮아?!

앰버가 주위를 살피면, 찰리는 어깨 쪽에 상처를 입고 있고.

앰버 응. 괜찮아!
라울 으으으으...

불길한 신음에 놀라 돌아보는 현우.

현우 라울?

라울의 팔 쪽에서 붉은 피가 흐른다.
라울 파편에 맞은 것 같아!!

현우 이런 씨....!!

이때 백미러로 뭔가를 본 찰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현우가 재빨리 백미러를 확인하면. 캠핑카를 빠르게 추적하는 무언가...! 사냥용 드론이다!
부우우우웅-! 마치 말벌의 날갯짓처럼 엄청난 굉음을 내며 캠핑카로 돌진하는 사냥용 드론.
드론의 충신이 번쩍이더니 총알을 난사한다.

현우 딱 잡아!

핸들을 돌리는 현우. 이리 쏘리고 저리 쏘리며, 카오스 그 자체로 변하는 캠핑카 안!

/주유소 안

고글을 쓰고 웃으면서 드론을 조종하고 있는 조일광.

/도로. 차안

이때 찰리, 뭔가가 떠오른 듯, 갑자기 보조석 쪽 창문을 주먹으로 와장창! 낸다.

현우 (놀라며) 뭐 하는 거야?! 위험해!!

찰리, 보조석 쪽에 몸을 반쯤 빼 사냥용 드론을 쳐다본다.
동시에 가슴팍에서 에너지원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는 찰리.
캠핑카의 변화를 감지한 현우. 계기판을 보면 미친 듯이 올라가는 RPM.
캠핑카 내부의 전구가 밝아지기 시작하고...!! 순간, 쿵!!!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냥용 드론!
하지만 동시에 캠핑카는 중심을 잃기 시작하더니...쓰레기 둔덕에 돌진! 쿵!! (순간 압전)

완전히 뒤집힌 캠핑카 안. 연기가 폴폴 나고. 라울과 앰버, 찰리도 정신을 잃었다.
의식을 잃어가는 현우. 눈을 살며시 뜨면...전구, 희미하게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한다.
어디선가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

미연 E 현우야... 현우야...

차안을 들여다보는 여자들- 태진(30, 여)과 은영(31, 여)

태진 뭐야? 죽은 거야?

그러나 태진의 얼굴은 현우의 눈에는 미연으로 보이고... “엄마..”
두 여자의 목소리는 희미해지고...정신을 잃는 현우. (F.O)

87. 카센터 창고안 - D

현우가 눈을 뜨면 낮선 천장, 낮선 공간. ‘여긴 어디지?’

몸을 일으키는 현우. 다리 쪽을 보면 누군가 이미 파상풍 치료를 해준 듯, 붕대 감겨 있다.
여기저기 치료받은 흔적들이 가득. 방안에는 온갖 록밴드 포스터들 붙어있다.
문밖에서 들려오는 록 음악. ♪

88. 카센터 - D

현우, 음악을 따라 저벅저벅... 따라 들어오면.
저 멀리 거대한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며 자동차를 수리하고 있는 태진(30, 여)
단발머리에 터프한 인상. 태진의 뒷모습을 보며 경계하는 현우! 순간 주변을 살피는데
무기로 쓸 법한 커다란 펜치가 보인다. 집으려는 순간,

태진 (아니꼽다는 듯) 뭐? 그걸로 치게?

이때 카센터 문을 열고 나타난 은영 (31, 여).

은영 일어났네? 다행히 약이 효과가 있었나 보다.

은영은 손에 들고 있는 용액(차 수리용)이 담긴 병을 태진에게 무심하게 건넨다.

태진 기껏 살려줬더니 저러고 있네.

은영 (태진에게) 고칠 수 있겠어?

태진, 용액을 자동차 투입구 안에 팔팔 붓고.. 둘 다 현우를 개의치 않아 하는 분위기.
보야하니 태진이 고치고 있는 건 현우의 캠핑카다.

태진 완전 망가졌어. 내부 엔진부터 브레이크까지, 전부. (현우를 보며)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차가 이 모양이니?

현우 앰버 어딴어?

태진 앰버?

은영 그 금발머리 여자애가 앰버인가 보다.

현우 어딴냐고!

태진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89. 식당, 카센터 - D

카센터 옆에 설치된 컨테이너 간이 식당 공간.
그곳에서 국밥을 정신없이 먹고 있는 앰버와 라울, 그리고 고쳐진 찰리.
문을 열고 현우가 들어오면.

앰버 (입 한가득, 국밥) 오빠!

반가운 마음에 앰버가 달려와 현우를 안으면.

현우 다들 괜찮은 거야?
 엠버 응. 언니들이 라울이랑 오빠 치료해 줬어. 찰리도..!

씩 웃는 이모티콘 보이며 팔을 빙글빙글 돌리는 찰리.

은영 다행히 큰 상처가 아니었어. 하지만 무리하면 안 돼.

은영을 쳐다보는 현우.

태진 (비웃으며) 왜? 갑자기 미안해지냐?

태진을 툭! 치는 은영.

태진 (짜증 나고) 아 몰라. 언니가 알아서 해.

태진이 돌아서 멀어지면...

은영 여긴 안전해. 충분히 쉬었다 가. 차도... 고치고.

90. 카센터 창고안 - D

생각에 잠겨 있는 현우.

라울 그 누나들. 되게 좋은 사람 같아. 그치?
 현우 아무도 믿지 마. 언제 신고할지 모르니까.
 엠버 흥! 오빠 매사에 빠들어졌어. 마음이
 현우 (분노) 뭐? (찰리 보며) 너, 앞으로 아무 때나 힘쓰지 마. 내가 시킬 때만 해!
 엠버 오빠 치료한 약, 찰 리가 아까 그 주유소에서 가져온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찰리한테 고맙다고 해?
 찰리 고맙다고 해!!! (엠버를 따라하는 남자아이 목소리)
 현우 (아랑곳 않고) 찰리. 여기 있는 차들, 작동시킬 수 있지?

찰리, 어리둥절.

라울 형? 또 흠치려고?
 엠버 오빠!!
 현우 작동시킬 수 있어? 없어?

찰리는 엠버 눈치만 보고.

엠버 흠치는 건 안 돼! 그리고 언니 말 들었잖아. 바로 움직이면 위험하다고.
 현우 다들 일어나! 지금 가야..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옥!! 아직 다리의 파상풍이 낫질 않았다.

앰버 거 봐! 언니 말이 맞잖아!
현우 (한숨)

91. 주유소 안 - 해질 무렵

주유소 마트를 정리하고 있는 조일광. 한바탕 난리로 어지럽혀진 마트 안.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데...문 열리는 소리. 박철진과 부하들이 들어온다.

cut to

조일광에게 현우 일행 사진을 건네는 박철진.

박철진 애네들 여기 왔지? 어디로 갔나?

조일광은 말없이 박철진의 군복, 이름표와 부하들의 군복을 살핀다.

조일광 경찰이면 몰라도 민병대 주제에...

수하1이 개머리판으로 때리려 하자, 제지하는 박철진,
조일광 가슴에 붙어있는 훈장을 보며 피식 웃고

박철진 (존대어로 바꾸고) 우리가 원하는 건 난민이 아녜요. 로봇이지. 개네들
 찾으면, 난민은 훈장도 받으신 선생님께 넘길게. 상금도 두둑하게 드리고.
 (조일광의 흔들리는 표정에 만족하는 철진)

92. 카센터 - N

국도변 카센터.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카센터를 살피는 현우. 이리저리 보더니. 이내 자동차
열쇠가 달려 있는 박스를 연다. 순간 현우를 비추는 손전등! 뭐지?! 하고 돌아보면.

태진 (한숨) 뭘 훔쳐 가려고?
현우

태진, 손전등으로 캠핑카를 비추면.

태진 니꺼 저기 있잖아? (현우 보며) 내일까지 고쳐 놓을 테니, 내꺼 훔칠 생각
 말고 니꺼 타고 가.

현우 우리 가고 나면, 신고할 거잖아요.

태진 어.

현우 ...

태진 (피식) 근데 누구 때문에 돈도 못 벌게 생겼네. 니들 원데 현상금이 그렇게 많이
 붙었냐? 사람이라도 죽었어?

현우 우리 잘못된 거 없어요. 깡통 아니 찰리를 쫓는 거예요.
 태진 찰리? 그 로봇 이름이 찰리야? 푸하하하하하!!! 로봇한테 이름도 만들어
 줬어! 원데, 너네?
 현우 우리가 지어준 거 아니예요. 그게 그러니까...
 태진 재밌네... 그 로봇만 넘기면 너네도 안전하잖아? 왜 안 넘기는데?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찰리, 자신 애길하자 현우에게 다가와 옆에 선다.
 정직하게 말하기 힘든 현우. 마치 인간으로 대하는 양하는 모습에 피식 웃는 태진.

cut to

땡강-! 소리와 함께 맥주 뚜껑을 여는 태진. 현우 옆에는 찰리가 앉아있고.
 맥주를 하나 현우에게 건네면. 태진, 맥주를 꿀꺽꿀꺽..
 그러나 현우, 술은 마셔 본 적 없다는 듯 망설인다. 찰리는 '안된다고' 고개 흔들

태진 뭐야? 안 마셔봤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맥주를 꿀꺽꿀꺽 마시다가 푼!! 뽀는 현우.
 그 모습이 웃긴지 깔깔 웃는 태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간 현우.

태진 아, 귀엽네. 소문에 난민들은 애들도 술을 마시고 마약이며 온갖 추잡한
 짓들은 다 한다 들었는데 그도 아닌가 봐.
 현우 (발끈) 누가 그래요?!
 (가라앉히고) 그런 애들도 더러 있긴 하지만 대개는 착해요
 태진 (쳐다보며) 니 표정 보니까, 아닌 건 알겠다.
 현우 바깥 사람들은 죽어도 모를걸요. 우리가 난민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태진 그러게, 누가 남의 나라 넘어 오래?
 현우 난민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나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태진 너희들한테 선택권이 없듯이, 우리들한테도 선택권이 없었어. 잘살고 있는
 집에, 갑자기 너희들이 같이 살자고 들어온 격이라고. 지금처럼.
 현우 그렇다고 그렇게 괴롭혀요!
 때리고! 짓밟고! 수장시켜서 전부 죽여버릴 만큼!
 태진 (두 손을 들더니) 인정!. 할 말 없다.
 근데 애...말귀를 알아듣니? 다 알아듣는 거 같잖아.
 현우 그럼...요. 말...도... 하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고)

성치 않은 몸에 취기가 올라 의자 밖으로 쓰러지려는 순간, 현우를 부축하는 찰리

찰리 현우! 이러면 안 돼요. (조악한 50대 여자 목소리)
 태진 (웃으며) 인간보다 낫네.

다급하게 문 열고 달려온 은영, 상황이 한심해. “야!!!”

93. 카센터 창고방 - N

찰리가 카센터 창고 방안 침대에 현우를 눕히면.
열이 오르는 듯 땀땀 숨소리를 내며 힘겨워하는 현우.

태진 맥주 몇 모금 마셨을 뿐인데... ㅎㅎ...
은영 (노려본다) 애한테 술을 주고....쯧쯧. 너도 술 좀 끊어!

이때-! 쿵! 소리와 함께 엄청난 헤드라이트 불빛이 카센터 안으로 쏟아진다.
모두들 눈이 부셔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

부하 1 V.O 이현우! 로봇 데리고 나와! 너희들 포위됐다! 어서 밖으로 나와!!

94. 카센터 밖 - N

어마어마한 숫자의 민병대들 총 겨누고 있고. 박철진과 조일광이 앞에 서 있다.

박철진 (캠핑카를 보며) 저 차 맞네. (조일광을 쳐다보며) 사냥을 취미로 하셔서
그런지, 눈썰미가 좋으시네.

다시 박철진이 소리치자 카센터 밖으로 손을 들고 나오는 은영.

은영 쓰지 마세요!! 여기 환자가 있어요!
박철진 말귀를 못 알아 먹네. 야, 이현우 나오라고! 다 죽이기 전에.

문 열고 밖으로 나오는 태진. AK-47, 조준하며!

태진 아이씨!! 사람 말 못 들었어?! 애가 다쳤다고!!
박철진 ...애들아, 그냥 끌어내.

민병대들이 다가가자. 태진이 AK 47을 민병대들을 향해 정조준한다.

/카센터 안

코를 골며 누워있는 현우를 얼굴과 몸을 때리고 만지며 깨우는 앰버,
‘오빠! 정신좀 차려!’ 난감한 상황, 찰리 뭔가를 생각하더니...결에선 라울에게 속닥속닥
그리고는 벽을 부수고 나가는 찰리.

앰버 찰리! 찰리! 안돼!!!

/센터 밖

벽을 부수고 손을 들고 나오는 찰리, 당황하는 태진과 은영. ‘찰리?’ ‘야?’
‘총쏘지마!’ 민병대원들에게 소리치며 찰리에게 다가오는 박철진,

박철진 (의기양양) 네가 그 로봇이구나. (수하1에게) 별거아닌 데.. 이거 맞아?
찰리 이거 아니고, 난 자인언트 찰리야. (남자애/10살 목소리)
박철진 오호~! 그래, 그래 이제 나랑 가자. 귀엽네 말도 잘하고.

이때 절뚝거리며 현우가 소리치며 나온다.

현우 야 안돼! (분노) 깡통 어디가?! 무조건 내말 듣기로 했잖아!

박철진과 현우일행 사이에서 두 곳을 번갈아 보는 찰리.
그러다가 그냥 박철진한테 가려한다.

현우 안 돼, 멈춰! 너 거기가면 소영이 못 만나!
박철진 소영이? 겐 또 뭔데? ... 우리랑 가면 다 들어줄게 이리로 와 찰~리!.
현우 찰리 안 된다고! 저 인간들 나쁜 놈들이야. 널 유빅사에 팔아먹을 거야
잘못하면 너 사람도 막 죽어야 돼.
찰리 (피식) 너도 날 팔아먹을 거 였잖아!(10살 남 목소리)
엠버 찰리야, 내가 막을게 나는 믿지?
찰리 엠버는 좋지만 현우는 아냐 (10살 남 목소리/ 한참동안 고민~~)
박철진 못 봐주겠네. (찰리를 잡아당기며) 야, 가자고! 이 깡통...
찰리 나는 자이언트 찰리야.
박철진 (철진쪽으로 오자) 알았어, 찰리. (민병대에게)다 싸버려! 저긴 불태우고!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총알이 난무하고, 현우, 엠버, 태진과 은영은 집안으로 들어가 숨는다. 현우 '나쁜 새끼, 내송쟁이, 치사한...!' '라울은 어디갔어?' 돌아보는데 라울이 갑자기 음악을 튼다 ♪ ♪ The Beatles - A Hard Day's Night

음악이 나오자 찰리, 눈을 찡긋하더니 이때...! 카센터에 달려 있는 전구들과 각종 불빛들이 우우우우우웅~! 소리를 내며 진동한다. 뭐지? 주변을 살피는 민병대들. 당황한 건, 조일광도 박철진도 마찬가지. 부왕..부왕... 꺼졌다 켜졌다..꺼졌다..켜졌다...하는 전구들. 잠시 후... 황!!! 엄청난 소리와 함께 터질 듯한 음량으로 록 음악을 재생하는 거대 스피커!

엄청난 음량의 음악에 깜짝 놀란 민병대원들 어리둥절!
카센터 안을 비추고 있던 군용 헤드라이트가 펑!!! 소리와 함께 터지면!
깜짝 놀란 민병대 중 하나가 총을 난사하면!!

민병대원 으아아아악!!

그러자 패닉에 빠진 다른 대원들 사방에 총질이 시작되고!!
불이 꺼졌다 켜졌다..! 음악 소리는 사방을 가득 메우고!!
대혼란의 카오스와 대조되는 신나는 음악에....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된다!
재빨리 납작 엎드리는 박철진! 조일광도 차 뒤로 몸을 숨기고!!!
사격을 멈추라고 소리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민병대원들,

각자 사방에 총 세례를 쏘고-!!! 저 멀리 주유소 뒤쪽으로 유유히 빠져나가는 트럭.
그 모습을 확인하는 찰리. 에너지를 발사하면서 어디론가 달려간다.

95. 도로 위, 트럭 안 - N

트럭을 운전하는 은영!

태진 짹 잡아!

덜컹! 소리를 내며 전력 질주하는 트럭!

cut to 카센터 앞

박철진, 소리가 작아지자 다들 멍하니 서있다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박철진.

박철진 이런 씨!!!!!!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96. 어느 언덕 - N

어느 언덕배기. 트럭 앞에 서 있는 현우 일행과 은영과 태진,
한참을 여기서 찰리를 기다린 듯. 하지만 만나지 못하고...
현우 일행 근심가득한 표정, 어땠든 이젠 은영, 태진과 헤어져야한다

현우 정말... 이 차 우리가 가져가도 돼요?
은영 응. 기름도 짹 채웠어...근데 찰리는 어디로 갔을까...
엠버 (힘없이) 오겠쥬. 올 거예요. 언니들은요?
은영 (태진과 보더니) 다시 돌아갈 거야.
락울 민병대들이 잡아가면요?
태진 (미소) 무슨 죄로? 다신 안 올거야. 찰 리가 없는데 뭘. 걱정 마.

cut to

차에 탑승한 은영과 태진,

은영 갈게.

손을 흔드는 아이들. 손을 흔들어 주는 현우 일행. 멀어지는 차 뒤통무니를 보던 현우

현우 우리도 가야지
엠버 찰리를 두고 가자고?! 안돼! 오빠 진짜 구제불능이야.
 도둑질만 시키고 구박하고.
현우 그만! 후~ 찰리는 아마 해남으로 갈거야, 머릿속에 네비가 있으니까
 가면서 만날 수도 있잖아!
락울 그래 가자 엠버. .

97. 국방장관실 - N

찰리와 소영, 그리고 지동현이 해남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책상 위에 푹! 올려진다.
앵글이 전환되면, 윤성찬과 국방장관이 서로 마주 보고 있다.

국방장관 그러니까... 이 로봇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윤성찬 바꿀 수도 있고, 지배할 수도 있죠.
국방장관 그냥 꽤 큰 용돈벌이라고...철진이 그랬는데...?
윤성찬 철진 그 녀석이 장관님을 속인 것이지요. 로봇이 가진 무한 에너지를
무기로 바꾼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국방장관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
윤성찬 (씨익, 미소) 미국 땅 전체를 줘도 안 바꿀 만큼.

98. 오프로드+ 차안 -D

바위산의 황량한 오프로드를 달리는 현우일행, 앰버와 락울, 찰리가 없어 침울하다.
한참 달리던 임도. 한복판에 웬 꽃과 새들이 잔뜩 모여있다.의아한. 급브레이크로 멈춘다
차에 내려 다가가는 일행.

앰버 찰리야. (두리번 거리며) 이런 걸 만든 건 찰리밖에 없어.
꽃도 새도 다 찰 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야.
현우 (답답하다) 그만해! 가자 앰버. 락울 어딴어? 가자고?

락울, 바위 뒤에 뭔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 다가가는 중이다.
바위 뒤에 앉아서 꽃잎을 하나씩 새고 있는 찰리.

락울 찰리야. (현우와 앰버에게) 형? 앰버? 찰리야. 찰리 여겼어!

달려오는 현우와 앰버, 찰리를 얼싸안는 앰버. 반갑지만 내색않고 서있는 현우.

현우 넌 어딴었냐? 말 좀 들으라고 했잖아!
앰버/ 락울 (동시에) 오빠! 형!
찰리 친구는 약속을 지켜야해. 친구를 속이면 안돼 .
현우 ...이제 깡통이라고 안부를 게
찰리 (팔짱끼며) 또! (남자아이 목소리)
현우 도둑질도 안 시키고 화도 안낼 게 (찰리 미동않는다)
앰버 해남으로 간다고, 가서 소영이 만나게 해준다고 약속해야지!
현우 그래 남쪽으로 가자. 해남! (손을 내민다)
찰리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는)
현우 (찰리랑 나란히 걸으며, 심드렁한 척하며) 왜 사라졌냐?
찰리 인간은 충격을 받아야 자기가 뭘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게 돼!
현우 (짜증) 뭐?

홀로 잘난 척하며 걸어가는 찰리, 표정은 아주 기분 좋은 장난기로 가득차다.

99. 차 안 - 해질무렵

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도로 오른편엔 황무지가, 왼편에는 길게 철조망이 이어져 있다. 철조망 안으로 100미터쯤 거리를 두고 숲이 보인다. 그 너머로, 오래 방치된 듯 보이는 핵발전소 윗부분이 보인다. 뒷좌석에 앉아있는 앰버와 라울, 철조망에 드문드문 붙어있는 낡은 방사능 마크를 보면서.

라울 여긴 위험한 곳인가 봐.

현우 가까이만 안 가면 걱정할 거 없어.

찰리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을 때 20만 명이 피폭되고 2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사능은 인간에게 세포손상을 일으키고 돌연변이를 유발합니다. (20대 남자 Ann목소리)

현우 찰리. 알았으니까 그만!

라울 형. 나 속이 좀 이상한 거 같아.

찰리 하지만 낮은 양의 방사능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너무 겁낼 건 없어. 지금 여기에도 방사능은 어느 정도 존재하거든요 (여자 20대 목소리)

앰버 (표정이 심각하고)

현우 (걱정을 덜어주려고) 저 안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돼. 우리 돌아갈 거니까 별일 없을 거야.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현우. 차가 덜컥, 안에 타고 있던 모두가 비명을 지른다.

모두들 놀란 가슴을 안정시키며 현우의 시선을 따라 앞을 보는데, 도로 저 멀리 검문을 하는 경찰들이 보인다.

100. 임시 검문소 - 해질무렵

경찰차 한 대가 길을 가로막고 있다. 경찰들 2명이 짐칸에 닭을 잔뜩 실은 트럭 한 대를 검문하는 중이다.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면서 검문하는 걸 지켜보던 고참경찰 하나가 도로 저 멀리서 서 있는 차 한 대(현우의 차)를 발견한다.

고참경찰이 검문 중이던 후배경찰에 손짓해 부르고 함께 현우 차에 다가가면서

고참경찰 야! 수배 내려온 게 어떤 거겠지?

후배경찰 검정색 쉐보레 카습니다! 애들 셋에 로봇 하나 달려있는. 비슷한데요?

다가오는 경찰들 모습 보며 현우, 결심한 듯, 핸들을 꺾 돌리면서 액셀을 밟는다.

고참경찰 야, 야! 저거 튼다! 차에 타, 빨리!

후배경찰,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차 운전석에 올라탄다. 동시에 조수석에는 고참경찰이 달려 들어온다. '뺏아! 어서!'

/현우 차안

현우, 백미러를 통해 저 멀리서 경찰차가 따라오는 걸 발견한다. 경찰차가 비상등을 깜빡이면서 사이렌을 울리기 시작한다. 경찰차가 차츰 거리를 좁혀온다. 오른쪽에 죽 늘어선 철조망 쪽을 몇 번 훑어거리더니, 핸들을 꺾어 들어 철조망 쪽으로 돌진한다. 철조망을 부수고 방사능 지대 안으로 접어드는 현우의 차.

라울 (겁먹은 듯) 들어가면 어떻게? 형!

/경찰차

경찰차가 현우의 차를 쫓아 부서진 철조망을 넘어서자, 따라가지 못하고 “차, 세워!” 멈추는. 곧바로 표정이 굳는 경찰.

101. 방사능지대 오프로드 + 현우의 차안 - 해질무렵

백미러로 경찰차가 멈춘 걸 확인하면서 방사능 지대의 흙길을 달린다. 심하게 흔들리며, 숲속을 달리고 있는 현우의 차. 울창한 숲에 다들 놀래는.

현우 찰리, 얼마나 가면 국도가 나오지?

찰리 5분 정도.

엠버 여기 되게 좋다. 방사능 지대라면서. 오히려 조용하고, 평화롭고.

현우 빨리 나가야 돼. 여기 오래 있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오프로드를 덜컥거리며 달리는 데, 부서진 통나무가 쓰러져 길을 막고 있다.

차 앞 범퍼와 연결된 체인을 나무 한쪽에 걸고 차로 돌아오는 현우. 차를 후진시키고 엠버와 라울, 찰리가 천천히 통나무를 끌어당긴다. “영차! 영차!”, 통나무가 완전히 끌려와 도로 한쪽으로 젖혀진다. 엠버와 라울, 찰리 좋아라 하고,

현우 다들 차에 타! 바로 출발할 거니까!

현우는 통나무에 고정해 두었던 체인을 풀려고 손을 뻗는데, 썩! 어디선가 화살 하나가 날아와 통나무에 꽂힌다. 깜짝 놀라며 화살이 날아온 방향을 보는 현우.

현우 일행과 10미터쯤 거리를 두고, 소녀(수빈: 19세, 탈북난민)와 남자아이(한수 12세, 탈북난민)가 서 있다. 수빈과 한수 둘 다 활을 들고, 현우 일행을 겨누며 다가온다. 수빈과 한수 둘 다 얼굴에 찬 방독면을 턱까지 내리고 있고, 비닐 우비를 걸치고 있다.

수빈 허파에 바람구멍 나기 싫으면 꼼짝 말고 전부 그 자리에 있어라.
한수야!

한수, 차로 달려가 기름이 차 있는 걸 확인하고 수빈에게 오케이 사인을 보낸다.

현우 니들 뭐야? 여기 살아? (대답이 없자) 여기 위험한 데 아냐?

그때 한수가 가방 속의 돈을 발견하고, 지폐 몇 장을 들어 수빈을 향해 흔들어 보인다.

수빈 간나 새끼가 말이 참 많다. 너 저 돈은 어디서 났니?

현우, 대답은 하지 않고 찰리를 향해 눈짓을 보낸다. 수빈을 공격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찰리는 알아듣지 못하고 현우와 수빈을 번갈아 바라보기만 한다. 현우는 답답하고.

수빈 머저리 같은 짓거리 하고 있다. 괜히 곤란한 일 만들지 말고 너들 온 길로 당장 돌아가라. 알았니?

수빈, 현우의 차로 가서 올라탄다.

현우 야! 차를 가져가면 안 되지! 그럼 우린 어떻게 하라고!

수빈 쫓아올 생각은 하지 마라. 야생동물 잡으라고 내가 설치한 덫이 여기부터 천지다.

수빈, 현우의 차를 뺏어 출발한다. 숲 사이로 난 보이지 않는 좁은 길로 가버리고, 멀어지는 차를 허탈하게 바라보다 씩씩거리며 찰리에게 다가가는 현우.

현우 야이 답답아! 내가 신호 줬잖아! 공격했어야지!

찰리 찰리는 아이들을 공격하지 않는다! (40대 여자 목소리)

현우 애들이면 뭐 달라? 정 못 하겠으면 그냥..불잡고라도 있던가!
(답답) 아휴, 관두자, 관둬!

엠버/라울 (고개를 흔들) 또 신경질!

현우, 차가 사라진 방향으로 걷기 시작한다. 찰리와 라울이 뒤를 따라간다. 하지만 이제는 엠버가 꿈쩍 않고 따라오지 않는다.

엠버 그리로 가면 안 되잖아! 돌아가야지?!

현우 차가 있어야 돌아가지! 차 없으면 여기서 나가봤자 어디 가지도 못해!

엠버 그 언니가 그랬잖아! 여기 덫이 있다고?

현우 (답답하다) 그냥 아무 말이나 지껄이는 거야. 빨리 와! (다시 걷기 시작한다)

라울 형 말이 맞을 거야. 우리가 무슨 바본 줄 알고.

(땅을 막대기로 쿵쿵 찌르며) 봐 봐. 여기 안전하다니까.

그 순간, 갑자기 밑에 설치됐던 덫이 작동하면서 그물이 라울의 몸을 포획해 나무 위로 끌어당긴다. “으아아악!” 비명을 지르는 라울!

102. 수빈 차 안 - 해질무렵

뒷좌석에 앉아 뒷 차창으로 동태를 살피던 한수. 멀리 숲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한수 엇, 잡혔다!

수빈 (예상했다는 듯) 꼴을 보니 따~악 머저리들 같더라. 너는 저런 거 닮으면 안 된다이.

103. 숲속 - 해질무렵

그물에 포획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라울의 모습. 그물에 얼굴이 짓눌려 우스꽝스럽다. 그 아래에는 라울이 떨어지면 붙잡으려고 자세를 잡고 있는 현우.

라울 형! 저 놓치면 안 돼요! 나 진짜 큰일 나요!

현우 걱정하지 마!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찰리! 준비됐지?

찰리가 그물과 연결된 로프를 두 손으로 잡아당겨 끊는다.

현우 찰리! 인제 끈 풀어도 돼.

현우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물이 바닥으로 추락한다. 타이밍이 안 맞으면서 현우가 라울을 붙잡는 게 아니라 깔려버린. 둘 다 바닥에 나동그라져서 신음한다.

현우 아흐... 너 괜찮아?

라울 그래도 형이 제 목숨 살렸어요...

현우 괜찮으면 비켜. 숨 못 쉬겠어... (라울을 옆으로 밀어낸다.)

104. 숲속. 공터 - N

어두운 숲 속. 모닥불을 피워 놓고 모여 앉은 일행. 현우, 등을 어루만지며 아픈 표정.

현우 차만 되찾으면 여기서 나가는 거야. 태안까지 얼마 안 남았어. (고통) 아욱~

라울 근데 여기 진짜 안전해요? 방사능은요?

그때, 어디선가 고라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무섭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는 앰버

앰버 (짐짓 겁먹지 않으려고) 동물들이 있으니까, 사람도 살 수 있겠다. 그치?

현우 아까 개들 마스크 내리고 있는 거 봤지? 여긴 안전하단 뜻이야.

라울 아아... (고개 끄덕인다)

현우 (일어선다)

라울 (무서워서) 어디가요, 형? 형? (현우 따라가며)

105. 수풀 속 - N

나란히 서서 오줌을 누는 현우와 라울.

라울 여기가 전주면 광주랑 가까운 거죠?

현우 그럴 걸.

라울 내일모레 도착한 댔으니까... 광주 가면 쿠마 형 만날 수도 있는데.

현우 겔 왜 만나?
 락울 우리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빠죽) 차도 있을텐데..
 현우 그럼 너도 쿠마 따라가지 왜 여깁냐?
 락울 형은 믿을 수 있다고... 페드로 형이 그랬어.
 현우 (바지춤을 추스르고) 그짓말. 너 앰버 좋아해서 옆에 있는 거잖아!..
 락울 (들켜서, 대답은 못하고)
 현우 지켜줄 거면 남자답게, 끝까지 지켜라.

106. 숲속 - D

이른 아침. 화면 풀 샷으로 보면, 다 타버린 장작더미 주위로 누워 잠들어 있는 현우 일행의 모습. 앰버는 누운 채로 기침하고 있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깬 현우, 앰버에게 다가온다.

현우 앰버! 괜찮아?
 앰버 응... 오빠, 약 남았어?
 현우 응.

현우, 자기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낸다. 약을 앰버의 입에 넣어준다. 삼키는 앰버. 그때 숲 속에서 찰리가 신나게 걸어온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답사하고 오는 중.

찰리 (현우와 앰버에게) 저쪽이야! (여아 목소리)

숲속을 빠져나오는 현우 일행. 그들의 눈앞에 마을이 드러난다. 시간이 멈춘 듯 스산하다. 아스팔트 바닥에는 잡풀들이 무성하고, 건물들과 신호등에는 넝쿨이 얹혀 있다. 낡은 차들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고, 떨어진 간판이며 자전거 등이 나뒹굴고 있다. 마을의 뒤편으로는, 아마도 그쪽에 놀이공원이 있는 듯 대 관람차가 보인다.

(* 이 마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모습과 똑같다. 2027년쯤 마을 인근 핵발전소가 쓰나미로 인해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고, 마을 사람들이 떠나면서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된 상태.)

마을 한복판을 걷는 현우 일행 어디서든 온전한 물건을 찾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저 멀리 대형 쇼핑몰이 보인다.

107. 쇼핑몰 - D

쇼핑몰 입구 앞에 서는 현우 일행. 문에 엄청나게 두꺼운 체인이 채워져 있다. 체인에는 날카로운 뿔가로 꿰으려 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현우 그 도둑들이 여기는 못 들어갔나 보네. (돌아보며) 찰리, 도와줄래?

바닥에 후두둑 떨어지는 체인. 씨익 웃는 찰리. 이제 호흡이 척척 맞는 현우와 찰리.

/쇼핑몰 안

처음 보는 쇼핑몰 안의 온갖 상점들과 물건들의 모습에 앰버와 락울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앰버와 락울은 쇼핑몰 안을 구경하고 다닐 생각에 마음이 들뜨고.

♫ 신나는 BGM 현우는 캠핑용품 샵에서 방사능 측정기와 방독면, 손전등, 건전지, 침낭 등을 찾아 가방에 채긴다. 현우와 교차되는 아이들의 모습.

카트 안에 앰버가 타고 있고, 라울이 카트를 밀면서 달리고 있다. 앰버는 진열대의 물건들을 손으로 마구 쓸어 카트에 담는다. / 라울이 타고 앰버가 카를 미는.. / 이젠 둘이 타고 찰리가 미는 / 마트의 바닥에 식료품들로 레이싱 트랙이 만들어져 있다. 카트에 탄 앰버, 라울, 찰리가 트랙을 따라 달린다. 찰리가 탄 카트가 트랙을 벗어나 진열대와 충돌한다. 진열대가 넘어지면서 식료품들이 찰리 위로 쏟아진다. 그래도 마냥 좋은 아이들♫

현우. 아이들을 찾으려고 “앰버! 라울!” 소리치는데,
어디선가 “오빠!”하고 외치는 다급한 앰버의 목소리가 들린다.
달려가서 뭔가를 발견하고 우뚝 멈춰 서는 현우. 방독면을 쓴 두 사람(수빈과 한수)이 활을 들고 앰버와 라울, 찰리를 겨누고 있다.

수빈 니들 아직 안 가고 뭐 하니?
현우 쏘지 마. 쏘지 말고 차 내놔! 네가 훔친 것만 돌려받으면 돼. 그럼 그냥 갈게.
수빈 (활을 더 바짝 치켜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당장 떠나라.!

그때 현우가 찰리에게 눈짓을 보낸다. 찰리, 잠깐 망설이다가 한수에게 다가간다.

수빈 (석궁을 들면서) 너 뭐 하니! 가까이 오지 마라!
찰리 잠깐만 붙잡아도 돼? (할머니 목소리)
한수 로봇이 말을 해? 가... 가까이 오지 마! 나 쏠 거야!

위험을 느낀 한수가 반사적으로 활을 발사하고, 찰리의 몸에 맞고 튕긴 화살이 현우의 허벅지에 맞는다. 한수는 활을 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더 놀란 듯 보인다. 심각한 상황이지만, 한편으론 우스꽝스런 촌극 같은 광경.

한수 (놀라서) 나 쏠라고 쏜 거 아닌데. 미안해, 형.
수빈 (현우에게) 야! 너 괜찮니?
현우 (다리에 꽂힌 화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면서) 이게 괜찮아 보여?!
수빈 (현우의 다리를 보다... 당황한다) (더듬으며) 괜찮다. 응, 그래. 별거 아니네.
현우 (다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챈다) 뭐, 뭔데? 왜?
수빈 안 봐도 된다.
현우 왜? 뭐냐고?!

현우, 옆에 있던 거울을 발견한다. 화살이 자기 허벅지 위를 관통해 허벅지 아래쪽을 뚫고 나와 있는 걸 발견한다. 현우, 그걸 보고 놀라서 크게 비명을 지른다. “아아악~~~!”

108. 수빈의 집안 - D

이불을 걷고 몸을 일으킨다. 화살이 꽂혔던 다리에겐 깨끗한 붕대가 감겨 있다. 자신의 옷이 갈아입혀져 있는 것도 발견한다. 절뚝이며 일어나는 현우.

/거실

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현우. 깔끔하게 잘 정돈된 집안. 테이블 위에 쌓인 방사능 관련 책들을 뒤적여 보는 현우. 주인인 듯한 할머니 사진 액자도 보이고.
그때 보글보글 뭔가가 끓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

/부엌 + 거실

거실 옆, 창고 안에 재래식 부엌이 갖춰져 있다. 땀감 위 냄비에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다. 수빈이 냄비를 들고 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먹으라고 고갯짓.
탁자에 앉아있는 현우는 밥과 각종 채소 반찬들을 허겁지겁 먹는데, 맛있다.

현우 애들은?
수빈 옥수수 밭에.
현우 (이런 곳에 옥수수 밭이 있다는 말에 의아해하며) 옥수수밭?
수빈 차로 가면 금방이야.
현우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자. (된장국을 숟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런 거 준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그거 우리 차야.
수빈 주둥이가 팔팔한 거 보니 멀쩡하구나. 그동안 통조림만 줄 창 먹었다면서?.
 기회 될 때 싱싱한 음식 많이 먹어줘라. 이런 맛난 음식 또 언제 먹겠니.
현우 (다시 먹다가) 왜 이런 데서 숨어 사는 거야? 이 위험한 데서?
수빈 밖이라고 뭐 다르니. 숨어 사는 거나 도망치며 사는 거나, 너나 나나 뭐가 다르니.
현우 여긴 방사능 구역이잖아.
수빈 방사능이 그렇게 무섭니? 난 닥들 같은 사람이 더 무섭는데.
현우 걱정 마. 나도 여기 오래 있을 생각 없어.
 차만 주면 애들하고 바로 떠날 거야.
수빈 그 약속 꼭 지켜라. 남자가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거 아니다.
현우 하, 참. 누가 들으면 너희가 피해잔 줄 알겠네. 도둑질에 사람까지 죽일 뻔 해놓구선.

그 말에 인상을 팍 쓰는 수빈, 다 먹지 못한 현우의 밥그릇을 뺏, 가져가 버린다.

수빈 다 먹었음 일어나라.
현우 (어이없는 표정에, 숟가락을 든 채로) 나 다 안 먹었는데.

109. 도로 - D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 수빈이 운전하고 있고,
조수석에는 현우가 타고 있다. 수빈이 무전기를 들어,

수빈 한수. 한수 나와라, 오바.
한수 E (사이) (지지직거리는 노이즈 뒤에) (숨차하며, 작은 목소리로) 여기는 한수.
 지금 바쁘다, 오바.
수빈 누나 가니까 거기 그대로 있어. 다른 애들도 다 있지?

한수 E 영. 누나. 나 지금 가야 돼! 으아아악! 살려줘! (뛰는 소리 이어지고,
(무전 끊긴다)

수빈, 무전기를 내려놓는다. 무슨 일인가 하고 바라보는 현우에게,

수빈 별일 아니다. 숨바꼭질하는 거야.
 근데 녀들은 왜 쫓겨 다니는데? 무슨 짓을 했길래.
현우 찰리 때문에.
수빈 그 낱아빠진 쇠불이 말이니? 뭐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던데.
현우 근데 개는 좀... 달라.
수빈 (궁금) 뭐가 다른데?
현우 (뭐라 표현할지 생각하다가) 그 낱은 쇠불이가 전쟁을 끝낼 수 있대.
수빈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표정으로 현우를 쳐다본다)
현우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대.
수빈 (헛웃음) 아, 진짜. 농담도 작작 해라. 그러다 이 마을도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이 청소 다 된다고 하겠다.
현우 (과장이 심했나 싶기도 하고, 확신이 서지 않아 답 못하고 멀뚱) ...
수빈 피폭된 사람도 살릴 수 있고?
현우 (잘 모르겠는 표정) 그건, 글썄.
수빈 넌 그 말을 믿니? 오뉴월 개꿈 같은 소리 말라.
 (뭔가를 생각하다가) 그래도 말은 참 듣기 좋다. 그런 세상이 올까, 싶지만.

110. 옥수수밭 안 - 해질무렵

-옥수수밭 안. 아이들과 찰리가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옥수수밭 안을 달리면서 술래잡기를 하는 모습들이 고속촬영으로 이어지고...

111. 옥수수밭 밖 - 해질무렵

황혼이 지는 옥수수밭은 장관이다. 쭉쭉 자란 옥수수를 보며 놀라는 현우

수빈 야! 애들아. 그만 가자!
 (현우에게) 저러다 안에 갇히는 수가 있다. 애들이라 아직 무서운 걸 모른다.
현우 근데 이거 다 너네들이 일군 거야?
수빈 2년 정도 됐다. 옥수수는 튼튼해서 금방 자라더라.
현우 이 정도면 평생 굶을 걱정은 없겠네.
수빈 (피식 웃으며 옥수수 하나를 뽑더니 움켜쥔다) (옥수수가 바스라지면서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린다) 니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 이거 다 오염된
 거다. 못 먹어.
현우 (황당해서) 그럼 이 많은 걸 뭐 하러 키우는 건데?

수빈, 대답 없이 이제는 세워둔 차의 클랙션을 계속 울린다.
그 소리를 듣고 옥수수 밭에서 하나씩 나오는 아이들.

(인서트) 노을에 황금빛으로 물든 드넓은 옥수수밭을 부감으로 비춘다.

112. 수빈의 집 앞 - 해질무렵

집 앞에 멈춰 서는 차. 차에서 모두 내려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이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왁자지껄하다. 아이들 달려가서 물을 틀어 씻고, 뒤미처 내리는 현우와 수빈.

수빈 한수가 저렇게 신나 보이는 거, 참 오랜만이다.
현우 (아이들 보며, 웃음) 후후. 나도.
수빈 지금 떠날 거니?
현우 지금? 그럼. 가야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주춤거리는 모양새다)
수빈 (차를 턱짓으로 가리키면서) 이거 갖고 가. 차는 우리도 있어. 기름이 필요해서 가져갔던 거다.

현우, 수빈이가 좋은 애라는 생각에 슬쩍 미소짓는데, 찰리가 안 보인다! ‘찰리 어딴?’
아이들에게 문자, 앰버가 손으로 숲속을 가리킨다. 찰리에게 달려가는 현우.

113. 수빈의 집 앞. 거리 - 해질무렵

갈라파고스핀치 한 마리가 땅바닥에 죽어 있다. 찰리의 손이 조심스럽게 새를 들어 올린다. 그리고 앞을 둘러보면, 거리에 드문드문 떨어져 죽어 있는 새들이 보인다. 인기척에 뒤돌아보는 찰리, .

현우 뭐해?
찰리 현우야, 여긴 위험한 곳이란단. (70대 할머니 목소리)
현우 목소리 바뀌!
찰리 이거! (소프라노 10대 여자 목소리)
현우 다른 거!
찰리 (가웃하더니/할아버지 목소리) 어휴, 안 되겠다. 새들 죽은 거 봐.
수빈이와 한수는 방사능 피폭이 00 db 고위험 상태야.
데리고 나가야 해. 우리도 여기 있으면 안 돼. (웃으며) 나만 괜찮단다.
현우 으이구!! (알미운 찰리/심각해지는)

114. 경찰서 안.

거센 바람을 뚫고 민병대원들의 트럭 3대가 경찰서 앞에 와서 선다. 민병대원들이 차에서 내려 경찰서 안으로 들어서는데, 그들 사이에 박철진의 모습도 보인다.

cut to.

소파 중앙에 느긋하게 앉아있는 박철진. 그 뒤로 민병대원들이 서 있고.
고참과 후배 경찰들이 눈치보고 기분나쁜 표정으로 둘러 서있다.

박철진 발견했는데 순순히 보내줬다! 상부에 보고해야겠네. 그렇죠?
고참경찰 (기분나쁜) 드론을 띄워서 살살이 수색을 해보지 뭐. 지금이라도.

박철진 방사능 때문에 드론은 금방 고장날 건데. 고장 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요?

고참경찰 (억지웃음) 그거는 좀... 그러면 피폭될 우려도 있고.

박철진 그래요? (수하1에게) 연결해! 전라도가 김 청장이지 아마?

고참경찰 (놀라 태세전환) 에이, 왜 이러시나. 농담이죠?

박철진 농담? 난 그런 거 안 해. (표정 바뀌서 수하1에게) 여기 경찰들께서 맨 앞에서 전방을 수색하신다고 하네. 우리는 4인 1조로 헬기 띄우고, 나머지 트럭에 타고 빠져나올 구멍마다 전부 지켜. 알았지? (네!!!)

어찌지도 못하고 민병대 지시를 받게 돼 기분 더러운 경찰, 똥씹은 표정들이다.

115. 마을 도로 + 놀이공원 - N

마을 도로를 달리는 현우의 차와 그 뒤를 따라가는 수빈의 차.
그들의 차가 향하는 방향에 놀이공원이 보인다.
입구 앞에 나란히 서서 어둠에 잠긴 음산한 놀이공원을 올려다본다.

수빈 한밤중에 이게 뭐 하는 짓이니? 귀신의 집이 따로 없다.

현우 한수 생일이라며?

현우 (찰리에게) 이번엔 우리 좀 잘해 보자. 응?

고개를 끄덕이는 찰리. 찰리의 가슴이 밝게 빛나기 시작한다.
놀이공원 곳곳의 전구들이 켜지고, 여기저기서 전구가 터지는 소리!

현우 조금만 천천히! 찰리! 급하게 굴지 말고...

현우의 말에 따라 찰리의 가슴에 빛나던 불빛이 조금 약해진다.

현우 좋아. 이제 조금씩 끌어올려 봐. 조금씩... 좋아, 그렇게...

찰리의 가슴팍에 있는 불빛이 조금 강해진다. 그들의 앞에 있던 회전목마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찰리의 가슴이 더 밝게 빛나고, 이제 다른 놀이기구들도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중한 대관람차가 천천히 돌아간다.
놀이동산이 아름답게 빛나고, 놀이기구들이 전부 움직이고 있다.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는 수빈과 한수.

현우 찰리. 완벽했어. (짝짝짝)

현우, 손을 들어 올려 찰리와 하이파이브를 한다.
놀이기구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만세를 부르며 좋아하는 아이들

116. 방사능 격리구역. 마을 도로 - N

불 켜진 집이 있는지 수색하는 경찰들
전부 방독면을 쓰고 있다. 고참경찰은 옆에서 붉게 달아오른 목을 굽고 있다.

고참경찰 하, 미친 민병대 새끼들. 찾고 싶으면 지들이 들어와 찾을 것이지.
우린 뭐 뉘저도 된다는 거야?

경찰 어?! 잠깐! 저거 뭐죠?

멀리서 놀이공원의 대관람차가 돌아가는 게 보인다. 불빛이 보이고.

117. 곰 인형 맞추기 게임장 - N

진열대에 놓여 있는 낡은 곰 인형에 공을 던지는 아이들. 현우도 자신 있게 나서지만, 실패, 수빈은 비웃고. 아이들이 모두 못 맞추는데, 찰리가 한 번에 맞춰 넘어뜨린다. 아이들이 환호하고... 찰리가 또 자로 잰 듯 정확히 공을 던지고, 던지는 족족 인형이 쓰러진다. 현우를 놀리듯 기고만장한 표정의 찰리.

118. 롤러코스터 - N

롤러코스터를 탄 아이들. 한수는 곰 인형을 옆에 끼고 있다. 다들 신나게 두 손을 들어 올리며 환호하는데, 현우 혼자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다. 수빈, 웃으며 현우를 보다가 안전 바를 잡은 현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어 잡아준다.

헛구역질을 하는 현우와 그의 등을 토닥여 주는 수빈. 옆에서 한수가 다가와,

한수 누나.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수빈 응. 다녀와. 한수야, 재밌어?

한수 (웃음) 응. 재밌어. (떠나고)

119. 화장실 - N

화장실 변기에 토하는 한수. 묽은 핏물이 쏟아져 나온다. 고통스럽다.
세면대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는 한수. 억지로 웃어 보인다.

120. 대관람차 - N

현우와 수빈이 대관람차를 타고 있다. 아래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본다.

현우 ...우리랑 같이 가자. 밖으로 나가자구!

수빈 (힐끗 보더니) 우리가 밖에 안 나가봤겠니? 우린 탈북민이야. 가장 밑바닥!
한수가 여러번 나갔는데 그때마다 다시 오더라. 차라리 여기가 낫겠대.
여기서 살면 더는 난민이라고 업신여김도 안당하고, 도망 안 다녀도 되니까.

현우 (안타깝게 보다가) ...난 믿어도 돼. 찰리는 날 무시하지만...

수빈 ...넌 진짜 배신 안 할 자신 있니?

현우 응 (끄덕)

수빈 나는 누가 나 믿어주면 절대 그 사람 배신 안 한다.

현우 그 좋은 말을 왜 그렇게 무섭게 말하냐? 그것도 참 재주다.
수빈 (웃음)

121. 대관람차 밖 + 회전목마 - N

대관람차에서 막 내린 수빈과 현우. 아이들이 놀고 있는 회전목마로 간다.
엠버와 라울, 찰리와 한수가 웃으며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한수가
왈칵 묶은 띠물을 토해낸다. 그리고는 바닥에 쓰러진다. 쿵!

수빈 한수야!

깜짝 놀라 한수에게 달려오는 수빈과 현우. 수빈, 한수를 안아 드는데, 한수는 눈이 감긴
채로 다시 왈칵, 물을 쏟아낸다.

현우 해독제 없어?
수빈 차에! 빨리!

현우, 차를 향해 달려간다.

122. 놀이공원 입구 - N

입구를 향해 달리고 있던 현우. 갑자기 뭔가 이상한 걸 느낀다. 주위에 비가 내리고 있다.
멈춰 서서 위를 보는데, 공중에서 드론들이 날고 있다. 커다란 드론들이 액체(휘발유)를
뿌리고 있다. 손에 묻은 액체의 냄새를 맡아 보는 현우. 휘발유다. 심각한 표정

123. 회전목마 - N

수빈과 아이들도 하늘에 떠다니는 드론과 쏟아지는 휘발유를 두려움 속에서 바라본다.
떠다니는 드론 중 하나가 스파크를 튀기더니 아래로 추락하고 (방사능 때문에 반도체가
타서 고장난 드론) 젖은 바닥에 불길이 일어난다.

/놀이공원 입구 현우 쪽

수빈의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타는 현우. 대시보드를 뒤져 주사 가방을 찾아낸 후 차를
출발시키는데... 드론 한 대가 바로 차에 떨어지면서 불길이 치솟는다. 불길을 피해
달리는 현우 차.

/회전목마 수빈 쪽

한편, 이미 숨이 끊어진 한수를 안고 있는 울부짖는 수빈.
회전목마 앞으로 차가 멈춰 서고, 현우가 주사 가방을 들고 달려오지만 이미 늦었다
방금 전까지도 마냥 즐거웠는데... 눈앞에 벌어진 기막힌 참극에 공황상태에 빠진 아이들,
이때 드론이 엠버쪽으로 쏜! 찰리 급한대로 엠버를 감싼다. 그 드론은 회전목마에 떨어져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인다. 쿵!쿵!쿵! 호흡이 가빠지는 엠버,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정신
이 나간 라울,

현우 여기서 나가야 돼! 애들아, 차에 타! 찰리?

계속 재촉하자, 찰리, 앰버를 끌다시피 데리고 차에 올라탄다.
수빈을 안아 일으키려는 현우,

현우 수빈아. 가야 돼.. (충혈된 눈으로 수빈을 바라본다).

수빈 안돼 (뿌리치고 한수 얼굴을 부비며)....

현우 (다급) 가자. 빨리 가자고! 제발.

수빈 너는 가....난 한수곁에 있을 거야.

현우, 머뭇거린다. 그때 쿵! 하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추락한 드론이 차 옆에 떨어져 금방이라도 차에 불이 옮겨 붙을 것 같다. 겁먹은 채 이쪽을 보고 있는 라울과 찰리.

현우 (뒷걸음 치면서) 수빈아... 집으로 와. 응? 와야 해!

수빈, 한수를 꼭 안은 채 대답이 없다. 결국 차에 올라타 출발하는 현우,
여기저기 타고르는 불길을 피해 달려가는데,
마을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그 놈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박철진 E 어이, 신나게 놀았어? 이제 나랑도 좀 놀아 줘야지? 찰리?... 찰리!

불길속에서 한수를 안고 있는 수빈의 귀에도 박철진의 목소리가 들린다.

박철진 E 닌들이 있는 곳마다 썩은 냄새가 코를 찔러서 말야, 내가 도저히 못 참겠거든? (주위의 냄새를 킁킁대며 맡거니) 아우, 독하다 독해. 더러운 난민새끼들

/ 방사능 경계구역

유원지 쪽을 바라보며, 소형 이어셋을 끼고 얘기하고 있는 박철진.

박철진 내가 여기 전부 다, 싸악 청소해줄게.

/ 몽타주

불타고 있는 수빈의 집. 불타고 있는 옥수수밭. 불타고 있는 마을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현우의 차.

/ 회전목마. 수빈 쪽

우지끈, 소리와 함께 회전목마 천장이 무너져 내린다. 떨어져 내린 목재에 맞고 쓰러지는 수빈. 힘겹게 일어나 보니, 불타는 목재 잔해들에 뒤덮여 한수가 보이지 않는다. 불길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는 수빈. 눈물이 차오른다.

/ 방사능 경계구역

박철진, 수하1에게 이어셋을 던져주면서,

박철진 한 놈도 못 빠져나오게 경계지역마다 확실히 감시해!.

124. 놀이공원 입구 - N

트럭이 서 있다. 수빈이 걸어가서 트럭에 탄다. 절망에 빠져있던 수빈의 표정이 차차 냉정을 찾는다. 충격과 분노로 싸늘해진 수빈, 시동을 건다.

125. 철조망 - N

현우의 차가 달리다가 멈춰 선다. 저 멀리 철조망 너머, 경찰차들이 서 있는 게 보인다. 결국 차를 돌려 다른 쪽으로 달린다.
그때 갑자기, 무전기에서 수빈의 목소리가 들린다. 동요 하나 없이 차분하다.

수빈 E 어디야?
현우 수빈아! 너 거기서 나왔어?!
수빈 E 응. 어디냐고.
현우 경찰들이 사방에 깔렸어. 빠져나갈 수 있는 델 찾아보고 있어.
수빈 E 우리가 처음 만났던 장소, 기억해?
현우 응.
수빈 E 거기서 보자.

126. 도로 - N

수빈, 무전기를 내려놓는다. 맹렬하게 달리는 수빈의 차.

127. 철조망 부근 현우의 차 - N

달리던 현우의 차가 멈춘다. 저 멀리 철조망 너머에 민병대원들의 트럭이 보인다. 박철진의 모습도 보인다. 그때 뒤쪽에서, 라울이 불안한 목소리로,

라울 ...형.
현우 응.
라울 앰버가요... 좀 이상해요...

앰버가 누운 채로 호흡이 가쁘다.
현우,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내 라울에게 던져주고 먹이라는 손짓

현우 좀만 참아. 라울. 잘 보고 있어.
라울 응

그때, 무전기에서 수빈의 목소리가 들린다.

수빈 E 도착했어?
현우 (무전기에 대고) 응. 근데 이쪽은 안 되겠어. 민병대가 짹 깔렸어!
수빈 E 알았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현우 차 옆으로 수빈의 차가 튀어나오더니 전력으로 질주한다.

128. 방사능 지대. 경계지역 - N

박철진, 철조망 너머 갑자기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자기를 향해 돌진한다.

박철진 뭐야, 저거?

맹렬하게 달려온 수빈의 차가 철조망을 부수고 달려 온다. 민병대원들의 트럭 하나를 밀치고 바리케이드 뒤로 빠져나가는 수빈의 차. “야! 저거다! 쫓아!!!”

박철진, 겁싸게 옆에 있던 트럭의 조수석에 올라탄다. 민병대원들의 트럭과 경찰차들이 모두 수빈의 차를 뒤쫓는다.

129. 현우의 차 - N

이 광경을 지켜보던 현우, 수빈이 출구를 만들어준 것이다. 이럴 수가!
부서진 철조망을 빠져나오는 현우의 차. 무전기를 들고,

현우 (눈물 흘리며) 야! 너 뭐하는 거야...!

수빈 E 잘 가라. 내 동생 소원 들어줬으니까, 나도 니 소원 들어주는 거다.
 꼭 집에 가라.

130. 수빈의 차 - N

수빈, 뒤에 민병대원들의 트럭이 달려오는 걸 보면서 차를 운전하고 있다.
차가 저수지가 있는 절벽으로 달리기 시작한다. 옆에 ‘방사능 구역. 저수지 접근 금지.’ 표지판을 지나쳐 전속력으로 달린다.

현우 E 수빈아! 수빈아!

수빈 가서 그렇게 좀 해줘.

/현우차 안

눈물 흘리며 수빈의 목소리를 듣는다. 찰리도 들으며 슬픈 표정을 짓는다

수빈E 사람들이 공짜로 전기도 좀 쓰게 해주고, 전쟁 안 하 게도 좀 해주고,
 몹쓸 병도 치료해 주고... 그럴 수 있다 했지...? 내 소원은 그거면 된다.

/다시 수빈의 차안

수빈이 무전기를 옆자리에 던진다. 그때 수빈의 차 옆으로 박철진의 차가 튀어나와 옆으로 붙는다. 박철진이 수빈의 얼굴을 확인한다. 현우 일행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당황하는데. 그 틈을 노려 수빈, 박철진의 차를 옆으로 밀어붙인다. 두 대의 차가 엉키면서 절벽 아래로 추락한다. 방사능이 잔뜩 오염된 물속으로 스윽 가라앉는 두 대의 차.
“수빈아! 수빈아!” 현우의 목소리가 추락하는 수빈의 모습에 오버랩되고.

131. 방사능지대 어느 일각 - N

차에서 내려 수빈의 차가 가라앉은 저수지를 망연자실한 눈으로 보는 현우
 평!! 평!!!(차량 폭발음) 불꽃이 일고. 고통스런 현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눈물 흘린다.
 현우의 어깨를 감싸는 찰리역시 슬픈 표정. 가슴이 아리다.
 찰리의 심장 소리 쿵! 쿵! 쿵! (F.O)

132. 유빅 본사 - N

UBIK'이라는 로고가 적힌 헬리콥터가 어두운 밤하늘을 날아가고 있다.
 엘리베이터에 문이 열리고, 내리는 윤성찬과 비서. 복도를 걸어가며,

비서 피폭량이 심해서 이송되기 전에 전원 사망했구요, 박철진만 겨우 숨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성찬 하, 그놈 질기네.
 비서 신체 절반 가까이가 사실은 기계라서. 그래도 오래 버티진 못할 겁니다

133. 방사능 치료실+참관실 - N

매직미러로 분리된 치료실과 참관실. 참관실 안으로 윤성찬과 비서 들어서고, 매직미러
 너머로 무인 치료캡슐에 누워있는 박철진의 모습이 보인다.

윤성찬 박철진 대장, 들려? 들리면 눈 한 번 꿈뻑, 해봐.
 박철진 (꿈뻑)
 윤성찬 애긴 들었지? 의사들이 피부재생까지는 가능해도 내장기관이 심하게 망가져
 완치는 불가능하대. 근데 우리 회사엔 방법이 있어.
 박철진 (숨만 거칠게 몰아쉬고)
 윤성찬 자네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드러누워 개죽음 당하는 건
 좀 억울하지. ..그치? 아직 나이도 창창한데.
 박철진 ...
 윤성찬 거래를 하자는 거야. 들려? 민병대 통신망 넘겨. 완치시켜 줄게. 언제?
 박철진 ...
 윤성찬 눈만 한 번 깜빡이면 돼. 어렵지 않아요.
 박철진 (망설이다가, 꿈뻑)

134. 방사능 치료실 밖 - N

치료실 문을 열고 나오는 윤성찬과 비서.

윤성찬 보안팀에 바로 패스코드 넘겨. 관공서에 들어온 민병대 신고내역들
 뽑아서 전부 분석하고..
 비서 박철진은 어떻게 할까요?
 윤성찬 방법 없다면? 죽으면 뭐 할수 없지.

135. 몽타쥬 - N->D->N

한참을 달리고 또 달리는 현우, 다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말이 없다.
 밤에서 낮으로 또 밤으로...(위치 지도자막: 서울에서 전남 광주 인근까지)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 간간이 번개가 친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자동차 앞유리창에 쏟아지는 빗물을 와이퍼가 세차게 밀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뒤에는 앰버의 거친 숨소리와 격렬한 기침. 다들 앰버 때문에 걱정이다

현우 찰리, 비행장까지 얼마나 남았어?
 찰리 13킬로미터.(40대 남자목소리)
 현우 아직도?

136. 도로 -N

현우의 차가 멈춰 선다. 차에서 내리는 현우, 앞으로 걸어 나온다. 차 앞쪽에 빗물이 넘쳐
 흐르는 깊고 넓은 도랑을 발견한다. 찰리 현우 곁에 서며, 점점 찰리말을 잘듣는 현우.

찰리 돌아가야 돼. (40대 남자목소리)
 현우 그럼 더 멀어져.
 찰리 안돼 너무 깊고, 빨라. 유속이 50km면 못 버텨.

137. 차 안 - N (비)

-차에 올라타는 현우와 찰리. 차를 출발시킨다.
 (시간 경과)
 -쏟아지는 빗속을 달리는 현우의 차.
 -초조해 보이는 현우. 쉼소리를 내며 호흡하고 있는 앰버. 찰리, 뒷좌석에 누워있는 앰버
 를 스캔한다. 슬픈 찰리다.

찰리 현우, 나 말해도 돼? (10대 남자 목소리)
 현우 (툭툭거리며) 하지 말라고 해도 말할 거잖아!
 찰리 (40대 여자 목소리) 앰버는 지금 먹는 약으로는 안 돼. 병원 가서 000
 수술 받아야 돼. 그래야 나올 수 있어.
 현우 알아. 나도 방법을 찾고 있잖아!.

창밖을 보던 라울, 불빛을 발견하고 손가락을 들어 먼 곳을 가리킨다.

라울 형, 저기, 광주 비행장 아냐? 쿠마 형이 말한.

현우, 라울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데 진짜로 저 멀리, 활주로와 관제탑, 격납고가 있는
 소규모 비행장이 보인다. 앰버를 생각하면 쿠마가 아니라 누구라도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 수송기 쪽으로 달려가는데 쿠마다!!!

현우 차에서 내려 쿠마를 부르며 달려간다.

쿠마도 함박웃음을 짓고, 라울은 차 안에서 일어나 손을 저으며 “쿠마 형!” 부르고.

쿠마 와, 살아 있었네! 그 사이코 민병대 새끼를 어떻게 따돌렸어?
 현우 저, 비행기 언제 뜨냐?
 쿠마 (현우 말에는 대답 없이, 조수석 찰리를 보며) 저게 그 로봇이냐? 짝만하네.
 저걸 뒤에 쓴다고 그 지랄을 떨었대. 흐흐.
 찰리 (쿠마 말에 떨어뜨린 표정을 지으며, 팔짱을 낀다)
 현우 야! 내 말 좀 들어봐!. (절박한) 내 동생이 아파. 이 차 줄게, 갖고 있는 돈도 다 주고. 비행기에 앰버 좀 태워줘- 응?

라울이 돈 가방을 현우에게 던지자, 받아서 쿠마에게 준다. 가방 안을 힐끗 보는데. 얼마 안 된다. 피식 웃는 쿠마, 차 안에 깊숙이 고갯 넣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앰버를 본다. 그때 갱멤버가 다가와 쿠마에게 귓속말로 뭔가 속삭인다. 쿠마의 표정이 굳어지고, 답도 안 하고 급하게 수송기로 달려가는 쿠마, 하는 수없이 쫓아가는 현우.

138. 유빅 본사. 옥상 - N

서울 도심. 우뚝 솟은 유빅본사 건물 외경. 부감으로 옥상이 보이고, 대기하고 있는 헬리콥터를 향해 걸어가는 윤성찬과 비서.

비서 교통 드론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광주 방향이고, 20분 전입니다!
 윤성찬 확실한 거지?!
 비서 전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차량과 동일합니다.
 윤성찬 그럼 경찰, 민병대 전부 동원해! 아, 로봇은 절대 망가지지 않게 총쏘면 안된다고 주지시키고!
 비서 네.

윤성찬이 타자 헬리콥터가 서서히 이륙한다. 카메라 till-up
 국도변을 따라 민병대와 경찰이 일렬로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리는 모습.

139. 경수송기(EMB-120) 앞 - N

쿠마가 파일럿(50대, 남, 중국인)의 멱살을 잡고 수송기 날개쪽으로 밀어붙인다.

쿠마 그래서 저거 한 대로 뭐 어떡하라고? 처음 했던 약속이랑 틀리잖아!
 파일럿 이거 놔! 안 놔! 어차피 파일럿은 나밖에 없어.
 쿠마 개새끼야. 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잖아! 돈 더 달라고 해서 몇 번을 더 줬잖아! 근데 도대체 왜...?!
 파일럿 나도 최선을 다한 거야. 저거 한대라도 끌고 온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사태의 전말을 알게 된 현우.

cut to.

한쪽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는 쿠마, 현우가 다가간다.

쿠마 국경 넘는 놈들이 많으니까 감시가 심해졌나 봐.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고.
현우 무게를 줄일 만한 건?
쿠마 안에 좌석들 다 뜯어내면 10명은 더 태울 수 있을 거야. 그래도 13명은
 못 타.
현우 그럼 누가 남을 건데? (절박하게) 우리 앰버는?
쿠마 씨발... 내가 알아? 제비뽑기라도 하든지! (화가 치솟아서) 으아아악!

140. 격납고 안 - N

격납고 안에는 53명의 난민들이 쿠마의 얘기를 듣기 위해 웅기종기 모여 앉아있다.
어느새 들어와 있는지 찰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캠핑카를 만져보고 격납고 안을
두리번거린다. 지친 탓일까, 아무도 찰리를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난민들의 동요가 심한 상황인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남자난민1 전부 못 탄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요!? 그럼 누구는 타고 누구는 못
 타요? 그 얘기에요?
쿠마 수송기에 탈 수 있는 인원이 최대 30명이에요. 비행기 내부에 제거할 수 있
 는 건 최대한 다 제거하고 10명을 더 태울 겁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인원
 은 다 못 타요.
여자난민1 그럼 어떡하랴구! 돈 냈잖아요! 우리 여기서 그냥 다 죽어요?
남자난민2 야 이 새끼야! 비행기에 탈 사람을 왜 니가 정해! 너나 죽어 이 새끼야!
여자난민2 약속한 거랑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 애는요? 보살펴 줄 사람이 나밖에 없는
 데 애 혼자 보낼 수 없잖아요!
남자난민3 사람을 다 태울 수 있는 비행기를 가져왔어야지! 지금 와서 그게 무슨 개소
 리야! 그럼 누가 남으라고!
쿠마 비행기가 아예 못 뜬다고! 이해 못 해? 그럼 여기서 아무도 못 빠져나가!

여기저기서 쌍욕이 터져나오는 그 순간 음악이 흘러나온다 찰 리가 캠핑카안의 라디오를
켄 것이다, ♪~~~~♪ 음악에 맞춰 춤추는 찰리.
놀라 달려가 찰리를 제지하는 현우. 그 몇 분의 시간이 난민들의 흥분을 가라앉힌 걸까.
사람들이 찰리를 멍하니 쳐다보는 그때

현우 다 알잖아요!... 누굴 먼저 태워야 할지. 누가 남아야 되는지도 알구요.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가, 누군가 “그럼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쿠마 중국에 가기 전에 제주도에서 기름을 넣을 건데, 거기서 비행기를
 바꿔타고, 저는 이 수송기를 끌고 다시 올게요.

난민들 틈에서 손 하나가 스욱 올라온다. 나이 지긋한 노인이다.

노인 그럼 난 남겠소.

삐~ 삐~ 삐~ 그때 느닷없이 울리는 사이렌, 다들 격납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난민들
쿠마와 현우, 저 멀리서 달려오는 경찰차들을 발견한다.

쿠마 지금 출발해야 돼! 빨리 타세요!

격납고 한쪽에서는 갱멤버들이 분주히 무기를 챙기고 있다.

141. 격납고 밖 - N

파일럿, 난민들에게 소리치면서 조종석 쪽으로 달려가 앉는다.
순간 아수라장이 되고, 수송기로 달려가는 난민들,

쿠마 아이들, 여자 그다음에는 나이순으로 탑니다.

현우, 곧바로 달려가 차 안에서 앰버를 들쳐업고 달린다. 찰리와 락울도 달리고.

앰버 (현우 등에 업힌 채로) 오빠, 미안...

현우 뭐가 미안한데?

앰버 그냥, 다...

현우 (앰버를 수송기안에 태우며) 잘 들어. 너 치료받는 동안 우리 잠깐 떨어져
있을 거야. 아주 잠깐만. 오빠가 금방 찾아갈 거니까, 그때까지 건강해져
있어야 돼. 나 믿지? 쿠마가 잘 돌봐줄 거야.

앰버 응. (끄덕이며 친구들을 돌아본다) 찰리! 락울!

찰리 우린 친구야. (남자아이 목소리) 맞지?

앰버, 락울 응

재촉하는 쿠마에게 눈인사로 앰버를 부탁하는 현우.

경찰차들이 총출동해서 달려오고 있다. 가까워지면서 헤드라이트 빛이 대낮처럼 환하다.

이제 마음이 급해진 현우, 캠핑카 문을 열고 락울을 밀어 넣는다.

현우 안전해질 때까지 이 안에 있어. 넌 절대 나오면 안 돼!

락울 나도 도울래.

현우 됐어. (차 문을 닫고, 찰리에게) 찰리. 너 운전할 줄 알아?

찰리 뭐 그 정도는. (남자아이 목소리)

142. 캠핑카 안 - N

캠핑카가 앞으로 짙컴, 움직였다가, 덜컥, 하고 멈춰 선다. 운전석에서는 찰리가 핸들을
잡고 있다. 마음먹는 대로 차가 움직이지 않아서인지 머리를 긁는다. 다시 기어를 넣고
액셀을 밟는다. 급발진하는 차. 비틀거리며 달리던 차, 곧 안정을 되찾고 활주로를 향해
달려간다. 차 안에서 음악을 트는 찰리! 이젠 몸을 흔들며 운전한다.

143. 격납고 밖 - N

현우와 찰리는 각자 다른 캠핑카에 타고 경찰차가 수송기를 쫓지 못하도록 활주로 한복판에 가로로 차를 세우고 내려 재빨리 차 뒤에 숨는다.
 갱멤버들도 캠핑카들을 몰고 와 바리케이드를 만든다.
 소총을 들고 갱 멤버들이 차 뒤에서 엄폐한다. 경수송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고 나머지 난민들도 캠핑카에 나눠타고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차 벽을 사이에 두고 갱단과 경찰이 총격전이 벌어질 태세.
 탕! 탕! 탕! 수적으로 열세인 갱단 여러 명 총에 맞고 쓰러진다.
 갱단 중의 한 명이 현우에게 총을 던지는데. 난감한 현우,

현우 이거 어떻게 쏘는 건데?!

갱멤버1 그냥 조준하고 쏘!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 다행히 수송기는 이륙을 시작한다.
 이 와중에도 캠핑카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몸을 들썩들썩! 탄성을 피우는 찰리!

현우 (라디오를 끄고) 야! 찰리 너 총 쏠 줄 알아?

찰리 어? 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 (10대 남자 목소리)

현우 에잇! 총은 안 쏘도 우릴 구해줄 순 있잖아? 방법 좀 찾아봐!

마지못해 몸을 일으켜 세운 찰리,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경찰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찰리. 찰리에게 총을 난사하는 경찰들.

경찰대장 (손을 들고) 사격 중지!

그럼에도 아직도 누군가 총을 쏘며 찰리의 몸에 스파크가 튜다. 경찰지휘부는 이번에는 확성기로 사격 중지를 몇 번 더 외치자 그제야 경찰들이 전부 사격을 멈춘다.

경찰대장 사격 멈추라고! 로봇한테는 사격하지 않는다! 알겠어?! 저 로봇한테는 사격하지 말라고!

뭔가 이상해 뒤를 돌아보니, 찰리가 어느새 다가와 대장의 앞에 우뚝 서 있다.

찰리 여긴 너무 위험해요. 구해드릴게요. (40대 아줌마 목소리)

경찰대장을 번쩍 둘러업는 찰리. 그러고는 경찰차 트렁크에 집어넣고 문을 닫는다.
 현우한테 눈 찡긍하며, “나 잘하지!” 뽕뽕..현우.

144. 경찰차들 부근 - N

찰리를 향해 경찰들이 쏜 총알이 빗발친다. 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옆에 있던 경찰에게

다가가 번쩍 집어 든다. 그러고는 다른 경찰도 들어 양쪽에 한 명씩 끼우고는 격납고 옆 유류창고로 간다. 유류창고 안에 두 경찰을 집어넣고 문을 닫는다. 그러고는 옆에 떨어져 있던 쇠꼬챙이를 들어 걸쇠를 채운다. 총탄에 스파크가 이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을 유류창고나 경찰차 트렁크에 넣는 찰리, 하나 넣고 또 넣고.....

총을 들고 있는 경찰 앞으로 찰리가 다가온다. 겁먹은 그 경찰은 스스로 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격납고 쪽으로 스스로 걸어간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스스로 문을 닫는다.

돌아서는 찰리. 다리 관절에 총알이 박혔는지 걸음이 부자연스럽다. (이후부터 찰리는 절뚝이며 걷는다.) 찰리에게 걸어오는 현우. 절뚝이는 찰리를 보고 말문이 막힌다.

찰리 (아무렇지 않은 말투) 다 도와줬어. (10살 남자에 목소리)

현우 아니 근데 너... 다리...

20명 이상 되는 경찰을 순식간에 무장 해제시킨 찰리다.

그때 그들 옆으로 캠핑카가 달려와 멈춰 선다. 조수석에 있던 갱멤버2가 소리친다.

갱멤버2 로봇 고마워. 가자! 안 갈 거야?

현우 우린 따로 갈 데가 있어.

갱멤버2 (더 묻지 않고) 몸 조심해. 또 보자.

갱단 캠핑카가 떠난다.

145. 격납고 근처. 캠핑카 - N

라울이 타고 있던 캠핑카. 운전석의 현우, 옆에 앉은 찰리에게,

현우 우리도 집에 가자.

라울 집? 우리가 집이 있어?

현우 찰리의 고향, 해남말야.

찰리 좋아요! (40대 아줌마 목소리)

현우 목소리 바뀌! 헛갈려.

찰리 좋아요!(남자아저씨) 좋아요(할머니)! 좋아요!(장난끼많은 남자에 목소리)

현우 마지막 꺼. 이젠 그 목소리로만 말해. (미소)

찰리 응 (웃음표정)

146. 도로 - D

아침이다. 메마른 나무들이 듽성듬성 자라 있는 황량한 들판 사이로 죽 뻗어 있는 도로를 달리는 캠핑카 한 대. 현우가 운전하고 있고, 라울이 찰리의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다.

147. 유빅 본사. 개발실 - D

무인 치료 캡슐 안에 누워있는 박철진, 감은 눈을 번쩍 뜬다. 숨을 몰아쉬고,

박철진 으으.... 진통제... 야, 거기 누구 없어?! 아무도 없냐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참관실에서 매직미러를 통해 들여다보는 회복실의 모습.
박철진이 소리 지르고 있지만, 참관실 안으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피부가 간지러워 얼굴을 뺨뺨 긁는 철진. 손에 피가 묻어나온 걸 확인하고, 괴성을 지르면서 오른팔(기계)로 유리 벽을 타격하자, 유리 벽이 와장창 깨져나간다.
그 순간 요란스러운 알람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148. 유빅 본사. 개발실+복도 - D

개발실에서 복도로 나와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박철진.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걸어오다가 박철진을 마주친 연구원, 얼어붙는다.
연구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인다.

박철진 우리 애들은 어딴?
연구원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 하는)
박철진 치료는 했어?
연구원 ...
박철진 (자조적인 웃음) 님들 믿은 내가 병신이지.

박철진, 연구원을 메다 쫓는다.

149. 유빅 본사. 엘리베이터 - D

엘리베이터 쪽으로 와서 버튼을 누르는 박철진. 상태가 몹시 안 좋아 보인다. 눈이 풀려 있고, 호흡도 거칠다. 겨우 정신을 붙들고 있는 듯.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에 총 들고 서 있는 보안요원 2명. 문이 저절로 닫히면서 탕! 탕!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바닥에 쓰러진 보안요원의 허리춤에서 차키를 챙겨 나오는 박철진.

150. 유빅 본사. 주차장+건물 앞 - D

줄줄이 늘어선 차들, ‘삐빅!’하는 기계음을 내는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철진

쾅!!! (E)

151. 도로 옆 - D

현우의 찌그러진 캠핑카가 도로표지판 기둥에 충돌한 채 멈춰 서 있다.
표지판에 적힌 문구는 ‘나주 8Km’

찰리 어휴, 현우, 또 졸았어?
라울 형 말고 이제부터 네가 운전하는게 낫겠다. 찰리.

차체를 살피는 현우, 찢어진 바퀴를 발견하자마자,

“어휴, 씨!” 소리치면서 바퀴를 발로 찬다. 차에서 내린 라울과 찰리

라울 이제 어떡해? 얼마나 더 가야 돼, 찰리?
 찰리 (시무룩) 80km 우리 걸음으로 3박 4일 걸려.
 현우 가볍게 챙겨. 오래 걸어야 돼. 근데 찰리 너 무릎 괜찮아?
 찰리 아직은.(짱긋).

152. 들판 - D

광활한 들판을 부감으로 훑는 카메라. 들판을 걷고 있는 현우 일행(현우, 라울, 찰리)의 모습이 작게 보인다. (찰리는 절뚝이며 부자연스럽게 걷는다. 총에 맞아 관절부품 손상)

153. 비행장. 격납고 근처 - 해질무렵

아수라장이 된 비행장. 윤성찬이 바닥에 떨어진 기계부품 (찰리의 부품인 듯)을 지팡이로 뒤적거리고 있다. 비서는 옆에서 녹음기를 들고 녹음된 파일을 재생시키고 있다.

이재우 E 어디죠? 전화가 없어 걱정했는데...찰리는 무사하죠?
 현우 E 네. 일주일 이상 더 걸릴 거 같아요. 근데, 약속은 지켜주실 거죠?
 이재우 E 당연하죠. 찰리와 함께 온다면요. 우린 완벽하게 다 준비해 뒀어요.
 현우씨도 마음에 들 거예요.

그들의 뒤쪽에 자동차 2대가 주차되어 있다. 윤성찬의 차와 이재우의 차. 이재우(50대, 남)는 자신의 차 보닛에 엉덩이를 대고, 앞 손을 모으고 서서 윤성찬을 지켜보고 있다.

이재우 광주까지 왔으면 애네들 이제 금방 와요. 이걸 회장님한테도 기힙니다.
 윤성찬 (생각해 보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내가 운빨로 여기까지 온 건 아닌데, 자네 말이 맞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비서에게) 착수금 줘라!

비서가 돈 박스를 넘겨주자 그제야 웃으며 윤성찬에게 악수를 청하는 이재우, 윤성찬이 지팡이로 이재우의 가슴팍을 찔러 다가오지 못하게 제지한다.

윤성찬 (꺼지라는 뜻으로 지팡이를 휘젓으며) 물건부터 가져와! 다 받고 싶으면.
 이재우 (당황) 금방 연락드리겠습니다!
 윤성찬 (이재우 자리를 뜨자 비서에게) 박철진은 어떻게 된 거야?
 비서 어차피 그 몸으로는 얼마 못 버틸 겁니다. 수배도 걸어 뒀구요.
 윤성찬 (끄덕이고, 걸어가는 이재우를 못마땅한 얼굴로 보며)그리고 저 물건 확인해 봐. 뭔가 구린 냄새가 나는데, 뭔지...

손수건을 꺼내 기침하는 윤성찬. 그리고 던져버리면, 공중으로 날아가는 손수건.

154. 도심 - N

도로를 달리고 있는 박철진의 차.

차창 밖, 고층 건물 벽면에 투영되고 있는 뉴스 화면. ‘속보’ 뜨더니, ‘수배중’이라는 글씨와 함께 박철진의 얼굴이 뜬다.

155. 다리 아래. 공터 - N

똑똑! 갑자기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에 힘겹게 눈을 뜨는 박철진. 차창 밖에 **민병대원3** (30대, 남)의 모습이 보인다. 대원3이 조수석 쪽으로 가서 차에 올라탄다.

민병대원3 (철진의 물골을 보고) 대장님, 병원에 가 보셔야 되는 거 아니니까?
상태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

박철진 (귀찮다는 듯, 말없이 손을 내민다)

민병대원3 (종이봉투를 건네며) 국방장관이 윤성찬 쪽으로 돌아섰어요.
대장님하고 연관된 일들 전부 부인할 겁니다. 저희도 지금은 대장님 도와드리기... 껴고럽구요.

박철진 (종이봉투 안에서 권총과 돈다발을 꺼내 확인한다)

민병대원3 죽은 병철이 아이디로 통신망에 접속하시면 윤성찬 위치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여기까집니다

박철진 (권총을 허리춤에 꽂으며) 알았으니까 꺼져.

156. 박철진의 차 - N

도심을 달리고 있는 박철진의 차.

앞 차창에 HUD로 뉴스가 나오고 있다. 현우를 수배하는 뉴스다. 박철진, 볼륨을 높인다.

뉴스 E 경찰은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용의자 이현우에 대한 현상금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현우는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최근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미국 국적의 이 용의자는 유빅 소유의 로봇을 훔쳐 달아났으며...

네비게이션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HUD에 광주를 향한 길이 표시된다. 그리고 광주 부근에 붉은 점이 점멸한다. 윤성찬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는 것.

그때 저 멀리 임시 검문을 하는 경찰차와 그 앞에 검문을 기다리는 차들을 발견한다.

박철진, 재빨리 차를 돌린다.

157. 숲 - D

숲을 걷고 있는 현우 일행, 오카리나로 연주하는 ♫ ‘El Condor Pasa’가 배경음악으로 깔린다. 가까이서 보면, 락울이 오카리나로 곡을 연주하고 있다.

갑자기 멈춰 서는 찰리. 락울도 연주를 멈추고.

찰리 잠깐! 소리가 난다. 기차 소리. 칙칙폭폭...

현우 기차? 어디로 가는 건데?

찰리 (POV로 네비확인) 오후 2시 여기를 통과하는 기차는 목포로 가는 화물차야.

현우, ‘가자!’ 허겁지겁 달리기 시작한다. 숲을 빠져나와 둔덕에 서자, 아주 먼 곳에서부터 기차가 달려오는 게 보인다. 둔덕 바로 아래쪽에는 기차길이 이어져 있다.

현우, 옆에 놓여 있는 통나무와 찰리를 번갈아 바라본다.

158. 기차길 - D

화물 열차가 저 멀리서 달려오고 있다. 그러다가 서서히 속력을 멈춘다. 기차길에 가로 질러 놓여 있는 통나무 하나. 그 앞에 화물 열차가 멈춰 선다.

cut to.

기관사와 정비 근로자들이 통나무에 줄을 매달아 한쪽으로 끌어당긴다. 통나무가 조금씩 기차길 밖으로 끌려 나온다.

cut to.

경적 소리와 함께 화물차가 천천히 움직이고, 아까 끊겼던 ♪ ‘El Condor Pasa’가 다시 배경음악으로 깔리기 시작한다.

현우 일행이 화물칸을 향해 달려간다. 화물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현우 일행. 안전하게 안으로 들어간 일행은 서로를 보며 안도의 웃음을 터뜨린다.

159. 화물칸 - D

어두운 화물칸 안에 상자들이 쌓여있고, 거기에 현우 일행이 기대어 앉아있다. 라울은 현우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고, 현우는 화물칸의 문틈 사이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바깥 풍경을 보다가 또 찰리도 보고.

현우 찰리. 이제 집까지 얼마 안 남았어.
찰리 알아. (사이) 나 통조림 하나 먹어도 돼?
현우 응? (의아한)

찰리는 가방에서 통조림을 꺼내더니 까서 바닥에 내려놓는다. 그러자 어둠 속에 숨어 있던 비쩍 마른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난다. 잠깐 주위를 경계하더니, 배가 고팠는지 통조림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한다. 펜던트가 달린 집 앞은 고양이이다. (DIS)

160. 해남. 마을 골목+소영의 집(과거)

비쩍 마른 고양이 한 마리가 바닥에 떨어진 뼈밖에 안 남은 생선을 먹고 있다.

고양이 목에는 ‘두부’라는 이름이 새겨진 펜던트가 달려 있다.

그때 찰리 몸에 부착된 무전기에서 소영의 목소리가 들린다.

소영 E 찰리, 안 숨고 뭐 해?

해질 무렵, 매직아워의 가장 하늘이 아름다운 시간대.

소영은 망원경으로 찰리를 지켜보고 있다. 찰리는 고양이를 안고

소영이 있는 쪽을 향해 꽃을 들어 좌우로 흔든다.

소영 (고양이와 꽃을 안으며) 전부 나한테 주는 거야? 둘다 엄청 예쁘다.

찰리, 소영의 반응에 만족스럽다. 둘이 함께 걸으며

소영 찰리, 넌 이 고양이처럼 길 잃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찰리 응. 난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소영 그래도 모르잖아. 만약,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꼭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소영, 새끼손가락을 내민다.

노을이 지는 거리. 찰리가 소영을 마주 바라보며 새끼손가락을 건다. .

161. 화물칸 - D

현우를 흔드는 찰리의 손으로 디졸브(DIS). 깊이 잠들어 있다가 눈을 뜨는 현우.

현우 응... 왜... 뭔데?

찰리 다 왔어, 목포야.

162. 목포 기차역 - D

허름한 기차역에 기차가 정차돼 있다. 화물칸 문이 열리고, 현우가 주위를 살핀다.

현우와 라울, 찰리가 화물칸에서 서둘러 내린 후 달리기 시작한다.

163. 평야 - D

평야를 걷는 현우 일행. '땅끝마을까지 30Km'라고 적힌 표지판을 지나간다.

164. 이어지는 평야 - N (비)

땅바닥에 빗방울이 하나, 둘씩 떨어지더니 곧 굵은 비가 되어 쏟아진다.

비에 흠뻑 젖어서 걷고 있는 현우 일행. 바닥이 진흙이 되어 발이 푹푹 빠진다.

라울 형! 걷기 너무 힘들어요!

현우 (של 만한 곳이 있나 주위를 둘러보는데)

찰리 현우. 저쪽에 건물이 있어.

찰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보자, 저 멀리 어둠 속에서 건물지붕이 보인다

165. 상그릴라 리조트, 건물 전경 - N (비)

폐장한 지 오래된 리조트, 그 중심에 낡은 건물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다.

현관에 상그릴라 호텔이라고 적힌 녹슨 간판이 보이고.

166. 리조트 안 - N (비)

리조트 입구로 들어서는 현우와 라울, 찰리. 비를 떨어낸다.

현우 (찰리를 돌아보며) 깜깜해서 아무 것도 안 보여. 찰리!
 찰리 나도 에너지가 바닥났어. 찰리도 잠을 자야 돼.
 라울, 현우 잠?
 찰리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인간들도 잠을 자면서 에너지를 충전하잖아!
 현우 알았어. (현우 비상구 옆에 놓여있는 손전등을 찾아 비추고)
 일단 올라가서 쉬자!

어둠 속을 서로 의지하며 계단을 오르는 현우 일행.

167. 리조트. 스위트룸 - N (비)

스위트룸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오는 현우, 손전등을 비추며 스위치를 찾아 켜다. .
 “우와 엄청 크다!” 소리를 지르며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라울, 풀썩 의자에 주저앉는 찰리

현우 밖에 좀 둘러보고 올 테니까 쉬고 있어.
 라울 응. 빨리 와

168. 리조트. 복도+자판기 앞 - N (비)

자판기 버튼을 누르는 현우. 그런데 물건이 나오지 않자 자판기를 손으로 치자 그제야 물건이 떨어진다. 1회용 핸드폰이다.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망설이다가 전화하고 있는 현우.
 (상대에 얼굴이 보이는 일종의 페이스톡같은 전화다. 이 시기에는 이런 전화가 일반화)

이재우 E 현우 씨?
 현우 네
 이재우 E 걱정했잖아요! 연락이 없어서. 지금 어디야? .
 현우 ... 목포요.
 이재우 E 고생했네. 내가 지금 데리러 갈게요.
 현우 지금요? 이쪽으로 온다고...?
 이재우 E 당장 출발하면... 서너 시간쯤 걸릴 거예요.
 현우 그게... 곤란해요. 설명하자면 좀 길고....제가 알아서 할게요.이제 부턴.
 이재우 E 지금 현우씨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건 알죠? 구도환의 부탁도 있었고...
 아무튼 나랑 있는 게 안전해요!!
 현우 아니, 어떻게 오지마세요! (뚝)

169. 어느 일각 차 안 - N (비)

이재우 전화 끊고 현우의 통신위치 확인하더니 윤성찬한테 전화한다.

이재우 (의기양양) 목포에 있네요. 제가 데리고 갈게요. 돈은 확실한 거죠? ㅎㅎ

170. 리조트 - 동틀무렵

동틀 무렵. 을씨년스럽다.

끼익, 픽업 트럭 한 대가 리조트 앞에 멈춰 선다. 운전석에서 내리는 이재우.

뒷좌석에서 더플백을 꺼내 어깨에 멘다.

171. 리조트. 워터파크 안 - D

거대한 수영장. 작동도 안 되는 부서진 놀이기구가 흉물스럽고.

폐업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상점들. 찰리와 락울 둘러보다가

버려진 마네킹의 옷을 벗겨 입으며.

현우 (뽐내듯) 어때?

찰리 상하의 색깔이 어울리지 않아. 패션에 자신이 없으면 앞으로는
흰 티를 주로 입도록 해.

현우 넌 멋있다고 하면 어디 덧나냐?

찰리 현우. 저기 누가 와.

현우 뭐? (웃음이 사라진다)

바로 그들의 옆에 다가오는 이재우. 현우와 락울, 바짝 긴장하는데,

이재우 나야, 이재우.

현우 ? (꺼림칙한) 제가 어디 있다고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이재우 목포 근처에 호텔 다 뒤졌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닌 거 같아. 내가 빨리 돕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절한 웃음을 띄며)

현우 (웬지 불길한 예감) 제가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락울과 찰리를
돌아보며) 너흰 방에 들어가 있어.

그때 갑자기 이재우가 허리춤에서 쇼크 건(로봇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전자총)
을 꺼내 현우의 뒷덜미를 내려찍는다. 현우, 주저앉고. 이재우, 곧바로 쇼크 건을 들어 찰
리의 머리 향해 발사한다. 강한 전기충격을 받은 찰리가 순간 스파크를 일으키며 주저앉
는다 “찰리!”를 부르는 락울의 옷깃을 움켜잡는 이재우!

172. 리조트 밖+이재우 차 안 - D

강화외골격을 입은 이재우가 찰리를 어깨에 메고 호텔에서 나온다. 의식을 잃은 찰리를
실어나르는 <강화철근 특수 적재함> 차량에 밀어넣고, 운전석에 올라타는 재우, 뒷좌석에
는 케이블 타이 두 팔이 묶인 채 현우와 락울이 앉아있다. 분노로 화가 머리끝까지 난 표
정들

이재우 찰리만 넘기면 돼. 녀들은 풀어줄게.

현우 (분노)당신! 누구야? 이재우 맞아?

이재우 후후 맞아. 도환이의 동료였던 것도 맞고. 생각이 바뀐 거지.
내가 아닌 것은 아냐.

라울 거짓말쟁이! 배신자!
 현우 (침을 뱉으며) 똥!
 이재우 그럴 거 없어! 네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
 나도 한뼘 세상을 구하겠다고 애를 썼는데... 뭐 남는 게 없잖아. 빈털터리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구도환 죽었다고 누가 알아주거나 해!
 세상이 나아졌니? 소금 한 줌 뿌린다고 강물이 바닷물이 되나?
 후~ 날 너무 원망하지 마라!. 이게 최선이야. 도환이 생각해서 돈은 조금
 나눠줄게.... 어차피 너희들은 유빅사와 싸워서 절대 못 이겨!

이재우가 말하는 동안 현우는 케이블 타이에 묶인 손을 빼내려 애쓰고.

173. 해변가 - D

해변가에 차 3대가 서 있다. 윤성찬의 차, 무장한 군인들이 타고 있는 트럭 한 대,
 거대한 특수차량 한 대.(찰리를 데려가려고 만든 차량)
 그리고 윤성찬과 비서, 강화외골격을 입고 샷건을 든 경호원 2명이 서 있다.

저 멀리서부터 이재우의 특수차량 트럭이 달려와 그들 앞에 멈춰 선다.
 차에서 내리는 이재우. 경호원들이 <강황철근 특수 적재함>을 킁킁거리며 윤성찬앞에
 가져간다. 철재 프레임안에 바닥에 널브러진 채로 앉아있으며 윤성찬을 올려다보는 찰리.
 (찰리는 몸이 마비됐지만 신경센서는 온전해서, 찰리의 시선으로 윤성찬이 다가오는 게 보인다.)

윤성찬 (흥분 하며) 찰리, 오랜만이다. 40년만인가? 얼마나 널 찾았는데...
 (이재우에게) 수고 했어. 내가 사람을 영 끌봤네. 찰리의 내부 연결선은
 다 해체했지?
 이재우 ...그럼요. 명색이 로봇전문가인데 (비릿하게 웃으며, 차안의 현우를 힐끗)
 애들이니까 재들은 그냥 풀어줘도 되지 않을까요?
 윤성찬 그러지 뭐. 그러시게. 우리 비서한테 돈이나 받아 가.

이재우, 아이들을 외면하고 비서에게 간다. 그런데... 잠시 후, 탕! 총소리가 울린다.
 깜짝 놀라는 현우와 라울. 경호원들은 <강화 철근 특수 적재함>을 거대한 특수트럭에
 옮겨싣고 그것도 모자라 찰리를 강철 프레임으로 2중 3중으로 포박한다.
 뒷좌석에서 질질 끌려 나오는 현우와 라울

윤성찬 (지팡이로 현우의 얼굴을 톡톡, 치고) 내 물건 훔쳐다 어디다 쓸라 그랬니?
 고물상에 팔려고 그랬어? 참 어린놈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현우 (노려본다)... ..
 윤성찬 물건이라는 건 그 물건이 태어난 목표에 맞게 써야 가장 가치 있게 되는 거
 야. 니들은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쓰레기야.
 현우 찰리는 물건이 아냐! 당신 것도 물론 아니고!..
 윤성찬 어? (황당) 그럼 누구 건데? ...저건 내 돈으로 만든 내 거야.
 현우 찰리는 누구 것도 아냐!..
 윤성찬 (지팡이로 현우의 뺨을 갈기고) 도둑질만 하던 난민 새끼라 그런가

입이 더러워! 형편없는 잡종 새끼들.

윤성찬, 돌아선다. 그리고 경호원들에게

윤성찬 죽여! 버려지 같은 놈들.

윤성찬, 차에 올라타고 서서히 출발하고 찰리를 실은 트럭이 윤성찬의 차 뒤를 따라간다.
남은 경호원은 이재우의 차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다.
동시에 또다른 경호원은 현우와 라울의 뒤로 걸어가 총을 꺼내는데...
그 순간, 케이블 타이를 끊어낸 현우가 경호원에게 달려들어 쓰러뜨린다.

현우 라울! 도망쳐!

라울이 벌떡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하고, 현우도 라울의 뒤를 쫓아간다.
경호원, 바닥에 떨어진 총을 주워 들어 현우를 뒤쫓으려고 하는데,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차가 경호원을 밀어버린다. 운전석에서 나온 박철진. 충격으로 튕겨 나가 바닥에 데굴데굴 구르는 경호원을 발로 걷어찬다. '박철진이 살아있다니!' 겁에 질린 현우와 라울, 보이는 차 아무거나 타고 달린다. 씨익 웃는 박철진.

174. 특수 트럭 - D

트럭의 강철 프레임에 결박돼 있는 찰리. 손가락이 까딱, 움직인다. 그리고 찰리의 머리가 약간 움직여 그 손가락을 바라본다. 몸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윤성찬의 차 안

차 뒷좌석에 앉은 윤성찬, 만족스럽고 흥분감에 찬 표정으로 위스키를 잔에 따르고 있다. 위스키 잔에서 반사된 영롱한 빛을 바라보며, 도취 되어,

윤성찬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다. 그 빛은, 윤성찬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하

/트럭 적재함

찰리 가슴에 붉은 불빛이 들어오고. (이재우는 찰리의 신경연결선을 해체하지 않음)
트럭 운전사가 웬지 이상한 느낌에 뒤를 돌아보는데,
그 순간, 찰리의 몸에서 고압전류가 방출되며 트럭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치솟는다. 이어서 윤성찬의 차도 공중으로 치솟는다. *아아아아아아악!!! 뭐야?!*
두 차 모두 공중에 떠올랐다가 강하게 바닥으로 추락하고, 땅에서 몇 바퀴씩 구른다.
트럭이 폭발하고, 화염이 치솟는다.

/도로 어느 일각

운전하고 있는 현우, 몇백 미터 앞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는 게 보인다.
“찰리!” 부르며 전속력으로 달리는 현우, 현장에 도착해 뒤지는데,
라울이 현우에게 “형! 여기요!” 소리친다. 불타는 트럭 옆에 찰리가 보인다.

찰리 현우가 올 줄 알았어.
현우 (웃음) 괜찮아? 나도 니가 기다릴 줄 알았어.

찰리를 태우고 다급히 차를 출발시키는 현우. 차가 출발하는데, 총성이 울리면서 차의 뒷 유리창이 깨진다. 따라온 박철진! 그런데...라울이 고개를 빼꼼보는데 박철진이 따라오지 않고 현장에 서 있다.

차안의 라울 형아, 안 따라와. 근데 박철진 기계야? 못 생겨졌어.

/뒤집힌 윤성찬 차 안

우그러진 차의 프레임에 몸이 끼어 있는 윤성찬. 고통스런 표정으로 운전석 쪽 계기판에 있는 'Emergency Button'을 바라본다. 거리가 멀다. 앞 좌석에 있는 비서는 이미 숨이 멎었고. 백미러를 통해 차 트렁크 부근에 불이 붙어있는 게 보인다. 누군가 다가와 얼굴을 훑 들이미는데... 박철진이다! 윤성찬은 아예 외면하고 차 안만 두리번.

윤성찬 (박철진 등장에 놀랐지만,) 잘 왔어. 나 좀 꺼내줘. 빨리!
박철진 (조롱 섞인 미소) 도와주면?
윤성찬 내가 너 살려줬잖아. (차 안에 비치된 무전기만 달랑 꺼내며)
박철진 니 입에서 나오는 건 구린내밖에 없어. (차체에 붙은 불이 점점 커져가는 걸 보고) 천천히 죽어가는 기분이 어떤 건지 너도 한 번 느껴봐.

윤성찬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증얼거리며, “벌레만 못한 난민새끼..”

175. 박철진의 차 - D

도로를 달리는 박철진의 차. 뒤쪽에서 굉음이 들린다. 백미러를 통해, 저 멀리서 윤성찬의 차가 폭발하며 치솟는 화염이 보인다. 얼굴이 멍개져 웃는 모습이 더 소름끼친다.
박철진, 품에서 무전기(윤성찬 차에서 행간)를 꺼내 버튼을 누르는

176. 현우의 차+박철진의 차 - D (교차)

지지직-! 차량에 설치된 무전기에서 박철진의 목소리가 들린다. 가쁜 호흡까지

박철진 어이. 거기 들려? 너네들 어디까지 갈라 그러니?
현우 (박철진임을 알고)?!
박철진 땅 끝까지 왔어. 더 갈래야 갈 데도 없다.
 내가 많이 피곤해....이제 그만 하자
현우 ... 왜 이렇게까지 쫓아오는데..!
박철진 그러게 왜 이리 질기니! 버리면 될걸, 그 고철덩어리가 니 들 친구라도 돼? 이 새끼!
현우 그래 친구다. 어쩔래?.

찰리 씨익 웃고. 현우, 무전기를 핵 잡아당긴다. 끈이 튕, 끊겨 나간다.

박철진 (어쭙, 이것들 봐라) 그래, 끝까지 한 번 가보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헛구역질을 하는 박철진.

177. 도로. 현우의 차 안 - D

달리는 차. 정적이 감돌고.

라울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찰리 라울 같은 친구가 없어서 그래. 친구가 없으면 인간도 번데기가 돼! 아니
번태가 돼! (가우뚱) 이것도 아닌가????

현우 (찰리를 보고 웃으며) 헐! (고개를 절레절레) 나쁜 말만 배우고.

현우, 무전기를 차창 밖으로 던진다. (F.O)

178. 해남 외곽. 도로 - D

한참을 달리고 달린 현우의 차. 어느덧 바다가 내려다보인다.

한 **중년여인(한선희, 50대)**이 구식 소형 차를 운전하고 있다. 그러다가 앞서 천천히 달리고 있는 너털너털한 차를 보고 다가오더니 추월을 시도한다. 차에 소년(현우)과 로봇(찰리), 꼬마아이(라울)가 보인다. 로봇이 한선희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리는데 이를 만류하는 현우, 안경을 치켜올리며 그들을 자세히 살피는 한선희.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이고... 그렇게 점점 멀어지는 선희의 차.

‘환영합니다. 여기서부터 해남입니다.’라는 낡은 표지판이 스쳐 달리는 현우 차.

179. 현우의 차 - D

라울, 표지판을 확인한 뒤, 주변을 둘러보고,

라울 찰리. 여기 해남 맞아?

찰리 응, 맞아. (주위를 둘러보고,) 달라졌네. (시무룩)

해남에 들어섰지만 황량할 뿐. 어쩌면 더 초라하다. 사람도 안 보이고. 메마른 흙바닥만 사방에 펼쳐져 있다. 갑자기 뒤쪽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현우, 백미러로 저 멀리 뒤쪽에서 달려오는 경찰차를 발견한다. 안절부절하며 “어떡해”를 연발하는 라울 하지만 찰리는 아무 걱정없는 듯 길가의 작은 꽃들을 꺾고 있다

현우 (찰리에게) 야? 찰리! (소리치려다가 말고) 다들 아무 말도 하지 마.

180. 갯길 - D

경찰차가 현우의 차 뒤에 선다. 차에서 내리는 **이순경**(30대, 남), 현우의 차에 다가와서 차창을 내리라고 손짓한다. 차창을 내리는 현우.

이순경 (현우와 찰리를 번갈아 보더니) 범퍼 부서진 거 알지? 후미등도 아작이 났

고, 유리창도 부서지고... (그러다 차체에 난 총알구멍까지 발견한다)
현우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다가) 안 그래도 수리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이순경 수리가 아니라 폐차를 해야겠는데? (사이) 주소?
찰리 (미소)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165번지.
현우 저희 할머니 집이요.
이순경 그래? 다들 내려.
현우 ...
이순경 이 차로는 못 가. 저 봐, 돌길이지. 폭삭할 거야

181. 경찰차 안 - D

-달리는 차 뒤쪽에 나란히 앉아있는 현우와 찰리, 라울. 중앙에 앉은 찰리가 한 움큼 천 갈풀을 소중히 들고 냄새를 맡고 있다.

찰리 (현우에게 꽃을 내밀며) 현우도 맡아볼래?

현우, 자신의 속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는 찰리에게 흘끗 눈치를 주지만, 찰리는 태평하다. 라울은 잔뜩 겁이 나 있고, 이순경은 운전하면서 룸미러로 뒤를 살펴보고 씨익 미소

182. 소영의 집 앞 - D

경찰차가 오래되고 낡은 2층집 앞에 멈춰 선다. 이순경이 내리며,

이순경 내려. 다 왔어.

현우와 찰리, 차에서 내린다.

현우 (찰리에게) 여기 너희 집 맞아?

찰리 응. 그런데 많이 변했어.

이순경, 현관으로 가서 문을 두드린다.

이순경 삼촌!

현우, 라울 ? (의아한)

그때 **남태성**(50대후반, 남)이 현관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낸다. 50대라기에는 너무 높고 쇠약해 보인다. (*해남의 어른들은 모두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데, 어릴 적부터 병을 달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태성 찰리! (감격해서) 이게 얼마 만이야?

찰리 응. 잘 지냈어?

찰리 키가 많이 컸어. 주름이 많아졌어. 피부도 나빠졌다.

태성 (포옹을 풀고) 넌 여전히 솔직하구나.

찰리 (집 안으로 시선을 던지며) 소영이는?
(갈품을 들어 올리면서) 소영이한테 줄려고 가져왔어.
태성 잘했어. 소영이는 꽃이면 다 좋아하지.

현우는 무슨 상황인가,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남태성은 찰리의 어깨동무를 하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간다.

183. 소영의 집안 - 해질 무렵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지난날 소영이의 사진을 본다. 이 집에서 소영이는 남태성과 결혼해 짝꿍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찰리 소영이는? (계속 두리번 거린다)
태성 (숨을 들이쉬고) 찰리. 너 40년 만에 집에 온 거야. 알지?
찰리 맞아. 소영이는? 아빠도 안보이네.
태성 (걸옷을 걸치며) 그래 만나러 가자.

184. 소영의 집 뒤편. 묘비 - 해질 무렵

지동현박사와 소영 묘비를 둘러싸고 서는 남태성과 찰리, 현우와 락울이 함께 서 있다.

태성 소영이는 의사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 너 기다려야 된다고.
찰리 (갈품을 묘비 앞에 놓는다) 너무 늦어서 미안해. 소영.
태성 (찰리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소영이가 너 오면 이 말 전해 달랬어. 집에 잘 왔다고. 약속 지켜줘서 고맙다고.
찰리 (슬픈 눈으로 끄덕끄덕)

그때 차 한 대가 와서 집 앞에 멈춰 선다. 차(#178)에서 내린 한선희가 달려와 찰리를 반갑게 안는다.

한선희 나 기억나?
찰리 응. 선희. 아까 봤잖아. 키가 많이 컸어. 주름이 많아졌어. 흰머리가 됐어.
한선희 그래, 맞아. 우리 마지막에 숨바꼭질했던 건 기억 나? 그땐 내가 항상 술래였는데 (찰리를 가볍게 건드리면서)

환한 얼굴로 다가오는 또 다른 노인(동훈). 역시 과거 찰리 동네 친구다.

중년남 찰리?
찰리 동훈이. 키가 많이 컸어. 배가 많이 나왔어. 안경이 생겼어.
중년남 (함박웃음) 나 많이 변했는데 알아보네?
찰리 너네 집 돌담은 고쳤어?
중년남 그게 언제 적 일인데. 너 없이 하느라 엄청 힘들었어. 지금은 고칠 게 더 많아.
찰리 (미소) 언제든지.

나이는 60대 부부 그들도 소식을 듣고 남태성 집에 온 것이다. 그리고 또 우르르 모여더니, 20여 명의 친구들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찰리를 반갑게 맞아준다. 나이 들었던 것만 빼곤 찰리 기억 속 40년 전 친구 모습 그대로다. 이 모든 상황이 놀라운 현우와 라울.... 차라리 찰리가 부러운.

라울 (작게 현우에게) 친구가 진짜 많네, 난 앰버뿐인데.
현우 그러게. (웬지 멋쩍은)...

그때 중년 중 한 사람이 현우를 보며 “뉴스 맞지? 수배범?”하고 묻자, 옆에 있던 사람이 옆구리를 툭 친다.

cut to.

집 앞 마당에 식탁이 차려져 있다. 찰리를 위한 조출한 식사 자리. 대부분 50대가 훌쩍 넘은 사람들이고 젊은 친구라고는 이순경 하나뿐이다. 왁자지껄 떠들어 대는 유쾌한 저녁, 배고팠던 현우와 라울, 허겁지겁 먹으면서

라울 형, 여기 말야 아이들은 한 명도 안 보여. 젊은 사람도 저 순경 아저씨 빼곤 없는 거 같애. 순 할머니 할아버지야.
현우 췌!

태성 옆에 앉은 찰리는 시종 시무룩한 표정이다.

찰리 (태성에게) 소영이는 많이 아팠어? 미루는? 덕희는 왜 안 보여?
태성 소영이 따라 하늘나라 갔어. 나머지 떠나고. 한때는 여기에 과학자들이 모여들어 꽤나 번성했는데...찰리, 이 사람들이 전부야. 유빅사 놈들 때문에.
현우 (유빅사란 말이 나오자 먹다 말고) 네?!
라울 유빅사? (의기양양하게) 찰리를 뺏으려고 우릴 죽이려 한 그 나쁜 놈들 맞지. 형?
현우 응. (태성에게) 자기가 찰리를 만든 주인이라고 했어요.
태성 찰리를 만든 건 윤성찬이 아니고 지동현박사야, 소영이 아버지다. 찰리를 강제로 뺏어갔는데, 잃어버렸나 보더라. 소문이 짝 났어.
찰리 바닷속에 있었어.
태성 40년을?
찰리 응.
현우 그 후에는 요?
태성 윤성찬은 찰리를 다시 만들라고 지박사를 괴롭혔고, 지박사는 거절했지. 돈 욕심에 찌든 윤성찬이 찰리 같은 우수한 로봇을 대량생산해 전쟁 무기로 써먹으려 했거든. 근데 지박사가 끝내 거부하니깐 여기 해남 연구소를 아주 박살 내버린 거지. 거기에다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연구원들 전부 뿔뿔이 떠나고, 나하고 소영이만 남아서 에너지 연구를 계속했는데... 그 사이 소영인 심장을 10번이나 갈아 끼웠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나 봐... 40년이면 많이 버텼지.

*태성 슬회 내용에 맞춰 VIDEO-INSERT.

묘비를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있는 찰리로 이어진다.

185. 소영의 집. 묘비앞+집 안 - 해질무렵

멀리 바다가 보이고, 벤치에 앉아 소영의 묘비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찰리.

그 모습을 거실 유리창으로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이는 현우.

다가와 현우의 손을 잡는 락울.

락울 찰리가 많이 힘든가 봐.

현우 응. 이젠 우리 둘만 남았네... 찰리는 자기 집에 왔잖아.

락울 (현우를 올려다보며) 그러네. 근데 찰리가 말야...(입을 닫는) 아냐.

"현우야, 여기서 찰리랑 같이 우리랑 사는 거 어때?"

태성의 얘기에 돌아보니 이순경과 한선희가 자신들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보고 있다.

현우 우린 떠나야 해요. 유빅하고 민병대에 쫓기고 있거든요.

찰리는 힘도 세고, 여기 친구들도 많지만, 우린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이순경 어디로 가려고?

락울 제주도요. 거기 앰버가 있거든요.

일동 ?

현우 제 동생인데, 거기 있을지 확실친 않지만. 중국 가는 수송기가 제주를 들른다고 했으니.

선희 에이, 위험해서 못 가. 거기 지뢰밭이야! 나비지뢰! 그거 들어 봤어?

락울 (놀라서) 그게 여기도 있어요? 아이구 무서워.

선희 그게 전쟁 당시에 적군 막을라고 뿌려놓은 건데, 지금은 노망이 나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공격한다고! 그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현우 후~~방법을 찾아봐야죠. (나가서 찰리한테 간다)

/묘비 앞

현우, 벤치에 앉아있는 찰리 옆에 앉는다. 노을에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현우 찰리. 슬퍼?

찰리 (고개 끄덕)

현우 우리는 내일 떠날 거야. 제주도로. 하지만 너는 집에 왔으니까, 이젠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찰리 진짜? (환한 표정)...

현우 야, 왜 이리 좋아해. 우리가 널 강제로 데리고 다녔냐? 기분 나쁘네...

... (사이) 찰리야, 내가 처음에 나쁜 마음 먹었던 거. 미안해 화낸 것도 미안하고..., 너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고마워.

찰리 (고개 끄덕) 인간들은 참 변덕이 심해.(!!) 자기들끼리도 아주 배타적이고 서로를 믿지 않아.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가 없는 거야. 세상도 망가지고.

현우 그래...부정하고 싶지만 맞는 말 같애...우린 친구인 건 맞지?
찰리 응.

‘찰리의 선택이 자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씁쓸한 현우..., 어쩔 수 없다’.

186. 소영의 방 - N

불 꺼진 방. 침대에 현우와 락울이 자려고 누워있다.

락울 형, 나 무서워.
현우 뭐가?
락울 페드로 형이랑 나랑 한국에 올 때, 바다에서 나비지뢰 터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형이 그러는데 우린 진짜 운이 좋았대.
현우 (마음 아픈데)...괜찮아. 지금껏 처럼 잘 될거야.

찰리는 가만히 둘의 얘기를 듣고 있다.

187. 거리 - D

아침이다. 찰리는 마을을 둘러보며 썩은 나무를 뽑아 정리한다. 어느 곁에 망가진 송전탑
을 보며 소영이와의 과거를 회상한다.

/찰리의 회상

송전탑 아래 엎드려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소영. 다가가서 그림을 보는 찰리

소영 내가 네 이름 지었어. 넌 자이언트 찰리야.
찰리 자이언트? 난 별로 안 큰데?
소영 아빠가 그러는데, 세상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래. 넌 니가 생각하는 것보
 다 훨씬 강하대.
찰리 내가?
소영 응. 찰리는 세상을 구할 수 있을 만큼 강하대.
찰리 맞아. 난 강해. 난 자이언트 찰리야.
소영 응. (그림을 가리키며) 여기가 제주야. 언젠가 여기 가면, 여기도 아빠의
 제자들이 많은데... 찰리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을 거겠어.
찰리 (그림을 집중해서 바라본다)

회상에서 빠져나온 찰리, 머리 위에서 들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면, 민병대 마크를 단
드론이 근처를 날고 있다. 찡그리는 표정, 또 날아왔네 하는...

188. 소영의 집 밖 - D

현관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남태성. 하늘에는 민병대 드론이 날고 있는 게
보인다. 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남태성.

189. 소영의 방안 - D

현우와 라울, 가방을 들고 옷가지를 챙긴다. 그때 한선희가 손에 반찬통을 들고 방안에 들어온다. 반찬통을 현우와 라울의 가방에 나눠 넣는다.

한선희 김밥이랑 샌드위치.
 라울 아줌마, 너무 많아요.
 한선희 많이 먹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190. 소영의 집 밖 - D

현관에 바짝 붙어서 드론을 올려다보고 있는 남태성, 한선희, 현우, 라울, 찰리. 드론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현우 가볼게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라울 찰리는? (고개 꼭 숙이고, 아쉬운)
 현우 그냥 가자.

라울, 힐끔힐끔 오나 싶어 돌아보지만 찰리는 보이지 않고. 현우에 이끌려 대기해 놓은 이순경 차로 간다.

191. 도로 위 - D

이순경의 차가 도로를 달리자, 드론이 그 차를 뒤쫓기 시작한다.
 쫓아오는 드론을 뒷 차창으로 불안하게 바라보는 현우와 라울.

이순경 눈치챘네.

현우, 라울, 차창으로 드론을 올려다보며 불안한 표정.

이순경 나비떼 만나면 엔진은 꼭 끄고. 보트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으니까 다른 건 건들 필요 없어, 알았지?

(이후 드론 시점)

경찰차가 높은 건물들이 하나둘씩 서 있는 소도시로 접어든다. 저 멀리 지면에 바닷물이 차 올라 있는 게 보인다. 거기서부터는 건물들의 하층부가 바닷물에 잠겨 있다.
 경찰차가 바닷물이 차 있는 경계면 앞에 멈춰 선다. 차에서 모두 내린다.

192. 해안가 - D

하층부가 잠긴 어느 폐건물 앞. 전신주에 핸들식 타입 모터보트 하나가 밧줄에 묶여 있다. 현우와 라울이 보트에 탄다. 이순경이 밧줄을 푸는 동안 현우는 선미에서 엔진 시동을 건다. 그때 그들 곁으로 달려오는 차 한 대. 찰리가 내려 일행 곁으로 달려온다.

찰리 현우, 같이 가! 같이!
 현우 헉! (환하게 웃으며) 진짜 같이 갈 거야?
 라울 와! 와!
 찰리 (스마일) 내가 할 일이 뭔지 알았어! 그 일은 소영이, 아빠가 원하는
 일이고. 그리고 뭇보다 우린 친구잖아!!!

193. 바다 위 - D

현우, 모터보트의 엔진을 가동하며 바다를 전속력으로 달린다.
 민병대 정찰 드론이 현우의 모터보트를 공중에서 쫓고 있다.
 그런데 라울 눈에 뭔가 보인다.

라울 (하늘을 가리키며) 형, 나비 아냐?

현우, 라울이 가리키는 쪽을 올려다보니 저 멀리 나비 떼가 허공을 맴돌고 있다. 거대한
 나비 떼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모습. 시동을 끄는 현우.

현우 다들 쫓!

현우와 찰리, 노 젓기에 열중하는 중인데... 다른 쪽 바다에 멀리서 박철진의 모터보트가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는 게 보인다.

박철진 E 거기서!! 네 놈들은 날 못 벗어나. 새까.
 현우 와? 저거! 미치겠네! (찰리에게) 얼마나 가야 돼?
 찰리 한참 더 가야 돼.
 현우 그니까 얼마나?!

그때 총소리가 울린다(이때 박철진의 연 다발 총소리에 반응하는 나비 떼들). 박철진이 쏜
 총이 보트에 맞는다. 찰리, 재빨리 몸을 일으켜 현우와 라울의 몸을 감싼다. 찰리의 몸에
 맞은 총알 하나가 스파크를 튀기며 튕겨 나간다. 공중에서 나비 떼가 현우의 모터보트로
 날아든다. 현우의 주위가 나비 떼의 그림자에 뒤덮여 순식간에 어두워진다. 모터보트 주
 위를 둘러싸고 소용돌이치고 있는 나비 떼. 현우, 두려움에 몸이 굳는다.
 반쯤 얼굴이 뭉개져 흉악한 물골의 박철진. 깜짝 놀라 모터보트를 멈춘 채 눈앞의 광경을
 지켜본다. 나비 떼의 모습이 마치 토네이도처럼 보인다.
 그런데 나비 떼는 주위를 맴돌 뿐, 현우를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현우의 어깨에 앉는다. 또 한 마리는 찰리의 손가락 위에 앉는다. 나비가 찰리의
 손가락을 머리로 툭툭, 건드린다.

찰리 (현우에게) 무서워할 필요 없어. 우린 친구야.
 현우 특하면 친구래...? (궁시렁 거릴 뿐 찰리가 하라는 대로)...응.

마치 찰리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현우의 어깨에 앉았던 나비가 공중으로 날아오른
 다. 찰리의 손가락 끝에 앉았던 나비도 날아오른다. 나비 떼가 거짓말처럼 허공으로 날아

오르며 멀어지고, 그림자가 걷힌다.

찰리 이제 됐어. 소리 내도 돼. 달려!

현우, 모터보트의 시동을 걸고 속력을 내기 시작한다.

194. 박철진의 모터보트 - D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철진도 시동을 건다. 부웅~~~~ 그러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에 보니, 나비 한 마리가 박철진의 어깨에 앉아 있다.

박철진은 귀찮다는 듯 손으로 나비를 짓밟는다. 보니까 인공 칩이 달린 기계 나비다. 그런데 나비 몇 개가 날아와 선미에 앉고, 옆에도, 그리고 박철진 손등 위에도 앉는다.

박철진 꺼져. 다 꺼지라고!

박철진, 소리를 지르며 팔을 허공에 휘젓는다. 그러자 그 소리에 이끌리듯 나비 떼가 그의 모터보트로 몰려든다. 박철진은 기계 부속이 드러난 자신의 팔을 보여주며 소리친다.

박철진 이거 봐! 나도 기계야! 나도 니들이랑 똑같애!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꺼져, 이 새끼들아! 꺼지라고! 다 싹버리기 전에 전부...

그 순간, 나비들이 연쇄적으로 폭발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박살 나는 보트! 폭발음이 잇따라 들리고, 물기둥이 치솟는다. 그 물기둥으로 박철진은 바닷 속에 빠지고 그 세찬 물살에 현우의 모터보트도 휩쓸린다.

195. 현우의 모터보트 - D

현우 다들 짹 잡아!

나비 떼가 박철진한테 옮겨가자 여러대의 드론이 몰려오며 총을 쏜다.

폭발음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현우. 총알이 모터보트의 아웃 모터에 박힌다.

급기야 드론이 모터보트에 부딪친다. 그 여파로 현우와 찰리가 바다로 튕겨 나간다.

196. 바닷속 - D

현우,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데, 현우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고 더 깊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데 먼저 빠진 박철진이 찰리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닌가...!

더 깊이 내려가 사력을 다해 박철진을 물속에서 가격하지만 역부족.

찰리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현우, 벗겨진 박철진 기계 몸 안에 복잡한 전선들이 눈에 띈다. 다시 박철진에게 달려가 모든 전선을 뽑아버리는. 그러자 마침내 박철진의 몸이 그 자리에서 망가지며 가라앉는다.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현우를 노려보며 깊이 가라앉는 박철진.

주위를 둘러보는 현우, 저 멀리 찰리가 안타까운 눈으로 미소를 지으며 현우를

바라보며 더 깊숙이 내려가는. 숨이 차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현우,
 기다려 찰리!!!! (마음속 외침)
 바다 위로 올라가 라울의 모터보트안에 있는 것을 보고 숨을 고른후 다시 잠수한다.
 찰리를 부르는 라울의 목소리가 귓전에 들리고. '찰리?' '찰리?'
 바닷속을 살펴보지만, 찰리는 보이지 않는다. (F.O)

197. 바다 - N (비)

고요한 바다. 움직임 없이 떠 있는 모터보트.
 라울은 잠들어 있다. 현우도 쓰러져 있다. 후두둑 내리는 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보트 옆으로 고기잡이배가 다가온다.
 현우, 힘겹게 눈을 뜨는데, 웃고 있는 찰리가 보인다. (환상)
 '찰리...' 미소 띠며 눈을 감는 현우 (F.O).

198. 주택. 작은 방 - D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현우. 미진(작은 지진)이 일어나고, 방이 흔들리자 눈을 뜨는
 현우, 전등이 점멸하더니 전구가 팍, 깨져나간다. 스탠드 옷걸이가 넘어져
 현우의 몸을 덮친다. 잠시후 잦아드는 미진. 침대에서 일어나는 현우. *여기가 어디지?*

199. 주택 밖 - D

주택을 나오는 현우. 눈 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는다. 짙은 녹색의 초원지대.
 야트막한 주택들, 근처에서 소와 양들이 여유롭게 풀을 뜯어 먹고 있다.
 '내가 죽었나? 천국인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는 현우다.
 뒤를 돌아보니, 언덕 위에 '엄청나게 커다란 송전탑'이 서 있다. (땅끝마을의 '커다란 송전
 탑'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연구소 건물이 있다.

바닷가에서 라울이 어떤 남자(조박사)와 함께 손에 든 물고기를 들고 달려온다.
 "형!"하고 소리치며 와락, 현우에게 안긴다.

조박사	(현우 쪽으로 오면서) 깨어났구나.
현우	...여기 어디예요? 우리 죽은 거예요?
라울	(웃으며) 아냐. 아냐. 이 박사님이 형하고 나. 그리고 찰리도 구해줬어.
현우	(놀라며) 찰리..? 찰리가 살았어요?

/바닷속 (INSERT)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찰리. 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물이 착, 내려와 찰리의 몸을 휘감
 고, 들어 올린다.

200. 송전탑 앞 - D

송전탑 앞 풀밭에 다른 여자 박사(40대)와 함께 서서 뭔가를 관찰하는 찰리.
찰리의 외관이 말끔해져 있다. 제주에서 수리하고, 외관을 새것으로 교체해 준 것.
찰리는 손에 올라와 있는 개구리를 살펴도 보고, 냄새도 맡고 하면서 집중이 안 된다.
박사, 찰리의 손을 찰싹, 때리고, '집중!' 소리친다.
조박사와 함께 언덕을 올라오는 현우와 락울. 현우는 찰리를 발견하고 웃음이 번진다.

현우 찰리!
찰리 현우!

찰리, 현우에게 다가가 세차게 안는다.

현우 (눈가가 축축) 진짜 여기가 제주도야? 넌 살아있는 게 맞고?
찰리 제주도는 본래 XX 제곱미터 섬인데 지금 가라앉아 XX로 줄었고
작은 지진이 가끔 나지만 이 정도면 안전지대야 (계속 얘기중)
현우 그만! 그만! 네가 수다떠는 걸 보니 죽지 않은 거 같애. 마음이 놓인다

카메라 멀리 하늘로 올라가 제주도를 비추고, 더 멀리 올라가 한반도 그리고
푸른 행성까지...(F.O) 음악은 연결되고 ♪

201. EPLOGUE / 제주도 앞바다 - D

투명한 바닷물이 보인다. 그 아래 보이는 물고기 몇 마리.
잠시 후, 뭔가가 쿵! 수면 위를 때린다. 알고보니, 그것은 찰리다.
물고기를 잡은 찰리, 기분이 좋아 싱글빙글. 잡은 물고기를 버킷 안에 넣는다.
어디선가 날아 온 아기 새, 찰리의 어깨 위로 내려앉는다.
기분이 좋은 찰리, 힘껏 포즈를 취한다. 가슴에 달린 링이 빙글빙글 몇 바퀴 돌더니 이내
'푸쉬' 소리와 함께 멈추고 만다. 이때 어디선가 찰리를 부르는 목소리.

엠버 찰리~~~!!

저 멀리 엠버가 보인다. 그러자 찰리, 엠버를 향해 뛰어간다.
지붕을 고치는 현우. 예전 같지 않게 제법 남자가 된 모습이다.
현우를 보며 미소를 짓고 손을 세차게 흔드는 찰리.
그 위로 들리는 현우의 내레이션.

현우 N.A 우리는 마침내 정착했다. 더 이상 난민이 아닌 모습으로.

cut to. (뉴스 Footage)

유빅사 폐업. 국방장관이 청문 당하는 모습.

현우 N.A 유빅사는 지동현박사의 애초 설립대로 에너지 연구소로 탈바꿈됐고,
국방장관은 사적인 이유로 군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해임됐다.

cut to. (연구소 통제실)

연구에 전념하는 조박사 연구진들과 찰리.

현우 N.A 에너지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찰리는 곳곳에 만들어졌다.
물론 내 친구 찰리는 아니다.

난민병원에 의사로 움직이는 수빈(찰리와 같은 소형원자로 로봇)

인천 난민촌에서 빛을 내는 페드로 (역시 로봇이다.)

어둠 속에서 공을 차고 노는 무슬림 아이들, 환하게 빛을 들어오는 자리에 서 있는 한수 (로봇)

cut to. (제주도 앞바다)

찰리와 현우, 앰버, 라울. 모두가 다 같이 밥을 먹으며 왁자지껄.

현우 N.A 그리고... 우리 다시 함께가 되었다. 이곳 제주도에서... 우리만의 마을을
건설하기로 했으니까.

찰리와 눈이 마주치는 현우.

찰리는 저 멀리서 혼자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잘 안 잡혀서 그런지 표정이 좋지 않은데.... 이때 물고기를 잡으려고 집중하는 찰리.

윙...윙...윙...윙... 수상한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고.....찰리의 가슴에 달린 링이...

점점 빠르게 돌아가려는 그 순간.!!!

THE END